

이 책은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중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 안내서



속초문화원

| 머 | 리 | 글 |

‘속초’ 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아마도 대다수는 바다와 함께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관광도시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앞선 세대의 누군가에게 이곳은 피란의 애환을 경험하며 힘들었던 시절을 지냈던 곳이고, 친구들과 알몸으로 바닷가에서 즐겁게 노닐었던 곳이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고층 아파트와 넓어진 도로가 낯설게 보이고, 지난 시절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변해버린 현재를 안타까워할 것이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대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아마도 지역의 맛집 정도는 꿰고 있겠지만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경험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도 지역의 많은 것들을 이해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중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속초향토사 안내서는 우리들의 미래인 학생들이 속초를 이해하고, 속초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아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속초’ 지명의 유래부터 시작하여 행정구역과 삶 속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속초의 역사와 문화재 그리고 자연·인문 환경과 식생 등의 내용을 구성하여 최대한 과거와 현재의 우리 지역 모습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설악산에 관한 내용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오랜 시간 지역민의 베풀목이자 삶과 뗄 수 없는 설악산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향토사와 향토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작업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우리 지역을 이해하며 미래의 ‘속초’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지역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1. 12. 1.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 목 | 차 |

I. 우리 동네 이야기 최종학·김정환	3
1. 지명	
2. 설화	
3. 속초 8경	
II. 속초의 지리와 식물 이야기 김동현·신수은	32
1. 속초의 자연환경	
2. 속초의 인문환경	
3. 속초의 식생	
III. 역사와 전통 이야기 김정환	53
1. 속초의 역사	
2. 속초의 문화재	
IV. 명산 설악산 이야기 신수은·김동현	87
1. 설악산의 지형	
2. 설악산의 식생	
3. 설악산의 동물	

참고문헌



I. 우리 동네 이야기

최종학 · 김정환



1. 지명(地名)¹⁾

가. 속초(束草) 땅이름 유래

‘속초’라는 지명이 보이는 최초의 기록은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의 ‘속초포(束草浦)’이다.²⁾ 이 기록은 문헌에서 속초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지역의 뿌리를 찾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속초’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다음 4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속초는 속새풀(속새목, 속새과의 상록 양치식물)이 많아 황무지, 벌판의 의미로 속새,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속초(束草)라고 불리었는데 이 두 땅이름이 함께 사용되다가 속초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

둘째, 영금정과 관련된 전설로 지금의 영금정 옆에 솔산(솔섬)³⁾이 있을 때 바다에서 이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어진 이름.

셋째, 풍수지리학상 속초의 지형은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기 때문에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

넷째, 울산바위에 관한 전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설악산(雪嶽山)을 구경하러 왔던 울산 고을의 원님이 신흥사(神興寺) 승려에게 울산 바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세금을 받아갔는데, 어느 해에 신흥사의 동자승이 이제 세금을 주지 못하겠으니 이 바위를 도로 울산 땅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울산 고을의 원님이 이 바위를 재로 꼳 새끼로 묶어 주면 가져가겠다고 했더니, 동자승이 청초호(靑草湖)와 영랑호(永郎湖) 사이, 곧 지금의 속초(束草) 시가지에 자라고 있는 풀로 새끼를 꼬아 울산 바위를 동여맨 후 불에 태워 재로 꼳 새끼처럼 만들었다. 그러자 울산 고을 원님은 더 이상 지세(地稅)를 내란 말도 바위를 가져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자로 ‘묶을 속(束)·풀 초(草)’로 적어 지금의 속초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나. 속초시 행정구역 지도



〈그림1〉 속초시 행정구역도
출처: 속초시청 홈페이지

1) ‘지명’편은 『속초의 지명』, 『속초의 옛 땅이름』, 『속초 도시변천사 I』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손병섭 외, 『속초의 옛 땅이름』, 속초문화원, 2002, 15쪽.

3) 솔섬은 현재 동명항 북방파제 입구에 있는 섬이다. 지금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도 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노송(老松)들이 고풍스럽게 우거져 있던 섬이었다. 섬이라고 하지만 해안선과의 거리가 멀지 않고, 섬까지 가는 길이 깊지 않아 밭목만 적시고도 건너갈 수 있었다. 동네사람들은 이곳을 ‘솔섬’이라고 불렸고, 한자로는 ‘송도(松島)’라고 했다.

다. 행정구역의 변천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었던 조선시대(朝鮮時代)의 속초는 대부분 지역이 양양(襄陽)에 속해 있었다. 행정구역상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의 2면(面)으로 되어 있던 속초는 소천면에 4개리(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 도문면에 6개리(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 신흥사)가 있었다.

소천면의 논산리, 부월리는 현재 조양동이며, 시내권에 속한 곳이 속초리(束草里)와 속진리(束津里)였다. 속초리는 청초천을 중심으로 오늘날 시내 쪽에 있었고, 동명동 일부와 영랑동 지역은 속진리(束津里)에 속했다.

일제강점기이던 1914년 지방제도 개혁으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되고, 11개 동리(속초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장항리)를 이루었으며, 이중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이때 속초리와 속진리가 합쳐져 속초리가 되었다.

1930년대 속초항이 개발되면서 인접한 속초리(束草里)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 1937년에 면(面)사무소가 대포리(大浦里)에서 속초리(束草里)로 옮겨지고, 면(面)의 명칭도 도천면(道川面)에서 속초면(束草面)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42년 속초읍(束草邑)을 거쳐, 1963년에는 시(市)로 승격되었다.

그동안 인구 증가로 속초리(束草里)는 1942년에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눠졌고, 해방 후에는 피란민의 증가로 인구가 더욱 늘어 1954년에 3구에서 5구, 4구에서 6구가 분리되었다. 그러던 것이 시(市) 승격 후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1구는 영랑동(永郎洞), 2구는 동명동(東明洞), 3구는 중앙동(中央洞), 4구는 금호동(琴湖洞), 5구는 청호동(青湖洞), 6구는 청학동(青鶴洞)과 교동(校洞)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행정동별 주요 지명

1) 영랑동(永郎洞)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져 영랑동으로 통합되었다.

가) 영랑동(永郎洞)⁴⁾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속초리(束草里) 1구를 영랑호(永郎湖)에 인접하였다고 하여 영랑동으로 이름하였다.

【새쪽마을】

영랑동의 바닷가 마을(등대 아래 마을)을 ‘새쪽마을’ 또는 ‘삽짜개’라고 하였는데 뱃사람들의 말로 동쪽

4)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속초 도시변천사 I』, 속초문화원, 2020, 135~138쪽 참조.

은 새쪽이라 하고 이 고장 방언으로 새쪽을 새짝이라고 하여 새짝마을의 뜻으로 ‘삽짜개’라고 불렸다.



〈사진1〉 현재 새쪽마을

출처:『속초 도시변천사 I』

【영랑호】

속초시 북쪽에 위치한 큰 석호(鶴湖)



〈사진2〉 영랑호

출처 :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2020 도시기록사업

【영랑시장】

영랑동에 위치한 시장. 현재는 없어졌지만 속초의 중심지가 영랑동, 동명동이었을 때는 여기가 제일 크고 먼저 생겼으므로 ‘제일시장’이라고도 했었다. 또 속초가 시(市)로 승격되어 동(洞)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영랑동이 속초리 1구였으므로 ‘1구 시장’이라고도 했다.

나) 장사동(章沙洞)⁵⁾

장사동은 과거에 고성군(高城郡)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말까지는 간성군(杆城郡) 토성면에 속하였다. 일제강점기에 간성군(杆城郡)이 고성군(高城郡)과 양양군(襄陽郡)에 나누어지면서 양양군으로 편입되기 도 하였지만 영랑호까지 고성군 영역이었다. 1950년대 잠시 속초시의 영역이었다가 1954년에 다시 고성군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던 것이 속초의 발전에 따라 생활 편의상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土城面)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가 속초시로 편입되었고, 두 동리의 첫 글자를 따서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장천리(章川里, 노루내)】

장천리(章川里)는 본래 ‘노루 장(獐)’자 장천리(獐川里)였던 것이, 조선 후기 마을의 유지였던 엄씨 집안에서 진사가 나자, 진사가 난 마을에서 어떻게 노루 장자를 쓰냐고 해서 ‘글 장(章)’자로 이름을 바꿔 지금의 장천리(章川里)로 바뀌었다. 장천(獐川)의 ‘노루 장(獐)’은 마을 서쪽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을 앞 넛가가 노루목 고개에서 시작되어 흐르므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장천(獐川)이라고 한 것이다. 후에 장천(章川)으로 변하였다.

【국사봉(國師峰 국수봉, 국시봉, 된봉)】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의 경계에 위치한 산봉우리. 해발 84m로 영랑호에서 보면 호수 바로 북서쪽에 우뚝 솟은 봉우리이다. 예전에는 국사서낭신을 모시는 국사성황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국사봉은 다른 말로 발음이 비슷한 국수봉, 국시봉이라고도 하고, 봉우리가 붓같이 수려하다 하여 문필봉(文筆峰)이라고도 한다. 또한 사진리 마을 사람들은 된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진리 마을에서 볼 때 마을의 된, 즉 뒤 안쪽의 봉우리라는 뜻이다.



〈사진3〉 국사봉
출처:『속초 도시변천사 I』

5)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앞의 책, 138~149쪽 참조.

【노루목 고개】

장천리(章川里)에서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고개. 전국적으로 무수히 분포하는 다른 노루목 고개와 마찬가지로 고개가 길게 늘어졌으므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리(沙津里)】

장사동의 중심 지역이다. 원래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沙津里)로 되어있던 것이, 1973년 속초시로 편입되면서 장천리(章川里)와 합쳐져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시대 읍지에는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 조선 후기부터 줄여서 사진리라고 불리었다. 속칭으로는 지금도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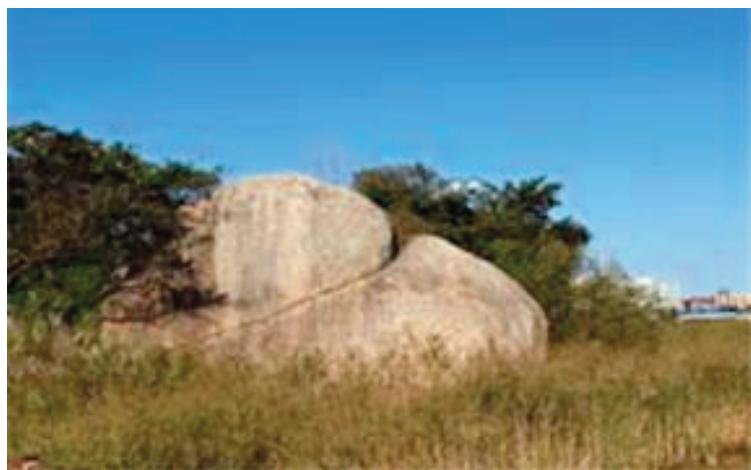
사진리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가 쌓여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모래기라고 불리었고 이것을 한자로 사야지(沙也只)라고 표기한 것이다.

【강장군산(姜將軍山)】

속초고등학교 뒷편(북쪽) 산. 강장군(姜將軍)이란 장사가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강장군이라는 힘이 무척 센 장사가 용촌리(龍村里) 번개(예전에는 호수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했음)에서 태어났고, 용촌리(龍村里) 용지호(龍池湖, 순개 또는 방축개라고도 한다)에서는 강장군(姜將軍)이 탄 용마(龍馬)가 나왔다고 한다.

【고바우】

영랑호 동북쪽 가에 있는 바위. 코처럼 생겼다고 하여(고는 코의 古語) 고바우라고 하며, 그 부근 갯가를 고바우에 연유하여 고밧개라고 한다. 다른 말로 신선이 놀던 바위라고 하여 신선바위, 또는 바위 형상이 윤선(輪船)같다고 하여 윤선바위, 두꺼비 같다고 하여 두꺼비바위라고도 한다.



〈사진4〉 고바우
출처:『속초 도시변천사 I』

【형제바위(兄弟岩)】

사진마을 앞 바닷가에 위치한 두 개의 바위. 두 개의 바위가 형제처럼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2) 동명동(東明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2구를 동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온다는 의미로 동명동(東明洞)이라고 하였다.

【영금정(靈琴亭)】

‘영금정(靈琴亭)’은 속초 등대 밑 동쪽 바닷가에 3면이 잇닿아 있고, 한쪽 면이 육지와 닿아 있는 석산으로 일제강점기 말기에 속초항을 개발할 때 이 돌산을 파괴하여 돌을 채취하여 축항에 이용하였으므로 현재 석산은 없고 그 자리는 넓은 바위로 변했으나 영금정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사진5〉 동명항일대(속초등대와 영금정)
출처 :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2020 도시기록사업

【마쪽마을】

등대가 있는 산등성이 남쪽 마을로 현재 영금정 입구 쪽의 마을이다. 뱃사람들의 말로 남쪽을 마쪽이라 하는데, 이 고장 방언으로 마쪽을 ‘마쪽’이라고 하고 마쪽 마을이라는 뜻으로 ‘마짜개’라고 불렸다.

【장안골】

범원·검찰청과 속초감리교회, 동명동 성당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 이름으로 ‘장골’ 또는 ‘장안골’이라 불렸으며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둘레에 성터의 흔적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조사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의하면 “속초리 부락 서쪽 방향에 둘레 300간이며 흙으로 쌓았고 거의 완전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최근 발굴 조사에서 성터를 확인하였다.

3) 금호동(琴湖洞)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금호동과 중앙동이 합쳐 금호동으로 통합되었다.

가) 금호동(琴湖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4구를 금호동(琴湖洞)이라고 명명하였다. 금호동은 신라 화랑인 영랑(永郎)이 뱃놀이하였다 영랑호(永郎湖)와 청초호(青草湖), 두 호수와 잇닿아 있다. 또한 옛날부터 시인들이 이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시문을 남긴 것처럼 호수의 주변이 아름다워 어디선가 거문고 소리가 들릴 듯하다 하여 이런 낭만적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옛날 고려 말엽 함께 공부했다는 안축(安軸)과 이곡(李穀) 두 시인이 이 호수에서 뱃놀이를 하며 음자를 놓고 서로 시를 읊은 것을 보면 가히 금호동의 동명(洞名)이 돋보인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금호동명(琴湖洞名)은 거문고 소리와 호수의 아름다운 정경이 서로 어울리는 깊은 뜻이 담긴 땅이름이다.

【범바위】

영랑호 남서쪽 가에 있는 큰 바위. 그 형상이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범바위라고 부른다. 경관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바위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나) 중앙동(中央洞)

수복 이후 매년 인구 증가로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7번 국도변은 금융업, 청초호 연안은 어항으로 발전해 왔으며, 1963년 속초시 승격 후 속초리(束草里) 3구로,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까닭으로 중앙동이라고 이름하였다.

【중앙시장】

속초에서 제일 큰 시장. 속초리 3구 가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삼구 시장’으로 부르던 것이,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3구가 중앙동으로 이름 지어져 이에 따라 중앙시장으로 불린다.



〈사진6〉 속초중앙시장풍경

출처 :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2020 도시기록사업

【용소골(용수골)】

현재 중앙시장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의 옛 이름. 지금은 매립되어 없어졌지만, 골 입구에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소(沼)가 있어 ‘용소골’이라고 불리던 것이 ‘용수골’로 변화되었다.

【짱터】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중앙시장, 시외버스 정류장, 미시령 도로로 갈라지는 교차로의 옛 이름. 예전에 이 곳에서 짱치기 놀이(소나무 용이로 공을 만들고 끌어 꼬부라진 나무나 지게 작대기로 짱채를 만들어 상대방문에 넣은 놀이)를 했으므로 ‘짱터’라고 불렸다.

4) 청호동(靑湖洞)

본래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던 곳이었으나, 수복 이후 피란민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리 5구가 되었다. 1966년 12개 동으로 개편될 때 청호동(靑湖洞)으로 바뀌었다. 한국전쟁 때 청호동은 정어리 공장이 두세 군데가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이후 피란민들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인 움막 형태의 집들이 들어서 신포마을, 앵고치마을, 짜꼬치마을, 신창마을, 정평마을, 홍원마을, 단천마을, 영흥마을, 이원마을 등 의 집단촌이 형성되었다.

청호(靑湖)라는 이름은 청초호(靑草湖)에서 온 것이다. 청호동에는 함경도(咸鏡道)에서 내려온 피란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함경도(咸鏡道)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 마을’이라고도 한다.

【갯배나루】

중앙동과 청호동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 곳. 이전에는 ‘5구 도선장’이라고도 했다.



〈사진7〉 갯배선착장

출처 :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2020 도시기록사업

【조도(鳥島, 새섬)】

청호동 해수욕장 앞 바다에 있는 섬. 우리말로는 새섬이고, 한자(漢字)로 표기하여 조도이다.

【주교(舟橋, 배다리)】

동쪽은 동해 바다, 서쪽은 청초호 그 복판으로 다리 모양 육지가 뻗어서 도선장(갯배)에 이어졌기에 부두와 같다하여 청호동을 배가 닿은 부두, 반부득 또는 배다리라고 했다. 한자로 주교(舟橋)라고도 한다.

5) 교동(校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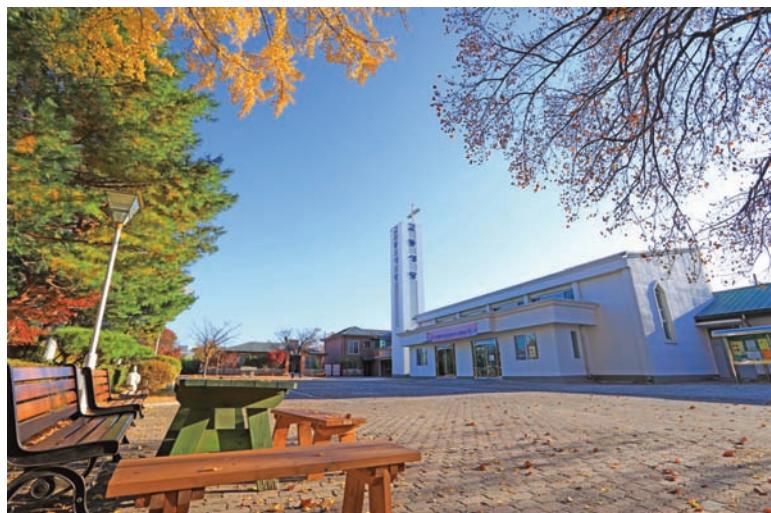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교동 일부와 청학동이 교동으로 통합되었다.

가) 교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6구가 청학동(靑鶴洞)과 교동(校洞)으로 분리되었다. 보통 향교(鄉校)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이라고 하나 속초는 옛 고을 중심지가 아니어서 향교가 없었다. 따라서 향교와는 관련이 없고 당시 속초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속초중학교(束草中學校)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교동으로 이름했다.

【만천동(萬千洞, 萬泉洞)】

교동 천주교회 부근을 일컬던 옛 땅이름으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땅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萬千戶)가 된다는 뜻으로 지었다는 설명과 만석꾼이 살았다거나 만천(萬泉)이란 아주 좋은 샘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렸다는 설명이 있다



〈사진8〉 만천동 교동성당

출처 :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2020 도시기록사업

나) 청학동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束草里) 6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을 청학동이라고 이름하였다. 청학동이란 이름은 청초호가 너무 맑아 지나가던 학들이 갈대밭에서 쉬고 갔다 하여 붙여졌다.

【청학시장(육구시장)】

속초리 6구에 위치한 시장이므로 ‘육구시장’이라고 하다가, 6구가 청학동으로 바뀜에 따라 청학시장(靑鶴市場)이라고 불리었다.



〈사진9〉 옛 육구시장

출처 :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2020 도시기록사업

6) 노학동(蘆鶴洞)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노학동과 교동 일부가 노학동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 신흥리(新興里)를 합쳐서 노학동(蘆鶴洞)이라고 명명하였다.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蘆里)의 ‘노(蘆)’자와 척산리(尺山里) 학사평(鶴沙坪)의 ‘학(鶴)’자를 딴 것이다.

조선 후기 읍지(邑誌)에 현재의 노학동(蘆鶴洞) 지역은 행정상 동·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고, 행정상 논산리(論山里)에 속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사람들의 거주가 늘어 일제강점기부터 행정상 노리(蘆里)가 신설되었다. 습지대의 개발로 인구가 늘어 1942년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될 때, 노리(蘆里)가 노리(蘆里),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의 4개 리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1962년 타도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뒷버덩으로 집단 이주해 와서 신흥리(新興里)가 신설되었으나, 1963년 속초시(束草市)로 승격되고 1966년 동(洞)제가 실시됨에 따라 종래의 노리(蘆里) 지역이 모두 합쳐져서 노학동(蘆鶴洞)으로 명명되었다.

【노리(蘆里)】

노학동의 중심 마을이며, 갈골,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라고도 했다. 현재 논으로 조성되어 있는 앞버덩 일대가 이전에는 습지대여서 갈대가 많았으므로 갈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노동(蘆洞), 노동리(蘆洞里), 노리(蘆里)라고 한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사진10〉 노리사거리
출처 :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2020 도시기록사업

【옹골】

노리에서 청초천 건너편 산기슭 마을이며, 전통적으로 노리(蘆里)에 속했다. 응골을 한자로 표기하여 응곡(應谷), 응동(應洞)이라고도 한다. 마을이 청대산(青岱山), 두루봉 등 앞(남쪽)산에 가려서 응달 골짜기 지역이 되므로 응골이라고 하였다.

【도리원리(桃李源里)】

노학동(蘆鶴洞) 지역 동북쪽 언덕 지대에 위치한 마을. 한자로는 도리원(桃李源)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고 부른다.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도리원(桃李源)이라고 하였다 한다. 실제로 마을에는 과거에 복숭아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복숭아 도(桃)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오얏 리(李)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의 설명은 도리원(桃李源)이라는 한자 표기에 의거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설명인 것 같다. 그것보다는 도리원(桃李源)이 인구가 적어 노리(蘆里)에 속할 때, 노리(蘆里) 마을 뒤 안쪽 둔덕이므로 뒤안둔덕, 뒤안덕, 뒤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덕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로 유래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도리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이목리(梨木里)】

노리 북쪽 골짜기 마을. 돌배나무골이란 골짜기가 지금도 있듯이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골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이목동(梨木洞), 이동(梨洞), 이목리(梨木里)라고 표기한 것이다.

【척산리(尺山里)】

마을 뒷산(남쪽, 목우재가 있는 산)이 마치 곡척(曲尺)이라는 둥근 자와 같이 생겼으므로 그 산을 척산(尺山)이라 하고 거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또 다른 유래는 농사철에 마을 뒷산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시

간을 채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목우재】

목우(牧牛)재 설악동과 척산리를 연결하는 고개.

【주봉산(朱鳳山, 朱峰山, 주왕재)】

마을 서북쪽 척산리(尺山里)와의 경계에 있는 산. 해발 338m

【신흥리(新興里)】

5·16 군사정변 후 군사 정부의 개간 정책에 따라, 1962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되어 뒷버덩에 정착시킨 마을이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1963년 동(洞)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변의 다른 동리와 함께 노학동에 속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흥리라는 땅이름은 계속 사용되고 있다.

【학사평(鶴沙坪), 자활촌(自活村)】

학사평의 원래 이름은 딱사벌이었는데, 후에 학이 내려와 앉는 벌판이라고 하여 ‘딱’자 대신 ‘학(鶴)’자를 써서 학사평(鶴沙坪)으로 개명하였다. 딱사벌은 농사가 잘 안 되는 딱한 벌판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발음상 딱사벌이라고 한다.

자활촌(自活村)은 학사평 벌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원래 마을이 없었으나 1961년 집단 이주로 새로 건설된 마을이다. 자활촌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살아간다는 취지에서 붙여진 것이다. 현재는 바람꽃 마을로 이름이 변했다.

7) 조양동(朝陽洞)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종래의 부월리(扶月里), 온정리(溫井里), 논산리(論山里), 청대리(青垈里)를 합쳐서 조양동(朝陽洞)이라고 이름하였다. 조양(朝陽)이란 땅이름은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받는 곳’이라는 뜻이다.

【부월리(扶月里)】

조양동(朝陽洞)의 중심 마을이다. 현재는 ‘도울 부(扶)’자를 써서 부월(扶月)로 되어 있으나 그것으로는 이름 유래가 잘 설명되지 않는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전에는 ‘뜰 부(浮)’자를 쓴 것이 그 후 ‘도울 부(扶)’자로 잘못 쓰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부월(浮月)은 ‘물 위에 뜬 달’이 된다. 청초호에 달이 비쳐 마치 물 위에 뜬 것 같다고 하여 부월(浮月)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지도서』에는 부월포리(扶月浦里)로, 그 후 읍지(邑誌)에서부터는 부월리(扶月里)로 기록하고 있다.



〈사진11〉 부월리주택가
출처 :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2020 도시기록사업

【온정리(溫井里)】

행정상 부월리에 속하고 있던 마을인데, 수복 후 인구 증가로 부월리에서 분리되어 온정리(溫井里)가 되었다. 마을 중간에 더운 우물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므로 이 마을을 더운 우물, 또는 한자로 온정(溫井)이라고 한 것이다. 한편 부월리에 속해 있을 때 부월리는 바깥이고 온정리(溫井里)는 안쪽이므로 안말이라고도 했다.

【논산리(論山里)】

논산이란 마을 이름은 이곳의 지형이 논 가운데 산이므로 우리말로 논뫼, 논미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논산(論山)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한다.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양양부사로 부임한 관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들이 청초호에 배를 띄워 햇불을 피우고 축하연을 해주었다는 논뫼호불꽃놀이가 전해진다.

【청대리(青岱里)】

논산리(論山里)에 속하다가 195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될 때 인구 증가로 행정상 논산리에서 분리 독립되어 청대리(青岱里)로 불렸다. 마을 뒤(남쪽)에 청대산(青岱山)이 있어서 청대산 밑이 되므로 청대리라고 하였다. 원래는 ‘청대(青岱)’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청대(青岱)’라고 쓰기 시작하여 지금은 모두 청대(青岱)라고만 쓴다.

8) 대포동(大浦洞)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노학동과 교동 일부가 노학동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6년 동제 실시 때 대포리에 외옹치리, 내물치리를 합하여 대포동이라 하였고,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는 합쳐져 도문동으로, 그리고 장항리(獐項里)는 설악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가) 대포동(大浦洞)

【외옹치리(外甕峙里, 옹진리)】

조선시대부터 면·리제가 실시되었는데, 그때 외옹치(外甕峙)의 행정지역 이름은 독 나루터라는 뜻의 한자 표기 방식으로 옹진(甕津)이었다. 이후 편찬된 지리서에서도 편호나 인구수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볼 수 있으나 행정 땅이름은 변함없이 옹진리(甕津里)라고 기록하고 있다.



〈사진12〉 외옹치항 풍경

출처 :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2020 도시기록사업

【덕산(德山) 봉수터】

현재 롯데리조트 자리에는 봉수터가 있었다. 지금은 건물을 짓기 위해 많이 낮아졌지만 원래는 산이었는데 산 이름이 ‘덕산’이었다.

【내물치리(內勿淄里)】

현재 속초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雙川)을 중심으로 양양 쪽에는 강선면 물치진리(勿淄津里)가, 속초 쪽으로는 도문면(道門面) 물치리(勿淄里)가 각각 행정지역으로 되어 있다. 강선면의 경우 『관동지』, 『강원도읍지』, 『양양부읍지』 등에도 물치진리(勿淄津里)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기록부터는 물치리(勿淄里)로 되어있다.

반면에 도문면의 물치리는 『관동지』, 『강원도읍지』, 『양양부읍지』 등의 기록은 편호와 인구수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든 흔적은 볼 수 있으나 행정지역 개편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후인 1914년 3월 1일부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강선면에는 물치리, 도문면(道門面)은 도천면(道川面)으로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에는 내물치리라 기록하고 있다.

나) 도문동(道門洞)

도문동(道門洞)은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원효, 의상 두 대사가 양양군(襄

陽郡) 강선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雪嶽山) 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러 갑자기 숲속에서 맑고 우아한 곡이 들리며 무상무아의 법을 아뢰는 듯하여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홀연 크게 깨닫고 도통의 문이 열렸다 하는 전설을 바탕으로 도문(道門)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전한다.

【도문평(道門坪, 도문뜰, 도문평야)】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에 걸쳐 있는 넓은 들. 도문뜰 또는 도문평야(道門平野)라고도 한다. 넓이 210여 정보⁶⁾, 한 해에 2천여 석⁷⁾이 생산된다고 한다.

【벼락바위】

상도문리 옹구점말 입구 쌍천(雙川)가에 있는 바위. 크게 갈라져 있는 벼락을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13〉 쌍천 정비사업 현장과 벼락바위
출처 :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2020 도시기록사업

【싸리재】

상도문리 옹구점말과 노학동을 연결하는 고개이다.

【옹구점말】

상도문리 동쪽에 옹기점(甕器店)이 있었던 마을. 일명 토기점(土器店) 또는 점말이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 천주교를 탄압한 경신박해(1860)때 충청도에 거주하던 천주교인들이 강릉을 거쳐 이곳에 정착하여 생계를 위해 옹기를 구워 팔았다고 한다.

【떡밭재】

중도문리와 논산리를 연결하는 고개 이름이다. 고개 옆으로 밭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떡밭이라고 했다.

6) 정보: 땅 넓이의 단위. 1정보는 3,000평으로 약 9,917.4m²에 해당한다.

7) 석: 부피의 단위. 한 석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다) 설악동(雪嶽洞)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합쳐져 도천면(道川面)으로 되었고, 도문면(道門面)이 있던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외에 설악산 부근에 장항리(獐項里)가 행정 지역으로 신설되었다.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장항리를 설악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노루목】

노루목 고개 일대(동쪽) 즉, 현재의 B지구 일대를 가리키던 땅이름. 노루목이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장항(獐項)이라고도 불렸다. 옛날에는 이곳에 민가가 있어서, 설악동(雪嶽洞)의 옛 이름인 장항리(獐項里)의 중심 마을을 이루었다.

【목우(牧牛)재(モ기재)】

설악동과 노학동 척산리를 연결하는 높고 긴 고개. 옛날에 현재의 노학동 일대의 토지가 대부분 신흥사 소유였는데, 가을 추수 뒤에 농민들이 생산된 양곡을싣고 신흥사로 가기 위해 이 고개를 넘다가 우마에게 풀을뜯게 하며 휴식을 취했다고 하여 목우(牧牛)재가 되었다.

【마등령(馬登嶺)】

마등령은 높이가 1,327m의 준봉으로 마치 말의 등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등산객들만이 넘어 다니나 예전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속초지역 행상인, 민간인들이 동서를 넘어 다닐 때 이용한 옛길 중 하나이다.

【대청봉(大青峰)】

‘청봉(青峰)’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하여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에는 “멀리서 보면 아득하게 푸른 옥색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으로 그 봉우리를 가리켜서 이름을 청봉(青峰)이라고 하였다.(遠見只價而青故指其絕頂而名曰青峰.)”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른 말로 상청봉(上青峰), 또는 청봉(青峰)이라고도 하는 설악산(雪嶽山)의 주봉으로 해발 1,708m이다.

【장재터】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인 쌍천 건너편이므로, 본래 양양군 강현면 상복 2리에 속해 있었으나, 198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단지 C지구인 핏골과 함께 속초시 설악동에 속하게 되었다. 마을 서쪽에 장자, 즉 부자가 살던 터가 있는 까닭으로 장재터라 불린다.

2. 설화⁸⁾

가. 속초 설화의 특징

설화는 한 민족 사이에 구전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인간이 사는 곳, 그리고 삶 속에는 이야기가 있고 속초지역 역시 여러 가지 설화가 존재한다. 울산바위, 권금성, 귀면암 등 설악산과 관련한 이야기, 영랑호, 만천골, 노학동 설화와 같이 지명유래와 관련한 이야기, 지역민의 안녕과 풍요에 대한 바람을 담은 청초호, 영랑호 용 이야기 등이 그 예이다.

속초에는 다양한 설화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름다운 바다와 호수, 산악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설화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의 설화를 찾아 읽고 그 속에 담긴 속초지역의 특징과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 공동체 의식 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 설화

1) 영랑호 이야기

신라 시대 화랑인 영랑(永郎), 술랑, 안상, 남석행 등이 금강산에서 수련하고 무술대회에 나가기 위해 고성 삼일포에 와서 3일 동안 쉬다가 금성으로 향하던 중 영랑호에 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중 영랑이 호수의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무술대회에 나가는 것조차 잊고 뱃놀이를 하던 곳이라 해서 영랑호라 불리게 되었다.

또 숙종 때 김삼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랑호에 와서 쓴 것 중에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사흘을 통곡하고 갔다는 글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 할 수 있다.

2) 장천 마을의 인심

장천 마을에 아홉 해 동안 흉년이 들던 시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거지나 다름없었다.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9년간이나 흉년이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마을에는 큰 부잣집이 있었다. 하루는 머느리가 친정에 간다고 해서 아무리 흉년이라 해도 친정에 갈 때 떡은 해서 가야 하므로 두세 가마나 들여 떡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도 가을이 아닌 봄(보릿고개)이었다.

그때 산에서 아기를 낳고 허기가 져 아기가 강아지로 보이고 요강이 가마로 보여 아기를 삶아 먹었다고 하는 미친 거지가 그 부잣집을 지나다가 떡을 치는 것을 보고 그 떡에 달려가 넙죽 엎드려버렸다. 그 거지 몸에는 이가 많았는데 그래서 결국 그 떡을 사돈집에 보낼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또다시 두세 가마를 들여 떡을 만든 후 사돈집에 보내고 더러워져 버린 떡은 벌을 내려도 마땅한 그 거지에게 모두 주었다.

8) ‘설화’ 편은 ‘장정룡·양언석 공저, 『속초지역 구전설화』, 속초문화원, 1999.’와 『속초 도시변천사 I』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자기보다는 사람을 중히 여겼다는 마을의 구수한 민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3) 영금정과 징바위

영금정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은 매우 아름답다. 영금정하면 정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영금정의 영자는 신령 영(靈), 거문고 금(琴), 정자 정(亭)자를 쓴다. 신령스러운 거문고 소리가 나는 정자 모양으로 생긴 석산(石山)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 영금정은 큰 바위로 이루어진 절경의 산이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바위를 부숴 방파제를 만들어 속초의 명소가 없어진 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하늘나라의 선녀들이 하강하여 영금정에서 목욕을 하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다시 돌아갔다고 하여 영금정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영금정 석산의 넓고 평평한 큰 바위 위에는 장군이 말을 타고 다녔다는 장군바위와 말발굽 모양이 있었다고 하고 바위를 치면 징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징바위도 있었다.

4) 청초호 용의 전설

청초호는 용의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속초의 민속놀이 중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의 유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설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속초의 양대 호수인 청초호와 영랑호에는 각각 숫룡과 암룡이 살고 있었다. 청초호에는 숫룡(청룡)이 살았고 영랑호에는 암룡(황룡)이 살았는데 서로 땅 속으로 통하는 물길을 따라 오가며 사랑을 나누었다. 어느 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 불이 나서 청초호 주변의 솔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숫룡이 죽고 말았다.

이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해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벌을 내렸다. 만천동과 청대리 사이의 소야천(청초천)을 왕래하던 나룻배도 자주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용을 달래고 흉사를 없애기 위해 정월대보름이면 무당을 청해 용신제를 지내 암룡을 달래고 숫룡의 죽음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이 때 만천동과 청대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으로 한 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가 거행 되면서 놀이로 정착하였다.”⁹⁾

5) 노학동 전설

노학동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이곳에 이씨 성을 가진 명문 대가가 있었는데 대대로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많고 학문의 경지에 오른 대학자도 많이 난 집안이었다. 그렇게 명성과 학문을 날리던 그 이씨 집안은 어느 때부터인지 점점 가문이 기울기 시작하여 과거 급제하는 일도 거의 없고 대학자도 나타나지 않고 가문의 명예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불순한 일도 가끔 발생하곤 했다.

이렇게 되자 이씨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서 대가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논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만 하여도 풍수지리설을 매우 신봉하던 때라 지관을 모셔다가 선조의 묘소를 돌아보게 했다. 지관은 그 묘소 앞 편에 산사태로 산이 많이 유실되어 나간 곳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유실된 곳을 유심히 이러저리

9) 이수영·장재환 공저, 『길 위의 束/草/學 속초의 길』, 속초문화원, 2020, 14쪽.

살펴보기 시작하다가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유실된 이 자리는 설악산 중에서 최고의 명당터였던 것이었다. 지관은 같이 갔던 이씨 문중의 어른들에게 여기가 설악산 최고의 명당인데 이렇게 유실되었으니 이씨 집안의 운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일러 주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그럼 지관 어른, 이렇게 명당이 유실되어 우리 가문이 쇠하게 되었는데 뭐 좀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지관 어른, 속는 셈치고 그 방법을 일러주면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테니 그 방도를 일러주시지요?”

그 지관은 방법을 일러줄 터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옛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명당을 복원하여 후손이 흥성한 일이 가끔 있었으니 해보시지요.”

그래서 그들은 일꾼을 얻어서 유실된 명당 자리를 다시 흙으로 메우고 다지고 하여 복원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무렵에 이 이씨 문중에 가장 나이 든 어른이 돌아가셨다.

문중에서는 이 어른을 모셔야 할 산소 자리에 관하여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지금 복원하고 있는 명당 자리에 모셔야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직 다 복원도 안 되었고 또한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이 명당의 기운을 발할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르는 처지에 그곳에다 모실 수 없지 않느냐는 신중론이 대립하게 되었다. 그들은 몇 차례 다시 만나 깊이 의논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문의 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지라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가문의 제일 연로하신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복원하는 명당 자리에 모시기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지관과 의논하였더니 그 지관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못자리를 너무 깊게 파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단단히 일러주었다. 그래서 인부들로 하여금 못자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정해진 깊이만큼 파내려 갔는데 한 인부가 잘못하여 그 깊이 아래로 삽질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움직이더니 하얀 학 두 마리가 광채를 발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황홀하여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학 두 마리는 하늘을 몇 번 선회하다가 한 마리는 지금의 학사평 쪽으로 또 한 마리는 양양 쪽으로 날아갔다.

원래 학사평은 옛날에 시인 묵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많은 선비들이 이곳을 출입하여 왔다고 하여 학사평을 배울 학(學), 선비 사(士), 평야 평(坪)하여 학사평(學士坪)이라고 불렀는데, 이 학이 내려 앓고 부터는 모래도 많고 하여 학 학(鶴), 모래 사(沙), 평야 평(坪)하여 학사평(鶴沙坪)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학은 여기 학사평에 잠깐 내려앉았다가 지금의 노학동으로 날아갔다.

노학동은 원래 노동, 즉 갈대가 많은 고을이라 하여 갈 노(蘆), 고을 동(洞)하여 노동(蘆洞)이었는데 학이 왔다 하여 노학동(蘆鶴洞)으로 불리게 되었고 한편 양양 쪽으로 날아간 학으로 인해 양양에는 학포리(鶴浦里)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6) 울산바위 전설

울산바위는 설악산을 대표하는 바위로 그 웅장함은 대단하다. 그런데 울산바위라고 한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물주가 천하제일의 명산을 금강산에 만들기로 하고 전국에 있는 웅장하고 멋진 산봉우리를 뽑아서 1만 2천 봉의 천하 명산을 만들려고 하였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위들에게 금강산으로 모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울산에 있는 바위는 항상 자신의 모습에 자만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습이 장엄하고 웅장하여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조물주의 이야기를 듣고 금강산으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울산의 바위가 떠나면서 주위의 바위들에게 “나는 본시 장엄한 바위로 이곳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명성이나 빛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나는 다른 멋진 바위들과 웅장함을 겨룰 것이기에 오늘 금강산으로 떠난다.”하고 말하였다.

이 바위는 너무 큰 바위라 빨리 달릴 수도 빨리 걸을 수도 없었다. 다른 바위들은 달려가지만 울산의 바위는 그럴 수 없었다. 말이 바위지 이 바위는 바위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산이었다. 이 거대한 바위는 걷는 것에 지쳐가고 있었다. 울산의 바위는 산맥을 따라 걸으면서 후회하기도 하였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다. 온 힘을 다해 금강산으로 길을 재촉하였지만 힘이 들어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기진맥진하였다. 울산의 바위가 기를 쓰고 온 곳이 바로 설악산이었다. 빨리 가서 좋은 자리를 잡고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싶었지만 긴 여정으로 울산의 바위는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었다. 그래서 조금 쉬어가기로 했고 이왕 쉬려면 풍광 좋은 곳에서 쉬기로 하였다. 그곳이 지금의 울산바위 자리로 웅장한 설악산과 아름다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조물주에게 1만 2천 봉을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조물주는 1만 2천 봉에 들지 못한 바위들은 모두 돌아가라고 명하였고, 이 이야기를 듣고 울산 바위는 매우 실망하였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에 자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조물주가 자신을 보면 높이 평가하여 중요한 자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물주를 찾아갔다. 조물주에게 예를 갖추고 나서 “조물주님! 저는 웅장하여 빨리 걸을 수 없어 다소 늦었습니다. 저를 보시고 금강산에 좋은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조물주는 울산의 바위를 살펴보더니 “형상은 금강산을 빛내고도 남음이 있으나 이미 금강산을 모두 이룬 후라 나도 어쩔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조물주는 “금강산은 너의 형상이 너무 커서 자리할 곳이 없으니, 다른 좋은 산으로 가서 멋스러움을 자랑하거라”하고 말하였다.

이 소리를 듣고 울산의 바위는 화도 나고 자존심이 상하여 “저도 자존심이 있소.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겠소.”라고 하였다.

하지만 울산의 바위는 고향의 바위들에게 이미 허풍을 떨어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에 금강산에 물러나오며 설악산을 생각하게 되었다. 웅장한 산과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굽어볼 수 있는 설악산에서 자신의 형상을 뽐내고 싶었다. 그래서 울산바위는 울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설악산에서 그 장엄함을 뽐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7) 울산바위와 동자승

설악산의 울산바위는 그 장엄함을 뽐내고 있다. 그래서 많은 풍류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았다. 그런데 울산의 원님이 설악산에 놀러 왔다가 울산바위의 유래를 듣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울산바위를 둘러보니 정말 장엄하고 멋스러웠다. 이에 울산 원님은 마음이 아팠다. 울산에 이런 웅장한 바위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그 모습이 이곳에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에 배가 아팠다. 그래서 설악산에 대한 시기심도 있고 해서 승려들을 골려주고 싶었다.

다음날 원님은 많은 생각을 한 후에 설악산 중들을 괴롭힐 생각에 신흥사로 찾아가 주지승을 찾았다. 조선조는 배불승유정책으로 불교가 유교보다 비교적 천시 받던 시기였다. 주지승은 원님의 행차에 예를 갖추었다. 그런데 원님이 다짜고짜 “나는 울산의 원님인데 울산의 장엄한 바위를 설악산에 가져다 놓아 풍경이 더욱 아름답고 이로 인해 설악산과 사찰을 찾는 사람도 많은데 왜 세금 한 푼 내지 않느냐! 못된 놈들 이구먼.”라고 하였다.

그때는 스님들이 힘이 없을 때라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다. 원님은 다시 “내 너희들이 몇 해가 지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 내가 오늘은 직접 세를 받으러 왔으니 당장 준비하도록 하여라.”하고 호통을 쳤다.

승려들은 당시 사회가 불교를 배척하는 시기라 원님에게 기도 펴지 못한 채 변명이나 말도 못하고 세를 바치기로 했고 그 다음 해부터 울산에서 세를 받아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절의 살림살이는 세금으로 어려워졌고 농사를 지어도 여기저기서 다 가져가니까 주지는 걱정이 말이 아니었다.

“울산에서 또 세를 받으러 올 텐데...” 하고 땅이 꺼져라 근심을 하니까 이것을 다 지켜본 동자승이 “스님, 무엇 때문에 요즈음 그렇게 근심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네가 알면 걱정만 될 것이다. 그러니 알려고 하지 마라.”

“스님, 그러시지 말고 제게 말을 해 주십시오. 혹 제가 문제를 해결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동자승이 자꾸 애원을 하니까 주지스님이 동자승이 생각했던 대로 울산바위의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스님,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걱정하십니까? 그 문제를 저에게 맡기시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세를 받으러 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지승은 기특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세를 받으러 오는 날 주지승과 스님들은 절을 피하고 동자승만 남겨 놓았다.

고을 원님이 보낸 사람들이 세를 받으러 절로 들이닥쳤다. 주지승을 찾자 동자승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맞이하였다.

“울산 원님이 시켜 울산바위 세를 받으러 왔으니 빨리 주지승을 불러오너라.”

“바위 세를 받으러 오셨다구요? 우리는 바위 세를 낼 수 없습니다.”

“뭐야 당장 주지를 불러오지 않으면 혼을 내야겠다.”

“말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사찰에서는 그동안 억울하게 세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고 올해부터는 세를 낼 수 없다고 원님께 전해주십시오.”

어린 동자승은 지혜롭게 이야기를 풀어 갔다. 그러자 원님이 보낸 사람들은 “설악산에서 울산바위가 풍광을 아름답게 하였으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무슨 말인가?”

“사실, 저 바위가 있어 우리 사찰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저 바위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거대한 바위가 사찰에 자리하고 있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자라지도 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부터는 그 바위를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저희가 세를 받아야겠습니다. 울산바위를 가지고 가시든지, 세금을 내시든지 하십시오.”

원님의 사람들은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다. 세금은 고사하고 도리어 세를 주어야 할 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날 다시 와서 이야기 하자며 돌아갔다. 다음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였다.

“너 말대로 울산바위를 가지고 갈 테니 옮겨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어야겠다. 네가 만약 가져가도록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울산바위를 우리에게 넘길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그대로 받아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동자승이 그들이 그렇게 나올 것을 알고 당당하게 망설임 없이 “요구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너희들이 울산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재로 새끼를 꼬아서 울산바위를 묶어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갖고 가겠다.”라고 하였다.

동자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로 새끼를 꼬는데 시간이 필요하니 체류하는 곳을 일러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울산에서 온 원님의 사람들은 숙소로 돌아가면서 아무리 도를 터득한 자라도 재로 새끼를 꼬 수 없다면 비아냥거렸다.

주지승이 절로 돌아와 몹시 궁금하여 동자승에게 물어보았다. 주지는 동자승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지혜는 뛰어나지만 어떻게 재로 새끼를 만들어 울산바위를 맬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동자승은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스님들과 고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새끼를 꼬기 시작하였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새끼를 꼬아서 동자승이 시키는 대로 울산바위로 옮기게 되었다. 동자승이 시키는 대로 울산바위를 새끼로 묶고 그 새끼에 불을 붙이니 울산바위는 재로 꼬아 만들 새끼로 묶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울산에서 온 자들에게 연락하였다. 울산바위에 와 보니 재로 만든 새끼로 울산바위가 묶어져 있었다. 동자승이 그들을 보고 “이제 재로 꼬 새끼로 울산바위를 묶어 놨으니 가지고 가시지요.”

이것을 보고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뒷걸음쳐 산을 내려가 울산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동자승의 지혜로 그 이후에 울산에서 사찰로 세금을 받으러 오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울산바위에 가면 바위를 묶었던 흔적이 있다고 한다.

8) 권금성의 유래

설악산의 절경 중에 권금성은 일품이다. 이러한 권금성은 재미있는 전설을 갖고 있다.

아주 오랜 옛날 한 마을에 권씨 성의 장사와 김씨 성의 장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쳐들어오자 산세가 험한 곳으로 피란하였다. 그곳의 지금의 권금성 자리이다. 적이 오자 방어할 길이 없어 서로 의논하였

다. 그래서 두 장사가 그곳에 성을 쌓기로 하였다.

“적병이 오기 전에 성을 쌓아야 할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에 성을 만들어야 화를 면할 것이오.”

하지만 성을 쌓는다는 것이 결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의논 끝에 돌을 날라 이곳에 쌓기로 하였다. 하지만 먼 거리에서 돌을 날라서 성을 쌓는다면 몇 달이 걸릴 것 같았다.

두 장사가 궁리 끝에 “이렇게 합시다. 돌을 날라서는 성을 쌓을 수 없으니 내가 강에 내려가 돌을 던질 테니 당신은 여기서 받아서 성을 쌓으시오, 그래야만 하룻밤에 성을 다 쌓을 수 있을 것이요.”

“좋습니다.”

그래서 권 장사가 강으로 내려가 돌을 주어서 던졌고 김 장사는 그 위에서 돌을 받아 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힘들면 서로 교대로 김 장사가 강으로 내려가 돌을 던지고 권 장사는 위에서 돌을 받아 성을 쌓았다.

이렇게 권 장사와 김 장사가 만든 성이라 권금성(權金城)이라고 부른다.

9) 귀면암과 마고선

귀면암은 설악산 천불동계곡의 비선대와 양폭포(陽瀑布) 사이에 있는 커다란 바위이다. 명칭은 바위 생김새가 무시무시한 귀신의 얼굴을 닮은 데서 유래한 것으로, 금강산의 귀면암에서 따왔다. 그러나 원래의 명칭은 천불동계곡의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걸문다지' 또는 '걸문당'이라 불렸다고 하며, 귀면암이라는 명칭은 나중에 붙여졌다고 한다. 설악동 소공원~와선대~비선대~귀면암~오련폭포~양폭대피소에 이르는 양폭코스는 6.5km 거리에 약 2시간 50분이 소요된다.

귀면암(鬼面岩)이라 하면, 귀신 귀, 낯 면, 바위 암자, 그 천불동 중 허리에 자리잡고 있는 데가 귀면암이다. 귀면암 밑에 와선대(臥仙臺)라고 하는 곳은 예전에 송림(松林)이 울창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래전 마고선(摩姑仙)이라는 선인이 많은 선인들과 같이 그곳에 와서 바둑과 거문고를 타며 산수의 경치와 아름다움을 누워서 감상하던 데라고 해서 그대로 누울 와, 신선 선, 집 대자, 와선대라고 불렸다고 한다.

와선대로부터 한 300m 올라가면 마고선인이 하늘로 등천했다고 해서 날 비(飛), 신선 선(仙), 집 대(臺)자를 쓴 비선대(飛仙臺)가 있다. 비선대는 예전에 시인의 발걸음이 끊어질 사이가 없어 많은 시인이 들어와서, 시도 짓고 이름도 새기고 나갔다고 한다. 어느 시인은 그곳에 와서 맑고 구슬같이 흐르는 물에다 발을 담그고, 반석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하늘을 찌를 듯한 장군봉을 바라보며 날개라도 있으면 하늘로 날아갈 기분이라고 했을 정도로 비선대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10) 도문의 유래

도문이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신라 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 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었다. 무상무아의 불법을 아뢰는 듯해서,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훌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다고 하여 도문(道問)이라고 했다고 한다.

3. 속초 8경¹⁰⁾

【제1경 영금정 등대전망대】

‘영금정 속초등대전망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다. 영금정은 돌로 된 산으로 파도가 쳐서 부딪치면 신묘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곡이 ‘거문고’ 소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일제강점기 속초항 개발을 위해 이곳 돌산을 깨서 축항을 조성함으로써 지금의 넓은 암반으로 변했다고 한다.

주변 ‘영금정 해맞이 정자’에서 보는 일출과 등대전망대에서 보는 시가지 경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금강산 자락을 조망할 수 있어 자연의 조화로움을 더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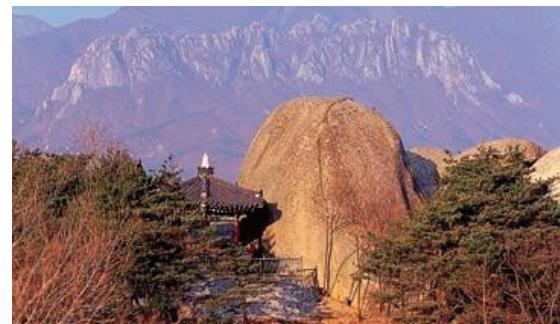


〈사진14〉 영금정 등대전망대

출처:『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제2경 영랑호 범바위】

영랑호는 둘레 7.7km 넓이 36만 평의 거대한 자연호수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신라(新羅) 화랑인 영랑(永郎)이 동료 술랑(述浪), 안상(安祥), 남석행(南石行)등과 금강산(金剛山) 수련후 무솔대회로 내려가던 길에 명경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 불게 물든 저녁노을 그리고 호수에 웅장하게 부각된 설악산 올산바위, 웅크리고 앉은 범의 형상을 한 범바위가 물속에 잠겨있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호수의 명칭을 영랑호라고 부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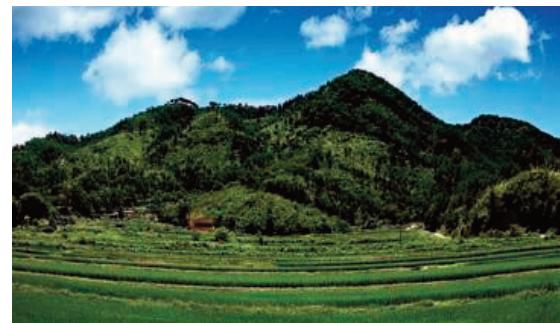


〈사진15〉 영랑호 범바위

출처:『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제3경 청대산】

청대산은 해발 230m로 주변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 푸르름으로 인해 청대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소야8경(所野八景)에는 우뚝 솟은 산이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병풍을 둘러친 것과 같다 하여 ‘청대화병(靑岱畫屏)’이라 하였다. 또한 청대산 정상은 속초 시가지와 동해 일출뿐만 아니라 대청봉, 달마봉, 올산바위 등 설악을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천연전망대이다.



〈사진16〉 청대산

출처:『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10) 8경: 중국에서 유래한 말로 어떤 지역에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덟 군데의 경치를 말한다.

‘속초8경’편은 ‘속초문화원·속초시,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속초문화원, 2013.’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4경 청초호】

과거에는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 속사호(束沙湖)라고도 하였던 청초호는 넓이 1.3km², 둘레가 약 5km의 술단지 모양을 하고 있는 큰 자연 석호로 속초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소야8경(所野八景)에 호수가 깨끗하고 맑아 마치 같고 닦은 거울처럼 빛난다고 하여 청호마경(靑湖磨鏡)이라 불렸다. 1999년 강원도 국제관광 박람회를 상징하는 73.4m 전망대에서 본 청초호 면 야경과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동해 일출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사진17〉 청초호

출처: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제5경 속초해수욕장 조도】

새들이 많이 찾는 섬이라 하여 붙여진 조도는 아름다운 백사장이 어우러져 주변 경관과 조화로움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소야8경(所野八景)에 '논산조양(論山朝陽)'이라 하여 이 일대 일출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뛰어난 경관과 연계하여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뿐만 아니라 해돋이 전망, 바다 낚시, 백사장 산책로가 각광 받고 있다.



〈사진18〉 조도

출처: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제6경 대포 외옹치】

설악산 기슭의 청정 바닷가에 자리 잡은 대포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발행된 지도에서 부산, 포항, 북호, 대포, 장전, 원산항 순서로 표시될 정도로 큰 포구(浦口)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광어, 넙치, 방어 등 고급 생선의 집산지로 유명하다. 특히 외옹치는 장독처럼 생긴 고개의 바깥에 있다고 하여 밧독재라 불리며 정상에서 본 시가지와 등대 및 조도(鳥島) 그리고 백사장에 밀려드는 파도의 경관이 아름답다.



〈사진19〉 대포 외옹치

출처: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제7경 내물치 설악해맞이공원】

조선시대(朝鮮時代)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함경도 덕원에서 거제도로 유배되어 동해안을 따라 이곳을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다. 때마침 폭우로 물이 불어 며칠 더 체류하다.

떠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라 하여 물치(勿淄)라 불렸다고 한다. 주변에 탁 트인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와 조각 공원 그리고 소나무 사이로 빛어지는 일출의 조화로움은 이곳만이 연출할 수 있는 비경(祕境)이다.



〈사진20〉 설악해맞이공원

출처:『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제8경 학무정】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發源)해서 흐르는 쌍천변(雙川邊) 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로 조선 고종(高宗) 9년 (1872)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학문 연구와 인재 육성에만 전념하신 매곡처사(梅谷處士) 오윤환(吳潤煥) 선생이 1934년에 건립하였다. 정자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흔히 육모정이라 부르며 남쪽에는 학무정(鶴舞亭) 북쪽에는 영모재(永慕齋), 북동쪽에는 인지당(仁智堂), 남서쪽에는 경의재(敬義齋)라고 쓰여 있다.

울창한 송림 속의 고즈넉함과 주변 전통 한옥(韓屋)마을이 풍취(風趣)를 더해 준다.



〈사진21〉 학무정

출처:『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II. 속초의 자리와 식물 이야기

김동현 · 신수은



1. 속초 자연환경

가. 위치와 면적

강원도 속초시는 동경 128도 25'~37', 북위 38도 07'~13'에 위치한 강원도 동북지역에 위치한 도시이다. 속초시의 주변지역으로는 남쪽으로 양양군, 북쪽으로는 고성군이 있으며, 서쪽으로 설악산맥을 경계로 인제군을 접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과는 약 248km, 강원도 도청소재지인 춘천과는 약 174.6km, 휴전선과는 고작 63km 거리에 위치한 동해안에서 고성군과 함께 최북부 항구 도시이며, 매년 수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 관광도시이다.¹¹⁾

속초는 동서 길이가 약 19km, 남북 길이가 9km로 면적으로는 105.25km²이다. 이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0.6%이며, 서울의 면적이 605.2km²이므로 서울의 약 1/6의 크기이나, 이 면적 중 53.2%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인간 거주면적이 좁은 속초의 특성으로 인해 설악산의 다양한 지형들이 보존되어 관찰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림2〉 속초 지역도, 출처 :『속초시사(상)』

나. 속초의 지형

속초의 지형에서 중심이 되는 두 가지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화강암지형,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1)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上)」, 속초문화원, 2006, 141쪽.

1) 속초의 설악산맥

속초를 지나는 설악산맥은 태백산맥의 일부로서 태백산맥 북부에 위치하여 있다.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은 해발 1,708m로 금강산(해발 1,638m)보다 70m가 더 높은 태백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대청봉의 동쪽으로는 화채봉, 금강굴, 울산바위, 달마봉이 있고, 산맥이 2개의 맥으로 갈라져, 하나는 주봉산, 청대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을 이루며 속초시의 중앙부를 지나 동해바다로 들어가게 되며, 다른 하나의 맥은 북쪽으로 뻗어 영금정을 이루고, 그 나머지가 해저로 들어가게 된다. 설악산의 지질과 지형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다.



〈사진22〉 설악산 대청봉
출처 :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사진23〉 설악산 중청봉
출처 :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2) 속초의 해안지형

해안이란 육지와 바다가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좁고 긴 지대를 의미한다. 동해안은 한반도의 등줄기인 태백산맥에 인접하여 평행하게 발달하였고, 오랜 기간에 걸쳐 완만한 융기가 지속되었다. 또한 후빙기해수면 상승으로 소하천들의 하곡이 침수되어 곶(串)과 만(灣)이 반복되는 톱니 형태의 해안선이 형성되었으나, 해수면 안정 이후 곶(串)은 파랑에 의해 침식되어 만(灣)은 하천 운반물질에 의해 퇴적되면서 현재와 같은 단순한 해안선이 형성되었다.¹²⁾ 수심이 깊고 단조로운 해안선의 특성상 조류의 작용은 거의 받지 않으며, 파랑과 연안류의 작용에 의한 해안지형이 주로 발달한다. 그중 속초에는 주로 암석해안과 사빈해안이 분포하며 장사동 갯바위, 영금정 부근 암석해안에서는 소규모의 해식애, 해식동, 파식대와 같은 해안 침식지형도 관찰이 가능하며, 사빈해안에서는 퇴적지형을 관찰할 수 있다.



〈사진24〉 장사동 갯바위 소규모 해식동과 해식애
출처 :『속초 도시변천사 I』

12)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58쪽.

가) 해빈(beach)¹³⁾

강원도의 동해안은 대체로 강릉을 경계로 화강편마암과 고생대층으로 이루어진 남부는 암석해안, 화강암이 주를 이루는 북부는 사빈(모래해안)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중 속초의 해안은 외옹치를 경계로 하여 북쪽 해안에서는 사빈이 발달되어 있고, 남쪽 해안은 암석해안으로 되어 있으며, 대포동 쌍천 하구 부근에는 쌍천에서 운반되어 온 비교적 큰 암괴와 자갈이 많은 해빈이 형성되어 있다. 이 중 동해안에 가장 많은 해빈의 형태는 사빈이며, 속초의 사빈 즉, 모래해안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모래는 주로 고성군 토성면을 흐르는 용천천과 양양군의 남대천에서 온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¹⁴⁾

나) 석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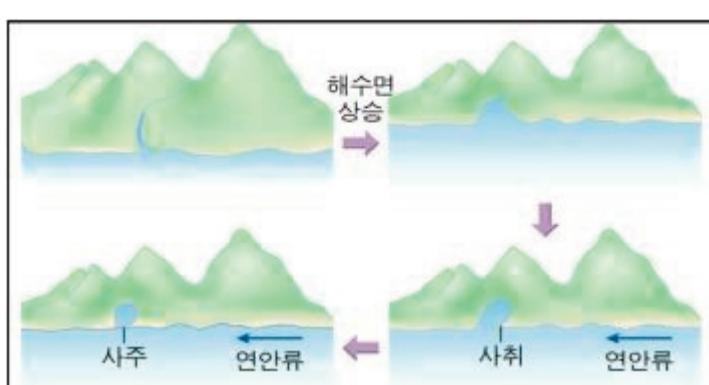
동해안에는 사빈과 함께 다양한 석호가 분포한다. 석호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에 접한 골짜기나 낮은 지대가 침수되어 만(灣)으로 변하고 만의 전면에 연안류에 의해 퇴적된 사취 또는 사주가 발달하여 형성된 지형이다. 석호로 유입되는 하천은 일반적으로 극히 작기 때문에 석호는 빨리 매립되지 않고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다.¹⁵⁾



〈그림3〉 영동지방 석호 분포도
출처 :『속초 도시변천사 I』



〈사진25〉 영랑호 하구를 막은 사주의 모습 (1970년대)
출처 :『속초 도시변천사 I』



〈그림4〉 석호의 형성 과정, 출처 :『속초 도시변천사 I』

13)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발달한 사질(모래), 역질(자갈) 및 생물기원 퇴적물이 쌓인 지형, 주로 모래해안(사빈), 암석해안(역빈)의 형태로 나타난다.

14)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59쪽

15) 권혁재, 『지형학』, 법문사, 2003, 342쪽.

동해안에는 강릉 경포호, 속초 청초호, 영랑호, 고성 화진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석호가 발달하였다. 석호는 주로 토사 운반량이 적은 작은 하천 하곡에 발달한다. 만약 토사 운반량이 많다면 하류에 토사 퇴적에 의한 충적지가 발달하여 처음부터 석호가 발달할 수 없다. 하지만 작은 하천이라도 꾸준히 토사를 운반하기 때문에 만약 인간의 개입이 없다면 동해안의 석호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매립되어 충적지로 변하게 된다.

속초의 대표적 석호로는 청초호와 영랑호가 있다. 동해안의 석호는 대부분 사주에 의해 바다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석호의 수위가 높아지면 좁은 수로를 통해 바다로 유출이 된다. 또한 파랑이 거세어지면 모래가 대량으로 운반되어 수로를 막고 파랑을 타고 바닷물이 대량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동해안의 석호는 염분 농도가 담수호에 비해 높고 해수보다는 낮은 특징을 보인다. 청초호의 경우에는 속초항을 중심으로 어업항, 상업항의 기능을 지녀 관리의 수월성을 위해 수로를 넓게 터놓아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비교적 높은 염도를 보이게 되었다.

영랑호와 청초호는 지속적인 관광 개발과 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매립, 준설, 호안 공사가 이루어져 자연 석호의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청초호는 1999년 국제관광 박람회 부지 확보를 위한 매립이 이루어져 호수 둘레가 약 7km에서 4.276km로 줄었으며, 면적 역시 약 1/3 이상 축소되었다. 영랑호의 경우 1981년 호수공원 개발되면서 영랑호 주변에 골프장, 광장, 음식점, 리조트, 별장형 콘도, 보트 선착장 등이 순차적으로 개장하였다. 하지만 장천천에서 유입되는 농약 및 비료 성분, 인근 주택 생활폐수의 유입 등으로 영랑호의 수질 오염이 가속화되었다. 또한 2019년 4월 4일 고성, 속초 산불로 인해 영랑호 탐방로 7.3km 중 86.3%에 해당하는 6.3km 구간의 갈대, 소나무, 갯벌들, 생태 관찰 데크 3개소 소실, 산책로 주변 별장형 콘도 27동이 전소 되었으나, 2년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영랑호의 경관을 해치고 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영랑호의 관광객 유입과 산불 피해를 입은 영랑호의 생태관광을 위해 40여 억원을 들여 생태탐방로인 ‘영랑호수윗길’을 2021년 11월에 개통하여 설악산과 영랑호, 동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였다.¹⁶⁾

동해안의 석호는 수심이 얕고, 해수의 영향을 받는 기수호¹⁷⁾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연중 비교적 안정된 수위로 인해 수변에는 습지가 발달할 수 있었으며, 습지에는 담수, 해양 생물 및 기수성 생물 등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물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석호는 역사적, 지리학적, 생태학적 가치가 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환경보전의식이 고취되면서 보호, 보전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6)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앞의 책, 26쪽. 속초시청 홈페이지 참조.

17) 바다와 연결되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는 호수

<표1> 청초호와 영랑호 현황

1) 청초호	2) 영랑호
◦ 주소(속초항 기준) : 강원 속초시 동명동	◦ 주소 : 강원 속초시 강사동
◦ 면적 : 879,863m ²	◦ 면적 : 1,024,000m ²
◦ 평균수심 : 4m	◦ 평균수심 : 4m
◦ 둘레(청초호 해안선) : 4.276km	◦ 둘레 : 7.7km
◦ 유입하천 : 청초천	◦ 유입하천 : 장천천
◦ 최고 만조위 : 39.0cm	◦ 염분 농도 : 3~5%
◦ 최저 간조위 : 0cm	◦ 담수량 : 4,000천m ³
◦ 염분 농도 : 약 32.5%(속초항 일대)	

출처 :『속초시사(상)』



<그림5> 청초호와 영랑호의 형성과정

출처 :『속초 도시변천사 I』

다. 속초의 기후

속초는 기본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고,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서계절풍이 탁월한 한랭 건조한 기후가 나타난다. 하지만 속초에는 설악산의 주봉인 대청봉을 비롯해 향로봉 등 해발 800m~1,700m의 산이 분포되어 있어, 높은 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방은 산악기후의 특성을 보이고, 설악산 급경사면 이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사계절에 걸쳐 단조롭지 않고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호우, 가뭄, 폭풍, 대설 등의 기상 악화 현상의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동해안과 접한 속초는 길고 좁은 단조로운 형태를 이루고 있어 해양성 기후에 가까운 기상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2> 속초(해양성 기후), 인제(대륙성 기후) 비교 (1991~2020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속초	12.5	16.6	8.7	1407.2
인제	10.4	16.7	5.0	1204.6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2021년)
(www.weather.go.kr)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속초의 기후 특성은 태백산맥 서쪽, 영서지방에 속한 대륙성기후 지역인 인제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속초는 인제와 비교하여 연평균기온이 온난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겨울철 속초의 온난한 기후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수량 역시 대륙성인 인제보다 연평균 200mm 이상 많아 동해안과 접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3> 강원도 지역별 30년 기후 평년값(1991~2020)

	속초	강릉	태백	철원	대관령	춘천	원주	인제	홍천
평균기온 (°C)	12.5	13.5	9.0	10.3	7.1	11.4	12.0	10.4	10.8
최고기온 (°C)	16.6	17.8	14.6	16.4	12.2	17.4	17.8	16.7	17.7
최저기온 (°C)	8.7	9.6	4.0	4.7	2.3	6.3	6.9	5.0	5.3
평균습도 (%)	65.0	59.5	66.1	69.9	73.3	70.5	66.6	68.2	67.0
강수량합 (mm)	1407.2	1444.9	1308.0	1354.4	1695.1	1341.5	1299.0	1204.6	1338.9
평균풍속 (m/s)	2.3	2.6	1.6	1.7	3.8	1.2	1.1	1.8	1.1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2021년)
(www.weather.go.kr)

1) 기온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속초의 평균 기온은 12.5°C 로 우리나라 평균 기온 $10^{\circ}\text{C} \sim 15^{\circ}\text{C}$ 인 것으로 보아 비교적으로 온난한 편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교차는 24.0°C , 최근월 8월의 평균 최고기온은 27.5°C 이고, 최근월 1월의 평균 최저기온은 -3.8°C 이다. 계절별로는 봄 11.5°C , 여름 22.4°C , 가을 14.7°C , 겨울 1.5°C 로 겨울에도 평균기온이 영상권으로 나타난다. 이는 속초가 사계절에 걸쳐 동해상에서 유입되는 해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대륙과 해양은 비열¹⁸⁾의 차이가 존재한다. 대륙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적은 양의 열로도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반면, 해양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는데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다. 즉, 대륙은 여름에 쉽게 가열되고, 겨울에 쉽게 냉각되며, 해양은 여름에 천천히 가열되고, 겨울에 천천히 냉각된다. 또한 동해는 서해보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해수면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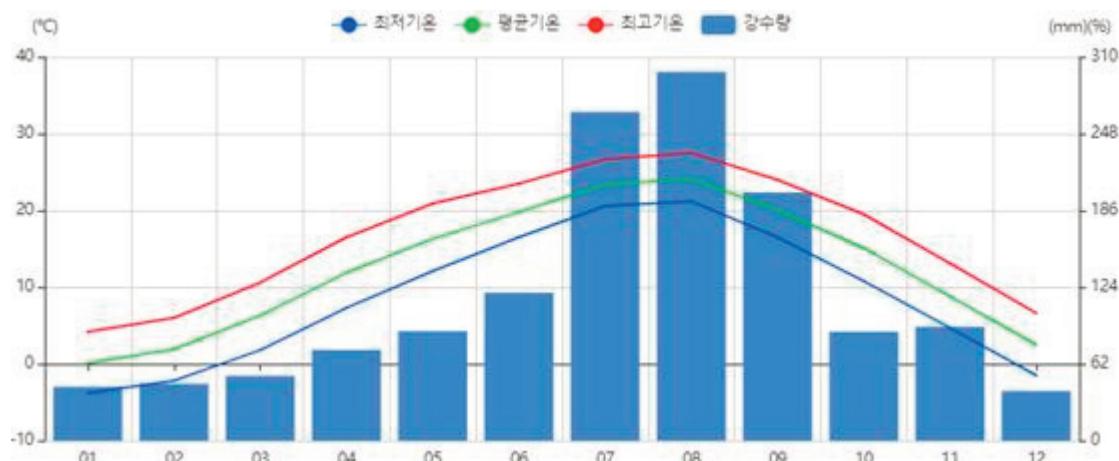
18)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C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서해에 비해 낮게 유지되고, 겨울에는 높게 유지된다. 따라서 동해안은 서해안에 비해 기온이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 속초의 기온은 여름철에 비교적 서늘하고, 겨울철에는 비교적 온난하며, 연교차가 작은 특징을 보이게 된다.

2) 강수

우리나라의 연중 지역별 강수량은 중부지역 1,200~1,500mm, 남부 1,000~1,800mm, 제주 1,500~1,900mm로 나타나고 있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속초 연강수량의 평균값은 1407.2mm로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강수량을 보인다. 계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연 강수량의 50~60%가 하계(6,7,8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속초 역시 하계 강수집중이 되어있으나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초가을 9월 강수량이 많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별 합계 강수량은 8월이 298.0mm로 가장 많으며, 12월이 40.1mm로 가장 적은 모습을 보인다. 계절별 강수량은 봄 214.1mm, 여름 683.1mm, 가을 380.5mm, 겨울 128.2mm로 여름철 강수량이 전체 강수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속초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다설지이다. 겨울 중에서도 특히 2월에 눈이 많이 오는데 그 이유는 태백산맥이 속초가 있는 영동 지방을 향해 치우쳐 급경사를 이루고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형 특성과 2월을 전후하여 만주 지방의 대륙성 고기압, 오헤츠크 고기압이 발달하는 기압배치 때문이다. 이러한 기압배치의 영향으로 고기압인 북동쪽에서 상대적 저기압인 남서쪽으로 부는 북동계절풍이 동해안을 지나면서 차고 습한 성질을 갖게 되고 이것이 태백산맥 급경사를 타고 상승하면서 대규모의 눈구름이 형성되어 폭설이 내리게 된다.¹⁹⁾



〈그림9〉 속초 기후 월별평년값 (기간 : 1991 ~ 2020년)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2021년)
(www.weather.go.kr)

19)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64쪽 참조.

3) 바람

속초는 바다, 산맥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다. 연평균 풍속은 2.3m/s이며, 월별 평균풍속은 1월이 2.6m/s로 가장 빠르고, 8월이 1.8m/s로 가장 느린다. 계절별 평균 풍속은 봄이 2.7m/s로 가장 빠르고, 여름이 1.9m/s로 가장 느린 모습을 보인다.

속초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바람으로는 봄철(4~5월) 남부지방에 있는 이동성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남서풍이 높은 태백산맥을 넘을 때 산악효과에 의해 부는 강풍인 양간지풍, 북동풍이 높은 산을 넘으면서 나타나는 훈현상 그리고 겨울철에 북서 계절풍에 영향으로 나타나는 폭풍 현상이 있다.

<표4> 해양성 기후 지역(속초, 강릉)과 대륙성 기후 지역(인제, 홍천)의 풍속 차이(1991~2020년)

지역	평균풍속(m/sec)
속초	2.3
강릉	2.6
인제	1.8
홍천	1.1

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2021년)
(www.weather.go.kr)

4) 양간지풍

가) 어원

양간지풍(襄杆之風)은 봄철 강원도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빠른 서풍으로 강원도 양양군과 강원도 고성군(간성) 사이에서 분다는 의미에서 양간지풍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다른 말로는 양양군에서 강릉시 사이의 바람이라는 의미로 양강지풍(襄江之風)이라고도 한다. ‘양간지풍’이라는 용어는 1633년 이식의 『수성지』에서 ‘통고지설’(通高之雪)(통천과 고성에 눈이 많이 내림)과 함께 등장한다. 양강지풍은 1751년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나) 형성과정 및 영향

봄철 중국에서 한반도로 온난한 이동성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남고북저의 기압배치가 형성된다.

이때 강원도를 향해 온난한 서풍이 불게 되고 이 온난한 공기가 태백산맥 상공에 모여 역전층²⁰⁾을 형성하게 된다. 이후 역전층을 통과하는 바람은 높은 태백산맥을 따라 상승하지만 상층에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태백산맥과 상층 따뜻한 공기에 의해 압축이 되면서 공기 흐름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영동지방으로 불게 된다. 이렇게 불어온 바람은 영동지방에 많은 소나무 숲의 송진과 솔방울을 만나 대형 산불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것이 봄철 ‘불을 몰고 온다’며 화풍이라고도 불리는 고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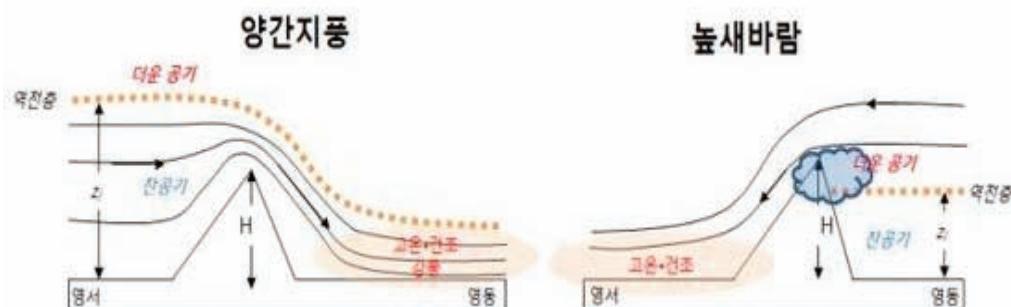
20) 대류권 내에서 일반적으로 기온은 고도가 높아지면서 감소한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층이 관측되는데 이러한 대기층을 역전층이라고 한다.

건조한 빠른 바람, 양간지풍이다. 양간지풍은 영동지방에 동풍이 불 때 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수증기의 응결에 의해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한 바람을 일으키는 훈현상 중 하나인 높새바람과는 구별된다. 양간지풍은 상층에 역전층이 강할수록, 타고 내려가는 경사면의 경사가 클수록, 공기가 냉각되는 야간일수록 풍속이 강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1996년, 2000년 고성 산불, 2004년 속초 청대산 산불,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2018년 고성 가진 산불,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20년 고성 도원리 산불 등 봄철 영동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양간지풍이 진화를 어렵게 하면서 대형 산불로 확산된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 산불 당시 4월 4일 고성, 속초지역에서 관측된 최대순간풍속은 미시령 초속 35.6m/s, 양양공항 초속 29.5m/s, 설악산 초속 28.7m/s, 속초 설악동 초속 25.9m/s 이다. 이는 초속 25m/s ~ 33m/s ‘강’ 수준 태풍의 풍속이며 지붕, 기왓장이 날아갈 수 있는 풍속이다. 이 산불로 인해 고성군과 속초시 합산 피해 면적 산림 250㏊(250만m²)와 주택 125채, 창고 6채, 비닐하우스 5개 동이 불에 타고, 1명 사망 1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²¹⁾



〈그림6〉 ‘양간지풍’의 형성 (출처 :『중앙일보』, 2019.04.05. 일자.)



〈그림7〉 양간지풍과 높새바람 모식도 (출처 :『한경일보』, 2012.02.24. 일자.)

21)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앞의 책, 2020, 29쪽.22) 장정룡 외, 『강원도민 이북도민 정착사』, 속초시립박물관, 2009, 76쪽.

2. 속초의 인문환경

가.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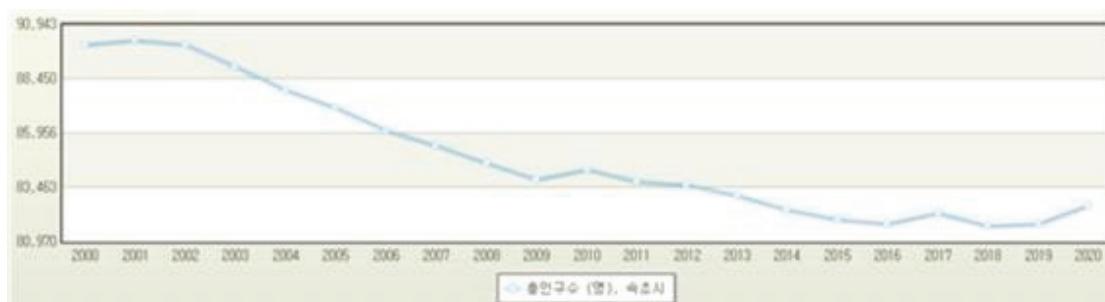
1) 취락의 입지

속초의 지형적 특성상 태백산지와 연계된 구릉지가 동해안 근처까지 다다르고, 영랑호, 청초호로 유입되는 하천 부근에 충적지가 분포한다. 또한 장사동 갯바위, 동명동 영금정, 대포동 외옹치에는 암석해안이 나타나고 암석해안들 사이에 등대해수욕장과 속초해수욕장, 두 개의 사빈이 분포한다. 이러한 속초의 지형적 특징은 속초 인구 분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업과 어업에 유리한 충적지나 해안에 취락이 먼저 발생한 후 태백산지 구릉지로 취락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취락이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왔다.²²⁾

2) 인구 변화

속초는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에서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1구에서 4구까지 분리되었으며, 1954년 6구로 분화되었다. 당시 속초항의 건설과 청호동의 성장으로 속초 1구에서 6구까지 인구수는 평균 5,000명 상이 되어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62년 속초읍의 총 인구는 50,703명으로 1963년 시로 승격하게 되면서 55,619명으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73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인구 성장의 요인으로는 농업과 어업의 부흥이었으나, 1973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다가 1980년 대 적극적 인구유입정책과 관광진흥정책을 통한 관광도시로의 변모로 점진적 증가추세를 보이며 1995년에는 80,000명을 넘었고, 2000년에 들어서 90,000명을 돌파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속초는 하루 평균 전입 35.8명, 전출 34.1명, 출생 1.1명, 사망 1.5명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의 유입 감소 및 도시로의 전출, 출생률 감소,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2019년 기준 노령화지수²³⁾는 156.75%로 전국 평균 119.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며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그림8〉 속초시 총 인구수 변화 (2000~2020)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2021년) (kostat.go.kr)

22) 장정룡 외, 『강원도민 이북도민 정착사』, 속초시립박물관, 2009, 76쪽.

23) 유소년(14세 이하) 100명당 노령인구(65세 이상)의 수



〈그림9〉 연도별 속초시 고령 인구 (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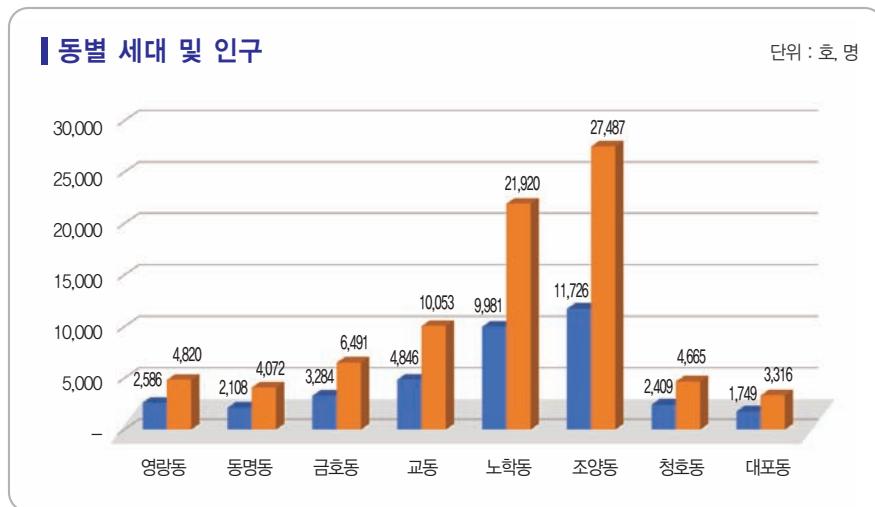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2021년)
(kostat.go.kr)

〈그림10〉 연도별 속초시 유소년 인구수 (2000~2019)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2021년)
(kostat.go.kr)

3) 인구 분포

1966년 동제를 실시할 당시 인구는 60,316명으로 그중 50% 이상인 30,892명이 동명동,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에 거주하였다. 이 지역들은 중앙시장 및 피란민촌이 형성되어 인구가 밀집되었던 반면 노학동과 조양동은 전통 농촌지역으로 낮은 인구밀도를 보였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인구밀집 지역이 쇠퇴하고 노학동과 조양동에 인구가 밀집되기 시작하였다. 노학동은 1980년 동우대학의 설립으로 외지 청년층 유입이 활발하였으며, 조양동은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활발하게 인구가 유입되었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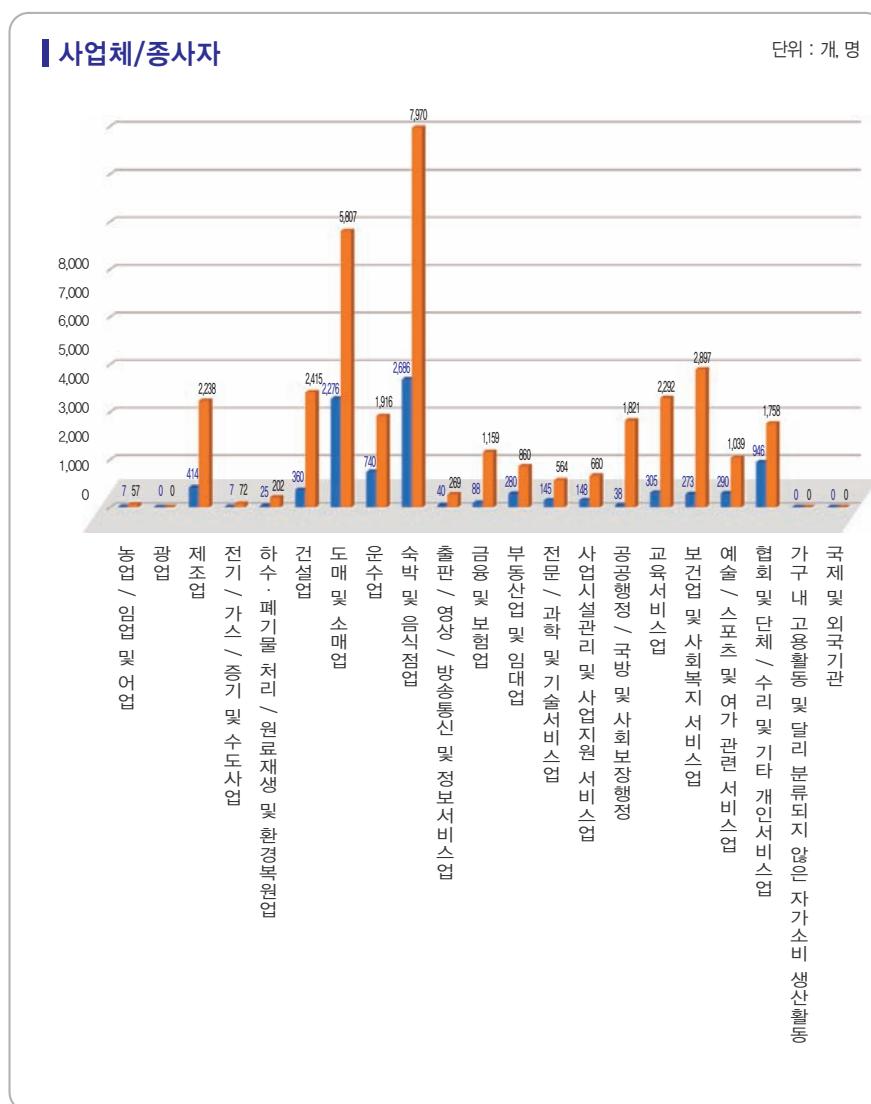
〈그림11〉 속초시 동별 세대수 및 인구 분포 (2019년 기준)

출처 : 2020년 속초 통계연보

24)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43쪽.

나. 산업

산업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산업은 자원을 채취하거나 생산하는 농업, 임업, 수산업을 포함하는 1차 산업, 자원을 가공하는 광업 및 제조업을 포함하는 2차 산업, 생산된 물자는 수송하고 판매하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 금융, 상업,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3차 산업으로 구분된다. 속초는 농업과 동해바다를 활용한 수산업, 수산물을 가공하는 수산물 제조업, 동해바다와 설악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업과 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 구조가 나타난다.



〈그림12〉 속초시 산업체 분포도 (2019년 기준)
출처 : 2020년 속초 통계연보

1) 농업

농업은 인류 탄생 이래 가장 먼저 시작된 원시산업으로 산업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산업이다. 속초의 산업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속초 농업의 역사는 신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최근 발굴된 속초 대포동 외옹치 유적에서 농사와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어 주변 하천을 이용한 농업이 행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농업이 이루어진 것은 청동기시대로 속초 조양동 유적에서 발굴된 민무늬토기 등의 토기류, 반달돌칼, 돌도끼, 숫돌조각 등의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⁵⁾ 이렇게 시작된 속초의 농업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농업기술의 개발, 발전, 보급되면서 1960년대 초까지 전체 산업 비중의 약 4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의 수산업 호황과 경공업 중심의 산업체계 변화, 새마을운동의 시작으로 급격한 변모를 보이게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관광산업의 급격히 발전하면서 비중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속초의 농경지는 많은 부분이 시가지, 도로포장, 공장, 관광리조트, 골프장 등이 들어서면서 전체 경지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및 도시화의 격차 증가로 인한 청년층의 이촌향도가 나타나면서 농업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증가하였지만 휴경지가 증가하고 경지이용률이 축소되었다.²⁶⁾

현재 속초에서 생산되는 식량 작물로는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외 옥수수, 콩, 팥, 고구마, 감자 등이 소량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과실류 생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속초의 농업은 시 외곽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물은 중앙시장과 마트를 통하여 소비되고 있지만, 속초의 생산물로는 속초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인근 지역의 생산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입지로 인해 여러 지역의 농산품이 유입되고 있다.²⁷⁾

2018년 기준 농가호수는 1,468호로 전체의 3.88%이며, 농가인구는 2730명으로 전체의 3.34%를 이루고 있다.

2) 수산업

속초의 수산업은 주로 어업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으며, 점차 양식업, 수산가공업, 수산물 유통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속초의 수산업은 일제강점기에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수탈정책 중 하나로 어업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그로 인해 속초를 비롯한 동해안 전반의 어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속초의 주된 어업은 정어리 어업이었으며, 1931년에 정어리 기름을 짜는 공장이 생길 정도로 정어리가 항구에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명태, 청어, 대구, 고등어 어업 등이었다. 이 시기에는 일본식 어구인 수조망, 안간망이 특히 많이 보급되어 사용되었다.

1910년대 말부터 어선의 동력화로 인해 근대적 대규모 어업이 발달하였으며, 1920년대 일제는 근대적 어항 건설에 주력하여 1921년 대포항, 1929년 외옹치항에 방파제를 갖춘 접안 부두를 건설하였고, 1937년 속초항 1기 공사를 완공하여 내항과 외항을 갖춘 현재 속초항의 모습의 틀을 구축하였다. 이후 전란을 겪고 피란민들이 청호동과 속초항을 기점으로 정착하면서 속초의 수산업을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25)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726쪽.

26)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앞의 책, 1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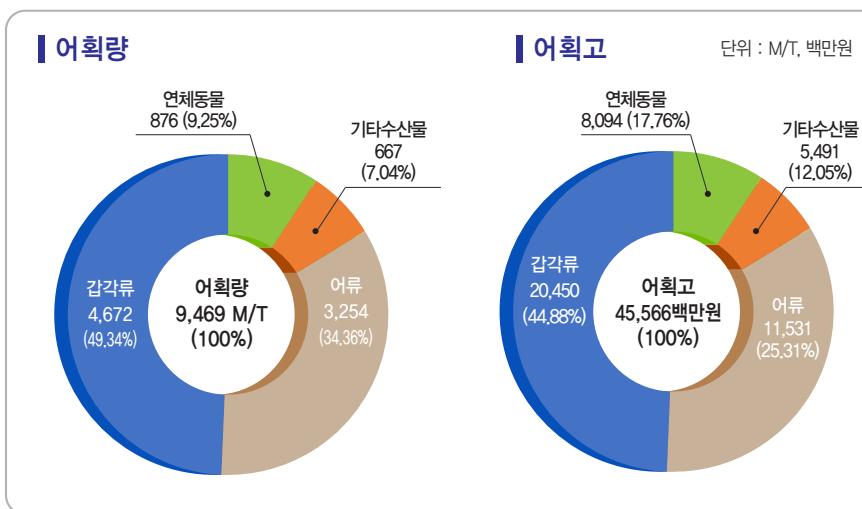
27) 손병섭 외,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속초문화원, 2000, 103쪽.

1955년 속초의 어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23.9%로 농업 인구 20.7%를 능가하였다. 이후 1990년대 초 속초항 제2방파제, 1998년 장사항 방파제, 2008년 설악항 방파제가 준공되면서 속초는 6개 항구를 갖춘 수산도시로 성장하게 된다.²⁸⁾ 하지만 관광업의 급속한 발달로 현재 속초를 비롯한 대부분의 어촌은 관광어촌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의 대포항, 동명항, 속초항 등 속초의 대표 항구들은 어항으로의 역할보다는 관광항의 모습을 보이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따라 속초의 어가와 어가 인구 역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5〉 속초의 어가 및 어가 인구 변화 (1995~2015)

연별	어 가 Fishery households					어 가 인구 Fishery population			어업종사자 Fishery workers			Unit : households, person	
	전업 Full time	겸 업 Part time			호당인구 Person per household	남 Male	여 Female	호당 종사자 Worker per household	남 Male	여 Female			
		소계	제1종 class I	제2종 class II									
1995	1,494	513	981	776	205	5,378	...	2,805	2,573	1,558	...	1,515	43
2000	933	614	319	202	117	3,145	3.37	1,660	1,485	998	...	940	58
2005	670	386	284	207	77	2,154	3.21	1,115	1,039	718	...	661	57
2010	479	219	260	175	85	1,362	2.84	726	636	579	0.32	481	98
2015	277	139	138	63	75	738	2.66	391	347	328	1.18	278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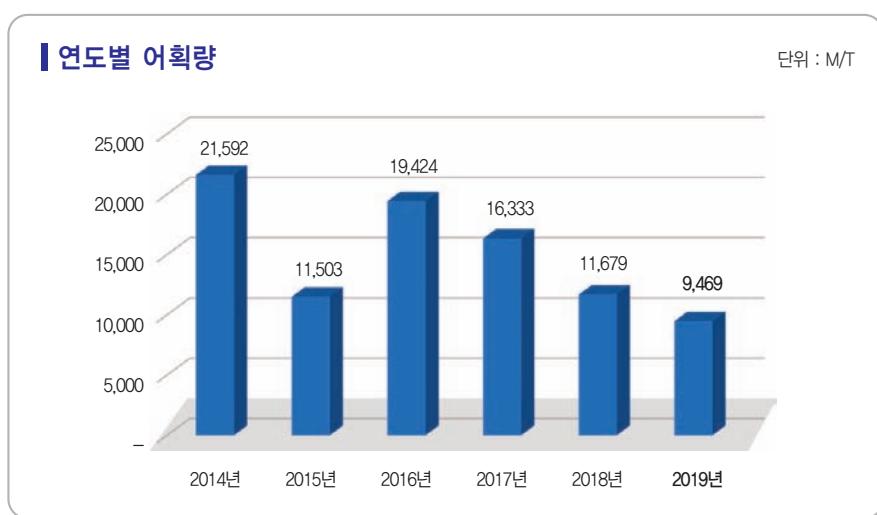
출처 : 2020년 속초 통계연보



〈그림13〉 속초시 수산물 현황 (2019년 기준)

출처 : 2020년 속초 통계연보

28) 임경선 외, 『속초 수산업의 발전 역사』, 속초문화원, 2017, 100쪽.



〈그림13〉 속초시 수산물 현황 (2019년 기준)

출처 : 2020년 속초 통계연보

3) 관광업

농업과 어업이 주종산업으로 발전해오던 속초는 수산업의 퇴조, 국민들의 소득증가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추구 목적으로 관광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동해바다, 설악산 국립공원, 영랑호, 청초호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속초지역이 관광도시로 성장을하게 되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속초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17,111,424명으로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고성-속초 산불로 인해 관광객 수가 급감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국민들이 국내 관광지로 시선을 돌리면서 방문 관광객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속초가 관광도시로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65년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지정, 1970년 설악산 국립공원의 지정, 1980년대 명성콘도(현 한화리조트)를 시작으로 입주한 대형 콘도 건설 붐, 1986년 척산온천 휴양촌 개장,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의 배후도시로서 교통망 정비, 1998년 교동 먹거리 단지 영업 개시, 1999년 속초 관광 박람회 개최, 2006년부터 진행된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2006년 미시령 터널 완공, 2016년 동해고속도로 속초 연장 개통 및 2002년에 개항한 양양공항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공항으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및 타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어 관광객이 급증하였고, 2021년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 착공이 확정되면서 속초는 관광, 숙박 시설의 대규모 확충에 나서고 있다.²⁹⁾

계절별로는 여름 동해바다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수가 가장 많으며, 두 번째로는 가을 설악산의 단풍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가 많고, 다음으로는 겨울 동해바다와 설악산의 설경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으며, 가장 적은 관광객이 찾는 계절은 봄철이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는 속초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아바이마을, 설악산 국립공원이며, 주로 속초 남부권의 방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³⁰⁾

29)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앞의 책, 167쪽.

30) 속초시청 홈페이지(www.sokcho.go.kr)

〈표6〉 속초 주요 관광지 방문객수 (2014~2019)

단위 : 명			Unit : person			
연 별 월 별	집계 관광지수 No. of tourist attractions	방문객수 Visitors				
		유료 관광지 Paid tourist attractions		무료 관광지 Free tourist attractions		
		내국인 Domestic	외국인 Foreign			
2014	39	5,628,594	5,306,230	322,363	8,002,309	
2015	43	5,760,710	5,564,015	196,695	7,917,399	
2016	49	6,079,309	5,893,336	185,973	8,039,263	
2017	52	9,333,649	9,218,150	115,499	8,257,530	
2018	52	10,134,095	10,020,730	113,365	6,977,329	
2019	21	2,752,048	2,744,787	7,261	2,226,270	

출처 : 2020년 속초 통계연보

3. 속초의 식생³¹⁾

가. 식생

식피(植皮)·식의(植衣)라고도 한다. 때로는 식물군락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옳지 않다. 식물군락은 거의 동일 환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종의 조성상 독립성을 유지하는 식물집단이라고 정의를 하는 데 비하여, 식생은 어떤 지역 내에 존재하는 막연한 식물 집단을 가리키며 종의 조성이나 크기의 기준에는 관계없다.

식생 분포를 보는 데는 제4기 이후의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식물상의 지리적 이동을 보는 시각과 식물의 생태적 분포를 보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식생 변천은 인공이 배제된 한반도 자연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과거 1만 7000년 동안의 식생 변천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퇴적물의 화분분석으로 알 수 있다. 1만 7000~1만 5000년 전 최종빙기의 한랭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동해안 속초시 영랑호(永郎湖)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곳에는 가문비나무속·이깔나무속·오엽송·전나무속과 같은 침엽수가 주로 나타났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당시 영랑호 주변에는 한대침엽수림이 발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만 5000~1만년 전에 초본류와 양치식물이 높은 비율로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플라이스토세말까지 한랭한 기후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1만~7500년 전에는 참나무속이 높은 비율로 출현하는 것이 특색인데, 영랑호 주변에는 소나무림과 함께 참나무림이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벼드나무속·가래나무속·서나무속·개암나무속 등의 온대성 낙엽광엽수림이 현저한 발달을 보이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후가 급속도로 온난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서 해안의 경우와 비교하여 온대낙엽광엽수림인 참나무속이 우점종인 참나무림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7,500~4,500년 전에는 소나무속과 참나무속이 주 수종이었으나 소나무속의 증가가 특색이다. 북동 해안의 영랑호나 북서 해안의 군자리, 남동 해안의 방어진(方魚津)에 있어서도 소나무속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우점종이 되는 경관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가래나무속·서나무속·개암나무속 등의 온대낙엽광엽수가 증가한다는 사실로 기후가 온난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군자리의 화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편의 함량이 높은 점토층이 확인되었고, 소나무속의 화분은 이 탄편층의 상부에서부터 급증하였다. 또한, 화진포(花津浦)·송지호(松池湖) 등의 여러 조사지에서도 다량의 탄편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기후 변화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낙엽광엽수가 다양해지는 것으로 보아 기후가 더욱 온난해지고 건조해졌으며 낙엽의 건조가 쉽게 일어나게 강수량은 여름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리하여 산불이 일어나 소나무의 2차림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500~1,500년 전에는 소나무속과 참나무속이 주 수종이었으나 소나무속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시 참나무속이 우점종이 되고 피나무속과 같은 온대낙엽광엽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한대성수목인 자작나무속과 전나무속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31) '속초의 식생' 편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속초시사(上)』,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 기후가 다소 한랭화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4,500년 전경에는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한랭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서는 원시림대를 볼 수 있고, 국지적으로는 낭림산맥·금강산·설악산·오대산·소백산·덕유산·지리산·한라산 등에서 일부 원시림을 볼 수 있다. 기타 국유림의 일부, 사찰림, 분묘 주위의 삼림 등이 남아 있고, 생육이 부진하여 왜소한 작은 송림이 아름다운 경관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 조건하에서 삼림식물군락의 분포는 세계적 차원으로 보면 한반도 대부분이 낙엽 광엽 수림대[夏綠林帶]에 속하는 온대림이다. 남해안과 제주도·울릉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는 상록광엽수림대[照葉樹林帶]로 난대에 속한다. 낙엽광엽수림이 후빙기에 와서 침엽수림과 경쟁하여 유럽·동아시아·미국 동북부 등지의 광범한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은 화분분석을 통한 고생태학의 연구로 밝혀졌다. 실제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한대림은 수직적으로 볼 때 아고산대나 고산대에 귀속시킨다. 한국의 고산대에는 눈잣나무가 있는데, 이 눈잣나무는 일본의 지시마(千島)나 사할린의 해안에도 생육하고 있으므로 수평적 분포로는 고위도일수록 고산대라는 말이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나라의 현 삼림 식생분포는 일반적으로 난대림·온대림·한대림으로 구분된다. 온대림은 북쪽의 북위 43°02'에서 남쪽의 북위 35°까지로 한반도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 지대의 삼림식생은 낙엽광엽수림이다. 수목의 종류로는 참나무·갈참나무·신갈나무·굴참나무·졸참나무·상수리나무·서나무·개서어나무·당단풍나무·물푸레나무·갯버들·피나무·때죽나무 등 많은 온대성 삼림수목이 생육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소나무림과 참나무림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온대 지역이라도 인간의 간섭에 의해 잣나무와 전나무의 조림이 있다. 한대림은 북한의 동북부와 고산지에 분포하며 상록침엽수가 우세하다.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상록침엽수와 낙엽광엽수의 대표적인 것은 분비나무·가문비나무·측백나무·눈잣나무·눈향나무·종비나무·구상나무·주목·이깔나무·좁고채목·물자작나무·들쭉나무 등이다. 특산종으로는 함경도의 개느삼군락이 있고, 함경북도 명천군에는 고려조릿대가 생육하고 있어 대나무류의 북한계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눈측백나무는 설악산과 태백산에도 분포하고 있다. 들쭉나무는 북부 지방에 흔한 종으로 설악산과 한라산의 산정에 생육하고 있다.

초지에는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에서 경작되지 않는 초본식물이 우점하고 있는 야초지와 경작되는 초본식물이 우점하고 있는 목초지가 있다. 우리나라 야초지나 목초지의 식생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토양 조건에서 방치되면 관목림을 거쳐 삼림으로 천이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초지의 대부분은 삼림으로 천이하는 중간 단계이다. 다만 방목·채초·화입·잡관목류의 제거 등 인위적인 교란이 끊임없이 가해져서 초지 식생이 안정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식물상의 변화는 우리나라와 같이 주어진 환경에서 동식물을 포함하여 살아 있는 모든 유기체의 양, 즉 생물량이 극대에 달할 때까지 나타난다. 생물량이 극대에 도달하는 동안에 거치는 일련의 순서를 가리키는 천이의 최종결과는 극상식생(極相植生)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규모의 초지는 해변이나 강변에서 볼 수 있다. 해변에서는 바다에서 육지를 향하여 통통마디·갯나문재·갯질경이초지가 차례로 염도에 따라 내염성군락을 나타내고, 습지에서는 물가에서 내륙을 향하여 부들·물방동사니·돗자릿골·갈대초지가 지하수위에 따라 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에는 지하 수위에 따라 갈대·우방산동사니·갯쇠보리·띠초지 등이 분포하며, 특히 갈대초지는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1) 속초의 해안식물

가) 해안환경

해안은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모래해안과 바닷가의 절벽아래에 좁게 발달하며 많은 양의 자갈 또는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암석해안으로 구분되며, 모래해안의 뒤쪽으로 해안사구가 발달되어 있다. 속초시의 해안은 태백산맥이 해안 가까이 까지 뻗어있기 때문에 암석해안이 발달되어 있고, 주변에는 육지에서 풍화 침식으로 생성되는 모래를 운반 공급하는 양양 남대천, 쌍천, 용촌천 등의 하천이 있어 모래해안이 부분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모래해안과 암석해안 모두 보수성이 약하고 유기물의 함량이 부족하며,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또 모래가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등 식물이 자라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모래해안에서 파도의 영향을 늘 받고 있는 곳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으며, 그 바깥쪽의 불안정 지역에는 땅속줄기가 발달한 식물, 기는줄기가 발달한 식물, 뿌리가 깊은 방석형 식물 등이 잘 자라며, 암석해안의 바위 틈에는 방석형 식물과 잎이 두터운 식물, 털이 있는 식물 등이 잘 자란다.

나) 속초의 해안식물

해안은 모래해안과 암석해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래해안과 암석해안 모두 보수성이 부족하여 쉽게 건조되며,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고 염분을 많이 함유한 토양 환경을 갖는다. 또한 염분을 함유한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모래가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등 식물이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식물을 염생식물이라 하는데 우리는 보통 해안식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 식물은 부족한 수분과 무기염류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잎과 줄기에 비해 뿌리가 매우 발달하는 특징이 있어 뿌리의 양이 잎과 줄기의 양보다 2배 이상 많으며, 보수력이 보다 나은 내륙으로 갈수록 그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식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잎이 두텁고 좁으며, 털이 많은 특징이 있다.

속초의 해안식물은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섬현삼은 지금까지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Ⅱ급 야생식물로서 처음으로 육지(속초)에서 분포가 밝혀진 해안식물이다.

2) 속초의 습원식물

석호(潟湖)인 영랑호와 청초호, 그리고 관개용 저수지와 웅덩이 등에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쌍천과 청초천 등의 소하천과 농수로 주변에는 하천식물이 자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초는 수생식물을 총칭하는 말이며, 수생식물은 생활 장소나 생활형에 따라 정수식물, 부엽식물, 침수식물 및 부유식물로 대별할 수 있다. 속초시의 호수, 하천, 관개용 수로 등의 습지에 자라는 수생식물을 생활형에 따라 나누어 보면 침수식물에 실말, 줄말과 물질경이, 부엽식물에는 가래, 얘기가래, 수련, 개연꽃, 부생식물에는 개구리밥, 좀개구리밥 등이 있으며, 정수식물에 갈대, 줄, 부들, 얘기부들, 물옥잠, 물달개비, 골풀, 송이고랭이 등이 있으며, 기타 습지식물로는 알방동사니, 사마귀풀, 비녀골풀, 부처꽃 등이 있다.

III. 역사와 전통 이야기

김정환



1. 속초의 역사

가. 연혁³²⁾

‘속초(束草)’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조선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의 ‘속초포(束草浦)’이다.³³⁾ 하지만 이 책에는 당시의 자세한 상황은 알만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이후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보면 속초는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한 동리였다. 면리제(面里制)가 실시되었던 조선시대의 속초 지역은 양양도호부 소천면과 도문면 2개의 면지역으로 소천면에 4개리(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 도문면에 6개리(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 신흥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이던 1914년 지방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을 통합하여 도천면(道川面)으로 개칭하고 11개 동리(속초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대포리, 외옹치리, 내물치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장항리)로 이루었으며, 이중 대포리에 면사무소를 두었다.

1937년 면사무소를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이전하여 속초면(束草面)이라 개칭하고,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누고 노리에서 도리원,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 리(里)가 되었다.

해방과 더불어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면으로 강등되었다가, 6·25전쟁으로 2차례의 탈환을 거듭하면서 1951년 8월 18일부터 수복지구로 군정이 실시됨에 따라 다시 읍으로 되었다.

1954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되고, 1963년 속초시(束草市)로 승격되었다. 1963년 시(市) 승격 후 1966년에 동제(洞制)가 실시되어 12개 동으로 개편되었다. 1973년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와 사진리가 편입, 장사동으로 개칭 13개동이 되었고, 1983년 양양군 강현면 상복리 일부가 설악동으로 편입되어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13개동이 되었다.³⁴⁾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 영랑동으로, 중앙동과 금호동이 금호동으로, 청학동과 교동 일부가 교동으로, 교동 일부와 노학동이 노학동으로, 대포동·도문동·설악동이 대포동으로 통합되어 법정동은 13개동, 행정동은 8개동으로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선사시대(先史時代)

1) 구석기시대

32) 속초시, 『속초시지』, 1991, 53~65쪽 참조.

33) “속초포(束草浦)가 양양(襄陽)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단(單) 10명이다.”

34) 속초시, 『속초시정 30년사(上)』, 1994, 277쪽.

【속초 청호동유적】³⁵⁾

속초시의 역사는 뗀석기를 사용하고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던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구석기시대의 유적으로 확인된 곳은 현대산업개발(주)의 사업부지에서 발굴조사 되었다. 정밀발굴조사 결과, 구석기시대 유물층에서는 후기구석기시대 문화를 대표하는 밀개, 굵개, 쐐기, 화살촉 등의 도구와 함께 다양한 종돌날 몸돌 및 좀돌날, 돌날 등이 출토되었고, 철기(원삼국)~삼국시대 유구(주거지 15기, 수혈 4기, 小수혈군)에서는 경질무문 토기와 타날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철기류, 석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구석기시대 유물층은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약 80~90m 떨어진 곳으로, 6m내외의 해발고도를 보이는 나지막한 사구(沙丘)가 형성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유적이 만들어진 시기는 후기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약 15,000~10,000년 전의 집터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속초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유적이다.

출토 유물로는 석기 제작 도구인 모루 및 망치와 더불어 석기제작 부산물인 몸돌, 격지, 부스러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소량이기는 하지만 후기구석기시대를 대표할만한 밀개, 굵개, 쐐기(Pièce esquilée), 화살촉 등 약 6,0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완성 혹은 미완성 상태의 격지 석기들 중에는 흑(오)수정을 몸체로 하여 뗀면을 조정하여 빼어낸 좀돌날 석기와 한쪽 측면을 날카롭게 빼어낸 굵개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1점에 불과하나 유문암재로 제작한 르발루아(Levallois)식 찌르개 1점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사진26〉
구석기시대 유물 출토모습



〈사진27〉
망치 및 모루



〈사진28〉
찌르개 및 잔손질된 석기

출처: 「속초 청호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 신석기 시대

【속초 대포동 외옹치 유적】³⁶⁾

유적이 유일하다. 이 유적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으로 알려진 양양 오산리 유적(B.C.6,000~3,000)과 연대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대포동 외옹치리에서 동쪽 해안가로 뻗어 있는 나지막한 언덕 정상부(해발 46m)에 위치하고 있으며, 낮은 지대에는 작은 물줄기와 비교적 넓은 농경지 및 백사장이 발달해 있다. 아쉽게도 주거지, 야외노지 등은 풍화 등으로 인해 없어져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개소의 유물포함층 내부에서는 이음 낚시바

35) 예백문화재연구원, 「속초 청호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38~61쪽 참조.

36) 강원문화재연구소, 「속초 대포동 외옹치유적 발굴보고서」, 2015, 160~214쪽 참조.

늘, 작살 등의 어로생활 도구와 토기, 돌도끼, 굽개 등의 식량가공 도구 등과 수정(水晶)으로 만든 석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로 볼 때 이곳은 주변 하천을 이용한 농경과 해안을 무대로 다양하고 활발한 어로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문암리와 오산리의 중간 기착지 정도의 일시적인 주거생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속초 대포동 외옹치유적 발굴보고서」

3) 청동기시대

【속초 조양동 유적】³⁷⁾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에 만주 지역에서부터 청동기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청동기시대에는 생산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전문적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유 재산과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속초는 청동기 문화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다.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92년 발굴된 조양동 유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청동기시대 유적지이다. 조양동 일대는 낮은 구릉과 평야 지대로서 청초호와 접하고 있어 선사인들이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조양동 지역에서 가장 동남쪽에 위치한 낮은 야산에서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 구멍무늬토기, 숫돌조각이 지표 채집되었고 일부 탐색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의 유구로 추정되는 문화층이 노출되어 1992년 5월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양동 구릉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2기와 집자리 7기가 드러났다. 고인돌 발굴 조사 결과 완전한 형태를 갖춘 부채꼴주머니도끼 1점과 화살촉 9점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서 발굴된 부채꼴 주머니도끼는 남한에서 발굴조사된 최초의 것으로 속초를 대표하는 유물로 평가받을 만하다.

집자리 7기의 평면 형태는 직사각형과 네모 반듯한 모양에 가까우며, 대부분이 풍화된 암반층을 파고 설치되었다. 집자리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민무늬토기, 반달돌칼, 구멍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화살촉, 그물추, 돌도끼, 가락바퀴, 숫돌조각 등이다. 특히, 굽다리잔은 청동기시대 초기의 것으로 함경도 동북지방과 연결되는 토기로 강원 영동지방의 청동기시대 민무늬 토기 문화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37)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上), 273~274쪽 참조.

또한 집자리의 저장구덩이, 화덕자리 등은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이행되는 전환기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청동기시대 집자리 구조와 가옥 발달사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집자리로 평가된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 되고 있다.



〈사진33〉
부채꼴 주머니도끼



〈사진34〉
굽다리잔 토기

출처:『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속초 장사동 유적】³⁸⁾

속초 장사동 유적은 주민이 청동기시대 유물 간돌검(마제석검) 1점과 돌화살촉 6점을 신고하면서,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게 한 유적이다.

속초 장사동 유적은 영랑호의 북쪽인 속초고등학교 앞의 야산에 있다. 이곳에서 발견된 간돌검은 장석반암(長石斑岩)으로 만든 홈자루 석검(칼자루에 가로 홈이 있는 돌칼)으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돌화살촉은 버들잎 모양이 5점이고 슴베³⁹⁾달린 화살촉이 1점이다.



〈사진35〉 장사동 유적 위치도



〈사진36〉 유물 현황

출처:『속초도시변천사 I』

4) 철기 시대

【속초 청호동 유적】⁴⁰⁾

철기시대 유적은 최근 청호동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를 위한 발굴에서 확인된

38)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앞의 책, 51~5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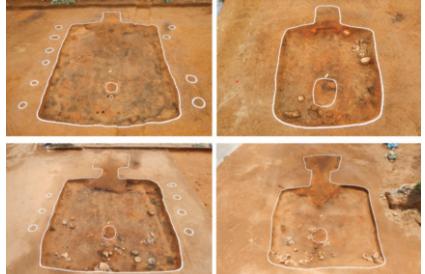
39) 칼, 팽이, 호미 따위의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뾰족하고 긴 부분.

40) 예맥문화재연구원, 앞의 논문, 38~61쪽 참조.

이 유적은 4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속초에서 발굴된 유일한 철기시대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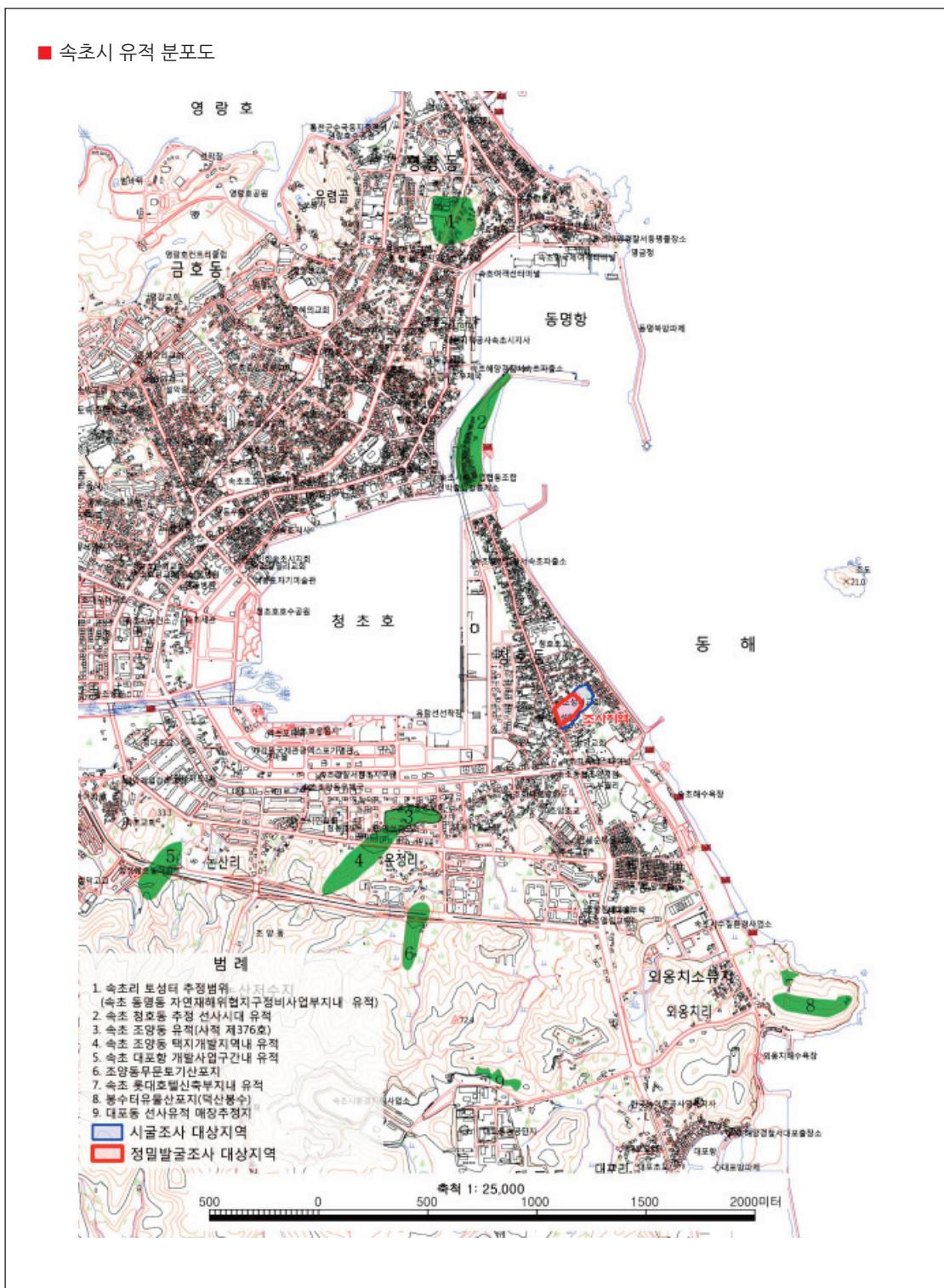
철기(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는 북고남저의 지형에 따라 일정 간격(최소 5m 이상)을 두고 이격되어 총 15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평면 형태에 따라 凸자형과 呂자형으로 분류된다. 凸자형 주거지는 2기이고, 呂자형 주거지는 13기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가 대부분이다. 토기류는 독, 작은 독, 항아리, 뚜껑 등으로 옹류가 가장 많다. 철기류는 대도(大刀)가 출토되었고, 석기류는 검파두식, 석제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청호동유적 조사를 통하여 속초지역에서도 철기시대 생활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영동지역 철기시대 생활유적 입지의 다양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큰 의의가 있다.

	
〈사진37〉 정밀발굴조사 후 전경(동→서)	〈사진38〉 출토된 토기
	
〈사진39〉 출토유물(대도)	〈사진40〉 주거지

출처:「속초 청호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보충자료】



〈그림14〉 속초시 유적 분포도⁴¹⁾

41) 예매무한재여구월 알의 노무 10쪽

다. 삼국시대(三國時代)⁴²⁾

1) 삼국시대의 속초

속초는 1963년 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지역이 양양(襄陽)에 속해 있었다. 당시 이곳은 삼국 중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양양의 고구려 때 이름은 익현현(翼峴縣), 다른 말로 이문현(伊文縣)이었다. 그 후 속초·양양 지역은 신라의 북상에 따라 고구려에서 신라에 속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신라 진흥왕 12년(551)에 신라가 고구려의 10군을 취한다는 기사와 진흥왕 17년(556)에 함경남도 안변(安邊)에 비렬홀주(比列忽州)를 설치한다는 기사로 미루어 진흥왕 때라고 추정된다.

신라 때 양양은 익현(翼縣)에서 익령(翼嶺)으로 고쳐졌고, 9주(九州) 중 명주(溟州)에 속하였다. 명주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강릉(江陵)이었고, 명주의 영역은 오늘날의 영동지역과 거의 일치했다.

2) 화랑도(花郎徒)의 순례

속초의 영랑호는 신라 화랑(花郎) 영랑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영랑호에 관련된 전설에 의하면 사선(四仙-영랑·술랑·안상·남석행)이 금강산 금란(金蘭)에서 수련하고 무술대회에 나가기 위하여 고성 삼일포에서 3일 동안 쉬다가 금성으로 향하던 중 영랑호에 오게 되었다. 그중 영랑(永郎)이 호수의 맑고 투명한 물빛과 풍취에 도취되어 무술대회에 나가는 것조차 잊고 머물렀다하여 이름하였다.

화랑도들은 국토순례를 중시했다. 그 중 금강산과 관동 8경이 있는 강원도 동해안 지방은 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 4 신라본기 진흥왕 37년 기록과 권 47 열전 김흠운(金歎運) 전에 신라시대 화랑도들의 수행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산수를 찾아다니며 유람하였는데, 먼 곳이라도 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
(遊娛山水 無遠不至)”

라고 기록되어 있다. 속초의 영랑호를 비롯하여 통천 총석정의 사선봉, 고성 삼일포, 간성 선유담, 강릉의 경포대, 한송정 등에는 화랑들의 고사가 전해오고 있다.

라. 고려시대(高麗時代)⁴³⁾

1) 고려시대의 속초

고려는 신라 말에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 연합하여 건설한 국가였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지방관이

42)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上), 276~277쪽 참조.

43)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上), 280~283쪽 참조.

파견되지 못하고 지방은 호족들의 자치에 맡겨졌다.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성종 2년(983) 전국 주요지점에 12목(牧)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현종 9년(1018)에 전국을 도(道)와 계(界)로 나누면서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고려 중기 이후에는 전국을 경기, 5도(五道)와 양계(兩界)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5도는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등의 일반 행정구역으로 안찰사를 파견하여 행정을 살폈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북계와 동계를 두어 병마사를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속초를 비롯한 영동지방은 동계에 속하여 동북면병마사 관할 하에 있었다. 그러나 국경선의 북상에 따라 동계는 함경도 지역으로 북상하고, 영동지역은 명주도 혹은 강릉도로 불려지다가, 강릉도가 우왕 14년(1388)에 영서의 교주도와 합쳐져 교주강릉도가 되어 오늘날 강원도의 토대가 되었다.

『고려사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의하면, 오늘날의 양양인 익령(翼嶺)은 현령이 파견된 지역이었다.

고려시대의 양양은 대체로 전기에는 익령현, 후기에는 양주(襄州)였다.

2) 이민족의 침입

고려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는데 우리 지역은 이를 방어하여 국토를 지켰다. 발해(渤海) 멸망 이후 만주 지방의 여진족은 현종 2년(1011)부터 숙종 2년(1097)까지 약 80여 년 동안 동해안에 출몰하여 노략질한 것이 20여 회나 기록되어 있다. 고종 8년(1221)에는 지역을 침입한 거란병을 방어하여 양주방어사(襄州防禦使)로 현령의 지위가 승격되기도 하였다.

거란, 여진 등이 속초지역에 침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최근 ‘속초리성지(東草里城地)’ 발굴에서 성의 축조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천경삼년(天慶三年, 1113년)’ 명 기와가 발견되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성의 축조는 12세기~13세기 경으로 추측되며, 치성(雉城) 내지는 옹성(甕城)의 용도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성은 고려 전기의 동여진 해적과 같은 소규모 적을 방어하는 역할과 고려 말~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종 18년(1231)에는 몽골이 고려에 침입해 왔다. 고종 40년(1253) 예구(也古)에 의한 제5차 침입 때에는 강원도에도 침입하였다. 이때 몽고군에 의하여 양주성이 함락되자 몽고군의 침략에 항복하였다. 이에 양주는 고종 41년(1254)에 양주현, 고종 44년(1257)에 덕령현(德寧縣)으로 강등되기도 하였다. 고려 승 익장이 쓴 「낙산사기」에 의하면 "계축년(癸丑年, 1253) 원나라 군사가 우리 강토에 마구 들어왔는데, 이 고을에서는 설악산에다 성을 쌓아서 수어(守禦)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설악산에 쌓았다는 성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말하고 있는 권금성(權金城)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마. 조선시대(朝鮮時代)⁴⁴⁾

44)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上), 284~293쪽 참조.

강원도(江原道)라는 이름은 근세조선 이후에 쓰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비슷한 행정구역도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강원도는 처음에 고려 말에 형성된 교주강릉도의 이름을 바꾼 데서 출발하였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강원도라는 이름은 태조 3년(1393)에 생긴 것이며, 1395년에 충청도에 속해 있던 원주를 강원도에 복귀시켜 감영 소재지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태조 때부터 세종 때까지 구역 정비와 행정조직을 완성하였는데, 이때의 것이 조선 말기(1895)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 그동안의 변화가 있었다면 원양도·강양도·강춘도·원춘도 등 명칭 변경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조선시대가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반역, 강상죄 등이 명칭 변화에 반영된 것이다.

1) 행정구역(行政區域)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우리 지역은 태조 이성계의 외향이라는 명분으로 태조 6년(1397)에 부(府)로 승격되었다.⁴⁵⁾ 조선시대의 속초는 강원도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으로 되어 있었다. 양양도호부는 태종 16년(1416)부터의 이름이다. 양양도호부는 도문면, 소천면을 포함하여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 신흥사가 속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태종 16년(1416)에 처음으로 양양(襄陽)으로 불렸는데, 그 이후 약간의 변동이 있다가 아관파천 이후 다시 강원도 양양군이 되었다. 양양군에 속해있던 속초 지역의 인구는 영조 때 성책된 『여지도서(輿地圖書)』⁴⁶⁾에는 1,265명, 1871년에 발행된 『관동읍지(關東邑誌)』에는 1,29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2) 통치체제의 정비

조선 초기의 군사 조직은 중앙에는 5위(五衛)를 두었고, 지방에는 영진군(營鎮軍) 등이 주둔하고 있어 수령의 지휘를 받았다. 세조 때 진관체제(鎮管體制)라는 지역단위의 방위 체제가 전국적으로 완성되었는데, 이는 여러 고을을 하나의 진관으로 묶어 그중 한 사람의 수령이 지휘하게 한 것이었다.

강원도는 원주, 강릉, 회양 중심의 진관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양양(襄陽)은 강릉대도호부사가 지휘하는 강릉진관에 편성되어 있었다. 수군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삼척(三陟)에 전진기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대장인 삼척포첨사가 동해안 각지의 수군을 지휘하게 되어 있었다.

『만기요람』과 『증보문헌비고』에는 육군경비전투기지 격인 관방과 해군경비기지 격인 해방이 기록되어 있다. 양양의 관방으로는 양양읍성, 권금성, 토왕성, 대포진성(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다.

옛날 교통제도를 대표하는 것은 역마제(驛馬制)이다. 역은 주요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마다 말과 역정(役丁)을 갖추어 공문을 전달하고, 공무 여행자에게 말을 제공하고 숙식을 알선하였다. 그밖에 진상하는 관물의 수송까지도 담당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전국에 500여 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었다. 양양에는 상운, 연창,

45) 태조 이성계의 5대조인 이양무의 부인이 삼척이씨이다.

46) 1757년(영조 33)~1765년(영조 41)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읍지이다.

인구, 강선, 오색 등에 역이 있었다.

봉수는 변경의 긴급한 사태를 중앙에 알리는 군사상의 이유로 설치되었다. 대략 수십 리의 일정한 거리마다 서로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봉화대를 마련해 놓고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 신호하였다. 속초 대포동 외옹치에도 덕산봉수(德山烽燧)⁴⁷⁾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남으로는 수산, 초진산, 북으로는 죽왕면 삼포리의 죽도, 거진 반암리의 정양산과 연결되어 있었다.

3) 조선 후기 경제와 사회

가) 농업

전통적으로 농업 사회였던 조선 후기의 속초지역은 주로 농업과 양잠을 업으로 했는데 농업에서도 중심이 된 것은 벼농사였다. 고종 8년(1871)에 성책된 『관동읍지』를 보면 도문면에는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대포리, 옹진리, 신흥사가 있었고, 소천면에는 논산리, 부월리, 속초리, 속진리가 있었다.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논산리, 부월리 등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지역이며, 대포리, 옹진리, 속초리, 속진리 등은 반농반어적인 생활을 하는 곳이다. 속초지역은 대체로 해안과 하천을 따라 좁은 평야 지대가 발달하여 있어 한·수전 농업이 행해졌다.

나) 수산업

조선시대의 수산물은 어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어류 가운데에는 주로 산란을 목적으로 하천을 거슬러 돌아오는 어류 또는 하구에 내유(來游)하는 어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어업은 내수면어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육지와 근접된 연안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현산지』를 비롯한 기록에 소금에 대한 내용도 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소금은 정치·경제·사회·산업·군사 등 여러 부문에 중요한 가치가 있었다. 조선 초기 소금생산지는 모든 해안에 걸쳐 분포되었다. 그 중 강원도는 320여 개소의 염분(鹽盆)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에서 양양부는 40개소의 염분이 있었다.

염전은 양양부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속초지방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정 7년(1918)에 발간된 『최신조선지리』에 속진(東津)에서 소금을 생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특산물(特產物)

대동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각 군현별로 공납이라고 하여 특산물을 상납하고 있었다. 공납은 고려처럼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하여 중앙 관청에서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면, 각 군현은 각 가호에게 다시 할당하여 거두었다. 특산물은 전곡과는 달리 수확량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농촌 경제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47) 현재 롯데리조트가 있는 자리가 덕산(德山)이며, 이곳에 봉수가 있었다.

<표7> 조선시대 양양지방의 토산물

서명	농산물	수산물	기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모시, 잣, 오미자, 지치(紫草), 인삼, 지황, 복령, 벌꿀, 송이버섯	김, 미역, 전복, 홍합, 문어, 대구어, 송어, 연어, 도루묵, 황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쌍족어(雙足魚), 해삼	죽전(대나무화살), 철(鐵), 백화사(산무애밤)
여지도서(1765)	모시, 잣, 인삼, 오미자, 지치, 지황, 복령, 벌꿀, 송이버섯	김(海衣), 올미역, 전복, 홍합, 문어, 대구어, 송어, 연어, 도루묵, 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쌍족어, 해삼	철, 대살, 백화사
현산지(미상)	차, 닥나무, 대나무, 순채, 배, 밤, 감, 살구, 복숭아, 은행, 복숭아, 호도, 목과, 개암나무, 대추, 연밥, 잣, 오미자, 오가피, 지초, 흥화(잇꽃), 서여, 송이버섯, 만이, 석이	게, 홍합, 해삼, 생전복, 대구어, 방어, 가어, 광어, 문어, 사어, 홍어, 송어, 연어, 황어, 도루묵, 농어, 잉어, 미역, 소금	호랑이가죽, 곰가죽, 노루가죽, 단비가죽, 쪽제비꼬리털, 돼지털, 너구리가죽, 산돼지가죽, 해달, 수달, 해양, 해돈

출처:『속초시사』

라) 인구

조선 후기 속초의 인구는 1871년 편찬된 『관동읍지』를 보면 도문면에 628명, 소천면에 668명으로 총 1,296명이었다. 호당 인구수는 속초리가 4.5명으로 가장 많고, 그 외 마을은 2.8~4.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속초의 전통사회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 중 대부분은 강가나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하여 거주하였다.

<표8> 관동읍지(1871)에 기록된 마을별 인구 현황

면	리	편호	인구수(명)		소계	호당인구(명)	계
			남	여			
도문면	상도문리	61	95	145	240	3.9	628
	하도문리	24	33	58	91	3.8	
	물치리	21	25	41	66	3.1	
	대포리	23	24	42	66	2.9	
	옹진리	35	53	74	127	3.6	
	신흥사	21	38		38		
소천면	논산리	38	51	54	105	2.8	668
	부월리	52	72	105	177	3.4	
	속초리	47	99	111	210	4.5	
	속진리	51	70	106	176	3.5	

출처:『관동읍지』

4) 개화기의 정세

19세기 중엽 조선의 전통사회는 커다란 변화와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안으로는 세도 정치의 폐단이 극에 달하여 무능한 양반 지배 체제에 저항하는 민중 세력이 성장하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일본과 서양 열강의 침략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격동의 역사 속에서 속초는 지리적 여건과 교통 사정상 근대 사상의 유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늦게 추진되었다. 따라서 보수적 유림들이 향교를 중심으로 사회 주도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동학농민운동 시기에 영월, 정선 지방의 동학군이 영동으로 몰려왔을 때 이 지역에서는 반동학군을 조직하여 진압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 강원도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려는 반동학군의 대표적인 인물은 중도문리의 이국범과 이석범이었다. 이렇게 반동학군이 조직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은 속초 사회에 거주한 유학자들의 영향력이었다.

하지만 조용하던 양양과 속초도 1906년 남궁 억이 양양군 도호부에 부임하여 현산학교(峴山學校)를 설립하고 신교육을 실시하면서 개화 자강 운동이 소수의 청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신사상 교육은 양양감리교회를 비롯한 교회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양양지역에서 시작된 신교육은 이후 전개된 3·1운동과 사회운동을 주도할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바.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1) 일제강점기의 속초⁴⁸⁾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지 통치의 중추 기관으로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입법·사법·행정 및 군대 통수권 등을 가진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일제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하여 1914년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군·도(島)를 두었으며 전국의 군을 220개로 정리하였다.

이때 양양군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이 도천면(道川面)으로 합쳐져 오늘날 속초시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1925년에 발간된 도천면『면세일반(面勢一班)』에 의하면 면장은 1907년부터 설치되었고, 1913년에는 소천·도문 연합면으로 되었다가, 1914년 도천면이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1925년경 도천면은 장항리(獐項里), 상도문리(上道門里), 중도문리(中道門里), 하도문리(下道門里), 내물치리(內勿淄里), 대포리(大浦里), 외옹치리(外甕峙里), 부월리(扶月里), 논산리(論山里), 노리(蘆里), 속초리(束草里)의 11개 리로 되어 있었다. 당시 대포리는 도천면사무소의 소재지였고, 근대화에 따라 외지와의 교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한 상당히 큰 항구였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후기에 와서 속초항이 항구로 개발되면서 청초호 북쪽에 인접한 속초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37년 7월 1일에는 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

48) 김정환 외, 『속초의 근·현대사』, 속초문화원, 2004, 47~68쪽 참조.

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다.⁴⁹⁾ 이때부터 속초는 면 이름이자 동리 이름이 된 것이다. 이어서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은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속초리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나뉘지며, 노리(蘆里)에서 도리원리(桃李源里), 이목리(梨木里), 척산리(尺山里)가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다.

2) 3·1운동⁵⁰⁾

속초가 속한 양양군의 3·1운동은 그 규모나 내용에서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한 것이었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대중운동이었다.

만세운동 거사 계획은 보수적인 유학계와 양양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유학계의 지도자는 이석범(李錫範)⁵¹⁾이었는데, 그는 현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리 출신으로 당시 중도문리에 쌍천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를 양성한 인물로 반동학군 활동, 의관, 면장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로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많았다는 점이 3·1운동의 지휘자가 될 수 있었다. 또 한편의 계획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개성호수돈 여학교를 다니던 조영순 전도사의 딸 조화벽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온 후 양양 감리교회 청년지도자 김필선, 김주호 등에게 인계하여 태극기 제작 등 준비를 하던 중 유림세력과 연결되어 추진되었다.

이석범의 지휘와 또 다른 양양 감리교회의 계획이 합쳐져서 양양에서는 4월 4일 장날을 이용하여 양양 면·서면·손양면민등 4천 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손양면 가평리의 함홍기는 경찰서장에게 항의하다가 피살되고, 경찰의 야간 사격으로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과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가 피살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4월 5일 강현면의 군중은 물치 장터에 모였고, 도천면의 군중은 경찰 주재소가 있는 대포리에 모였다. 오전에는 도천면민이 대포에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 오후에는 강현면사무소와 물치 장터에 모여 시위하던 강현면민이 대포리에 와서 합세하였다. 오후에는 대포리에 있던 일본순사주재소로 몰려가 경찰의 굴복을 받아냈다. 이에 일제는 경찰 이외의 일본인을 새벽부터 배를 띠어 바다에 머물게 하는 등 두려움에 떨었다. 당시 강원도장관의 4월 6일자 전신보고에, 물치 장터에 모인 군중은 5백 명인데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했고, 오후 대포리에 모였을 때를 8백 명이라 했는데 1천 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다.

4월 6일에는 도천면과 강현면 주민들이 양양읍에 합류하면서 만세운동은 절정을 이루었다. 이에 놀란 일본은 1개 소대 규모의 군대를 양양으로 파병하였다.

이와 같이 만세운동은 4일 양양시장과 군청, 경찰서 앞에서 시작된 이래 9일까지 연 6일간에 걸쳐 6개면 82동리의 주민 6,000명이 참가하여 전개한 전(全)군민적인 만세운동으로, 전국에서도 그 예가 드물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장기간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만세운동으로 12명의 사망자와 70여명 이상의 부상자

49) 제1기 속초항 개발공사는 1932년 11월에 시작해 1937년 3월에 완료되었다. 항구가 만들어지면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1937년에는 면사무소도 지금의 영랑동으로 이전하였다. 면사무소는 영랑동 작은 도서관 자리에 있었다.

50) 도천면 3·1만세 운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9년 속초문화원에서 일선 학교에 배포한 『일제에 항거한 속초 대포만세운동』 책자 참고 바랍니다.

51) 이석범은 양양의 가장 대표적인 문중 중의 하나인 임천리 함평 이씨로서 도천면 중도문리에 살며, 쌍천학교(雙川學校)를 설립하였다. 대중적인 지지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후에 신간회 양양지회의 회장으로 피선된 인물이다.

가 낮으며 3일 오후 임천리에서 추진되던 준비 작업의 일부가 발각되어 22명이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하였다.



〈사진41〉 이석범



〈사진42〉 조화벽

출처:『일제에 항거한 속초 대포만세운동』

3) 신간회(新幹會) 운동

신간회는 1927년 2월 경성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대하여 창립한 국내의 대표적인 민족 유일당 운동 단체이다. 신간회의 설립 목적은 일제 식민지 통치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는 것으로서 양양 지역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될 정도로 군민의 기대가 컸다.

설립 후 신간회는 미신타파, 조흔금지, 단연과 아편흡연추방, 매춘과 풍기문제 등 계몽운동의 전개와 생활·생존권 수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반일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8월 29일을 국치일로 정하고, 이날의 치욕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밥을 먹지 않고 죽을 먹기로 하는 등의 형태로 반일 감정을 확연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에 일제는 신간회를 해산시키기 위해 방해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이의 대표적인 사건이 '대포공진소년회 매욕 사건'⁵²⁾인데, 결국 이 문제는 양양 청년동맹과 신간회 양양지회가 관여하게 되어 양양지역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대립은 결국 일제의 방해를 심화시켰고, 신간회의 활동도 비공식적인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나 1927년 말~1928년 초에 드러난 신간회의 조직상 결함으로 인해 창립 1주년이 되는 시기에도 구체적 활동 방침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자연히 신간회의 활동 역시 이전의 사회단체들이 전개하여 왔던 것과 비슷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929년에 이르면 조직 자체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신간회는 중앙에서부터 합법적 단체 성격의 한계와 여러 차례 주요 간부가 검거되면서 존립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양양에서는 1930. 4. 25일 제4회 정기대회를 열고 신간회의 활성화를 꾀하려고 하나 1931년 해소될 때까지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농민조합으로 넘기게 된다.

52) 대포공립 보통학교의 교장이 공진소년회에 입회한 학생 24명에게 탈퇴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

사. 현대(現代)⁵³⁾

1) 8·15 광복(解放)과 북한 정권의 수립

가) 공산 치하(共產治下)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36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학정 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하였으므로, 해방된 민족을 조직하고 이끌만한 조직체가 없었다. 따라서 여러 정당과 사회단체가 난립되어 혼란을 가져왔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으로 혼란을 빚어내고 있을 때, 미국·소련 양국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하였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속초지역은 소련군의 점령 하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 점령한 미·소 양군은 점령 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다.

나) 북한 정권의 수립

(1)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속초는 당시 38선 이북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북한 지역이었다. 남한에 진주한 미국은 군정청을 설치하고 남한 지역을 직접 통치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각지에 세워진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이양하여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련군정의 대행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 북조선 임시위원회는 사실상 정부 구실을 하였으며, 공산주의 방식으로 사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른바 ‘민주개혁’을 수행하였다.

북한 당국의 대표적인 개혁은 토지 개혁, 산업 국유화 조치, 노동법과 남녀평등권법의 시행이었다. 그중에서도 토지개혁은 ‘민주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해방 직전 북한의 토지는 일본인과 소수의 지주들이 주로 차지하였고, 전체 농가의 3/4에 이르는 농민들이 소작농이거나 자작·소작 겸업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 개혁을 단행하여 넓은 대중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였다.

1946년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행된 토지개혁은 북한 지역을 경제·사회적으로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들은 거주지에서 군 경계를 벗어난 40km밖의 다른 지방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토지를 몰수당하고 강제 이주되어 생활터전을 빼앗긴 지주들 대부분은 월남하였다.

1946년 8월 10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산업국유화법을 제정하여 일본인 소유의 산업 시설과 주요 산업 시설의 90%에 해당하는 1,032개를 국유화하였다. 속초에는 한국인 소유의 산업체는 없고 일본인이 운영하던 해산물 가공공장과 일본인 소유의 군수공장인 쇠고기 통조림 공장이 있었는데 이들도 당연히 국유화되었다.

53)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上), 324~342쪽 참조.

(2)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1947년 2월에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 위원회’를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개편한 뒤 1947년 12월 1일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내용은 당시 유통되고 있던 조선은행권을 인민화폐로 교환하는 것으로 1인당 700만원씩만 교환하여 주고 나머지는 추후에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은행에 예치시켰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조선은행권이 남한에서는 계속 통용되고 있었으므로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좌익단체 공작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7년 조직된 북조선 인민 위원회는 1948년 2월 조선 인민군을 창설하고, 이어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1948년 남한에서 5·10 총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곧바로 최고 인민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곧이어 9월 9일 내각이 구성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이로써 남과 북에는 각각 별도의 정부가 수립됨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 통일 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채 이후 남북의 이념 대립을 가져왔다.

(3) 반공 투쟁(反共鬪爭)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동안,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 하에 공산정권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토지개혁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속초에서는 반공인사들을 중심으로 반공 투쟁을 위한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장활동을 벌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 90인 사건,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 전투이다.

속초 애국 동지회 사건은 속초에 거주하던 고재덕(高在德)을 중심으로 10명이 반공 애국단체를 조직하여,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자는 각오로 지하조직망을 만들어 저항한 사건이다.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 전투는 호림 유격대가 인민군과 핏골에서 전투를 벌인 사건이다. 호림 유격대는 8·15 해방 이후부터 주문진을 중심으로 동해안 38선 접경에서 대북 첩보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1949년 육군 정보국 소속 하에 육군 호림 부대로 통합되어 120명의 특수 요원으로 편성되었다. 호림 부대는 1949년 6월 29일 38선을 돌파하여 멸공유격전을 개시하였다. 그중 호림 5대대가 대청봉에서 화재봉까지를 본거지로 삼고 양양 지구의 반공청년들과 연락을 취하며 유격전을 전개하였는데, 마을의 공산주의자에게 발각되어 출동한 인민군과 상복리 핏골(현재의 설악동 C지구)에서 교전을 하여 북한 보안대원 6명과 열성당원 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많은 청년대원들이 전사하였다.

2) 6·25 전쟁과 속초시(束草市)의 승격

가)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속초는 동해안의 국군 전선 돌파를 명령받은 인민군 제5사단의 진격코스가 되었고, 전쟁 초기에는 접전지역이 아닌 인민군 후방 보급 루트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병력과 장비가 모자라는 국군은 부득이 낙동강을 저항선으로 하는 지점까지 후퇴하였다. 그러나 유엔이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여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였다. 국군은 압록강까지 진

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잡는 듯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나) 속초의 수복(收復)

속초의 수복은 한국군 제1군단(제3사단과 수도사단으로 구성)의 진격에 의해 이루어졌다. 38선 진격이 결의되자 제1군단장은 9월 30일을 기하여 '제3사단은 현재까지의 추격을 계속하여 양양을 점령·확보하는 동시에, 수도사단의 38선 이북 진출을 용이하게 하라.'는 작전 명령 제109호를 발하였다. 제3사단은 1950년 10월 1일 양양 38선에서 북한 공산군 제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북한으로 진격하였다. 국군은 민족의 분단선을 무너뜨린 이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되었고, 동해와 태백산맥은 조국 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첫 진격의 장으로 전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11월 중공군이 개입하여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다. 1950년 12월과 이듬해 1월에 걸쳐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다시 넘어 삼척(三陟) 선까지 후퇴하였다. 전열을 가다듬은 국군과 유엔군은 3월에 38선을 다시 탈환하였고, 6월에는 양양군지역을 재수복하였다.

다) 북한 주민의 월남

국토의 분단은 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왔다. 1946년부터 1·4후퇴까지의 기간 중 북한지역에서 자유를 찾아 남하한 월남민은 약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월남민은 크게는 46년에서 48년에 이르는 미군정 기간 중에 나온 사람과 6·25 전쟁 중 1·4후퇴 때 남하한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 6·25 전쟁 전에는 주로 토지몰수와 공산주의자들의 압박을 피해 넘어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6·25 전쟁 중의 피란민은 한 발자국이라도 고향 가까운 곳에 가려고 국군을 따라 올라오다가 주저앉게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속초 주민의 한 축으로서 속초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속초에 거주하는 함경도 사람들은 아직도 일명 '아바이 마을'(청호동)이라는 집단촌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통일의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43〉 수복기념탑, 출처:『속초시사』

분단의 쓰라림을 빼저리게 느끼는 월남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속초에는 실향민들의 염원이 담긴 수복기념탑이 세워져 망향의 숨결을 달래고 있다.

라) 속초시의 승격

군정이 실시되던 속초는 1954년 11월 17일 '수복 지구 임시 행정 조치법'에 의거하여 군정에서 민정으로 행정이 이양되었다. 이때 부월리에서 온정리(溫井里)가 논산리에서 청대리(靑垈里)가 분리되고, 속초리는 북에서 내려온 피란민의 증가로 인구가 늘어 5구와 6구가 신설되었다.

1963년 1월 1일 법률 제 1176호에 의해 속초가 시로 승격되어 '속초시'가 되었다. 1966년 1월 1일 동제(洞制)실시에 따라 속초리 1구는 영랑동(永郎洞), 2구는 동명동(東明洞), 3구는 중앙동(中央洞), 4구는 금호동(琴湖洞), 5구는 청호동(靑湖洞), 6구는 청학동(靑鶴洞)과 교동(校洞)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외 조양동(朝陽洞), 노학동(蘆鶴洞), 대포동(大浦洞), 도문동(道門洞), 설악동(雪嶽洞)과 더불어 12개 동이 되었다.

마) 현재의 속초

1963년 시로 승격된 이래 속초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 장천리(章川里)와 사진리(沙津里)가 편입되어 장사동(章沙洞)이 되면서, 13개 동으로 늘어났고 1983년에는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가 설악동으로 편입되었다.

행정구역은 1998년 동 통폐합으로 13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조정되어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8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속초의 문화재⁵⁴⁾

가. 문화재(文化財)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물, 즉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따라서 한 민족이 생활하면서 생성, 발전시켜 온 모든 유·무형의 산물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자원은 천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 구분되며, 이 중 문화자원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문화재로 일컬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되고 그 이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 보존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법에는 문화재 보호의 목적을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명시하였다.

2019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를 4가지로 정의 및 분류하고 있다.

▶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 미술,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기념물(記念物)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총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동물·식물·광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

2) 속초시 문화재 현황

속초시의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로 13건, 강원도지정문화재 10건, 강원도문화재자료 8건 등 총 31건으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54) ‘속초의 문화재’편은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속초시사(上)』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지정번호를 달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표9> 속초시 문화재 현황(2021. 7. 30. 현재)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강원도지정문화재			강원도문화재자료	총계
	계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계	강원도유형문화재	강원도무형문화재		
속초	13	5	0	1	5	2	10	8	2	0	31

연번	지정별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1	국 가 지 정 문 화 재	보물 (5)	향성사지 3층석탑			속초시 설악동 산24-2			1966.08.25.	
2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속초시 설악산로 1137 (설악동 170)			2011.09.05.	
3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속초시 설악산로 1137 (설악동 170)			2012.02.22	
4			신흥사 극락보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설악동 170)			2018.06.04.	
5			제진언집 목판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내)			2019.03.06.	
5		명승 (5)	속초 조양동 유적			속초시 조양동 1529외			1992.10.10.	
7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			속초시 설악동 산41			2013.03.11.	
8			설악산 토왕성폭포			속초시 설악동 산41			2013.03.11.	
9			설악산 울산바위			속초시 설악동 산40외			2013.03.11.	
10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			속초시 설악동 산41			2013.03.11.	
11		천연 기념물 (5)	설악산 공룡능선			속초시 설악동 산41			2013.03.11.	
12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속초시 설악동 산20외			1965.11.05.	
13			설악동 소나무			속초시 설악동 20-5외			1988.04.30.	
14	강 원 도 지 정 문 화 재	강원도 유형 문화재 (8)	신흥사경판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 내)			1971.12.16.	
15			김종우 가옥			속초시 중도문길 74-7 (도문동 1186)			1985.01.17.	
16			신흥사 보제루			속초시 설악산로 1137 (설악동 170)			1985.09.13.	
17			신흥사 금고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1.08.12.	
18			신흥사 동종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1.08.12.	
19			신흥사 안양암 아미타회상도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유물전시관 내)			2011.08.12.	
20			신흥사 명부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설악동 170)			2011.12.16.	
21			보광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복장유물			속초시 영랑호반길 69-2			2020.08.21.	
22		강원도 무형 문화재 (2)	속초 도문농요			속초시 상도문2길 53-8 (도문동 33-4)			2007.02.23.	
23			속초 사자놀이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2019.03.08.	

연번	지정별	명칭	소재지	지정일자
24	강원도 문화재자료 (8)	신흥사	속초시 설악산로 1137 (설악동 170)	1984.06.02.
25		김근수 가옥	속초시 하도문2길 65 (도문동 1504)	1985.01.17.
26		신흥사 부도군	속초시 설악동 산26-3	1991.02.25.
27		노학동 3층석탑	속초시 노학동 산433	2000.01.22.
28		매곡 오윤환선생 생가	속초시 상도문1길 30 (도문동 195)	2006.07.28.
29		신흥사 칠성도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 유물전시관내)	2011.08.12.
30		신흥사 청동시루	속초시 설악산로 1096 (신흥사 유물전시관 내)	2015.11.06.
31		보광사 현왕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69-2 (보광사)	2018.10.26.

나. 속초지역 문화재

1) 선사유적

【속초 조양동 유적】(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속초시의 남쪽 청초호 가까운 곳에 있는 낮은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집터이다.

1992년 강릉대학교 박물관은 이 지역에서 모두 7채의 움집터와 당시의 무덤이었던 고인돌 2기(基)를 함께 조사하였다. 집터는 풍화암반층(風化岩盤層)을 40~60cm 깊이로 파내고 바닥에는 고운 진흙을 얇게 깔아 만들었는데 약 23~76m² 규모의 약간 긴 네모꼴[長方形]로 처리했음이 밝혀졌다. 이로써 당시의 사람들 이 약 7~23평 크기의 움집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집터에서는 당시의 생활 모습을 밝혀 주는 많은 토기와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집터가 발견된 구릉에서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고인돌에서 발굴된 부채꼴 모양의 청동도끼는 강원 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굴조사된 사례로, 이 지역 선사문화(先史文化) 연구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래 이곳은 주택단지로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나 이와 같은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史蹟)으로 지정, 보존하게 되었다.

		
〈사진44〉 조양동유적지	〈사진45〉 굽다리잔과 출토 토기	〈사진46〉 부채꼴모양 청동도끼

출처:『속초시사』

2) 명승

가) 설악산 비룡폭포 계곡 일원(국가지정문화재 명승)

비룡폭포는 토왕골 계곡의 하류 쪽에 육담폭포(六潭瀑布)와 상류 쪽에 토왕성폭포(土旺城瀑布)의 중간 지역에 있으며, 폭포수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비경을 보여준다.



〈사진47〉 비룡폭포
출처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나) 설악산 토왕성폭포(국가지정문화재 명승)

토왕성폭포는 화채봉에서 흘러 칠성봉을 끼고 돌아 상단150m, 중단80m, 하단90m로 총 길이가 320m의 3단을 이루며 떨어지는 연폭(連瀑)으로 하늘에서 비류하는 광경은 천상의 절경이다. 마치 선녀가 흰 비단을 바위 위에 널어놓은 듯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사진48〉 토왕성폭포
출처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다) 설악산 울산바위(국가지정문화재 명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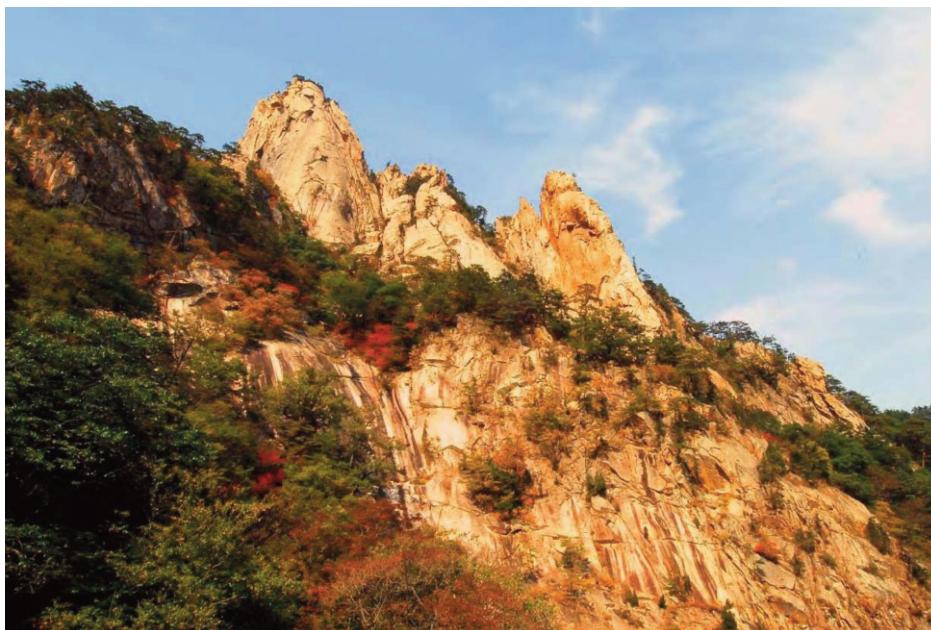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화강암체로서 모두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부에는 항아리 모양의 구멍이 5개가 있어 근경이 훌륭하며, 시각적 풍경뿐만 아니라 예부터 ‘큰 바람 소리가 울린다’는 의미에서 ‘천후산(天吼山)’이라 불리고 있어 청각적 감상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사진49〉 울산바위
출처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라) 설악산 비선대와 천불동계곡 일원(국가지정문화재 명승)

비선대는 와선대에서 노닐던 마고선(麻姑仙)이라는 신선이 이곳에 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붙여졌다. 비선대는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했다고 하며, 암반에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특히 ‘비선대(飛仙臺)’라고 쓴 글자가 대표적이며, 『양양읍지』에 윤순(尹淳)이 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진50〉 비선대
출처 :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

마) 설악산 공룡능선(국가지정문화재 명승)

공룡능선은 영동·영서를 분기점으로 구름이 자주 끼는 등 기상변화가 시시각각 변한다. 내설악과 외설악을 가르는 설악의 중심 능선이며, 내설악의 가야동계곡, 용아장성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외설악의 천불동계곡부터 동해바다까지 시원하게 펼쳐진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공룡능선은 생긴 모습이 공룡이 용솟음치는 것처럼 힘차고 장쾌하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사진51〉 공룡능선
출처 :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

3) 천연기념물

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면적은 173,595,499m²으로 태백산맥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북으로는 금강산을 거쳐 북한의 고원지대로 통하고, 남으로는 오대산, 태백산을 거쳐 차령산맥, 소백산맥과 연결된다.

식물분포상은 온대 중부의 대표적인 숲을 형성하고 있고 정상부 일대에서 보이는 고산식물군락은 지질 시대의 기후 변천에 따른 식물의 이동을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분포상 북방계통의 남방한계를 이루며, 남방계통의 북방한계 지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동물분포상은 구만주아구(舊滿洲亞區)에 속하나, 표범, 산양, 반달곰, 잣까마귀, 솔새 등의 시베리아아구적인 북방계의 동물들과 외눈이사촌나비, 후치령부전나비, 산부나비 등의 북방계의 곤충들도 서식하고 있다.

특히 멸종 위기의 크낙새, 산양, 사향노루, 까막딱따구리 등을 볼 수 있으며, 물두꺼비도 다량 서식하고 있다.

또 설악산은 동서의 분수령 역할을 해 내설악과 외설악간 어류의 분포가 뚜렷한 점으로 주목되는 중요한 지역이다.

나) 속초 설악동 소나무(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나무의 크기는 높이 17m,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 4.1m, 밑동 둘레 5.8m이며, 가지는 동서로 16m, 남북으로 19m 정도 펴져 있다.

지상 2.5m 부근에서 나무줄기가 3개로 갈라졌으나, 양쪽 2개는 죽었고 가운데 줄기만이 살아 있는 모습으로 나이는 확실하지 않으나, 약 500년 정도로 추정된다.

이 나무는 설악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으며, 지금까지 마을의 서낭당 나무로서 잘 보호받아 왔으며, 현재도 설악동의 상징수로 사랑받고 있다.

전해 오는 이야기로, 이곳을 지나는 사람이 나무 옆에 돌을 쌓으면 오래 산다고 하여 소나무 앞에 큰 돌무더기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설악관광로 개발로 돌 무더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사진52〉 설악동소나무

출처 :『알기쉽게 정리한 속초문화유산』

4) 가옥

가) 김종우 가옥(강원도 유형문화재)

속초시 도문동에 위치해 있다. 이 가옥은 조선시대 영조 26년(1750) 경에 건립되었다고 전해지며, 현 소유자의 부친 때부터 이곳에서 살아오고 있다.

주택의 평면은 안채와 행랑채 그리고 부속 창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의 본채인 안채는 온돌 중심의 겹집에 마루가 도입된 'ㄱ' 자형 겹집구조 형태이다. 팔작지붕의 5량(樑) 가구 짜임새이며, 평면 배치는 오른쪽에 부엌이 있고 앞쪽에는 마루 2칸과 사랑방이 놓이고 뒷쪽에는 안방, 뒷방, 뒷사랑이 있다.

부엌에 이어져 있는 외양간은 본채 지붕과 같은 높이로 1칸 덧달아 내어 아래층은 외양간으로, 위층은 달으로 사용하였다. 마구간이 본채에서 돌출된 구조는 이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전통민가 형식이다.

자연석 쌓기 기단과 자귀로 투박하게 다듬은 목재는 독특한 멋을 내고 있다.



〈사진53〉 김종우 가옥, 출처 :『알기쉽게 정리한 속초문화유산』

나) 매곡 오윤환선생 생가(강원도 문화재자료)

이 가옥은 전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 관동형 온돌중심 겹집에 마루가 도입된 평면의 부엌 뒤쪽으로 일자형의 발들이 연결되어 T자형 배치를 이루고 있다. 본채 전면은 머름대와 함께 현대식 미닫이 창호가 사랑방에서 마루까지 달려 있다. 집 주위는 돌담이 돌려 있으며 장대석 기간(H=250mm)에 200mm 각기둥을 세운 팔작기와지붕 형태의 150~180년 정도된 가옥이다.

뒷마당에는 증축한 곳간과 창고가 있으며 창고의 상부는 장독대로 사용하고 있다. 마구간 벽체는 판벽으로 짜여 있고 본채 지붕에 이어서 내림지붕으로 낮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안방에는 할머니가, 윗방에는 시어머니가 거주하였고 윗방에는 뒷마루가 뒷 후원 쪽으로 나와 있어 잘 꾸며진 후원을 거닐게 하였다. 사랑방에는 조부가 윗사랑에는 손자가 생활하였고 뒷방에는 며느리가 윗 뒷방에는 딸들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사진54〉 매곡 오윤환선생 생가,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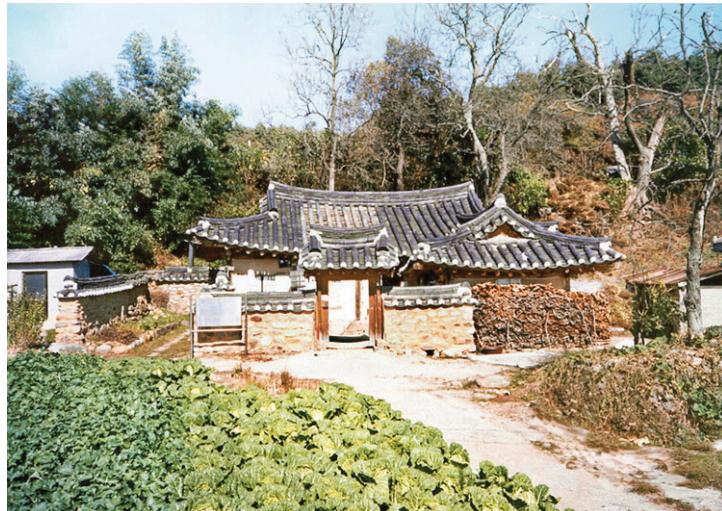
다) 김근수 가옥(강원도 문화재자료)

이 가옥은 1985년 1월 17일에 강원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다. 전면 4칸, 측면 2칸의 ‘ㄱ’자의 관동형 온돌 중심 겹집에 마루가 수용된 형태이다. 가옥의 규격은 69.80m²(19.9평)으로 확실한 건립연도는 알 수 없으나 발견된 기와에 ‘도광 5년(1825)’과 ‘건륭 27년(1762)’의 명문이 있어 약 250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흘처마 팔작기와지붕 형태의 가옥으로 대대로 함평 이씨가 살았으며, ‘회령댁’ 또는 ‘방앗간댁’으로 불리고 있다. 현 소유자의 부친이 매입하여 생활하고 있다.

평면은 부엌과 본채 지붕에서 이어져 내려와 돌출된 마구간을 두고 앞쪽에 우물마루⁵⁵⁾ 2칸과 사랑방이 있고, 뒷쪽에 안방, 아랫방, 뒷사랑이 있다. 뒷사랑에는 가묘를 모시는 벽장이 있으며, 마루에는 산간지방의 주거생활에서 볼 수 있는 ‘코를’이 있다. 원래는 집의 전면에 행랑채, 곳간채, 사랑채가 있는 큰 가옥이었으나, 해방 전후 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현재는 안채만 남아 있다.

이 가옥의 특징은 사찰공법으로 처마 끝이 올라가게 지었다는 것이며, 전체 집 높이가 낮고 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점이다. 특히 좌측 사랑방 출입문 높이가 27cm밖에 되지 않아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진55〉 김근수 가옥
출처 :『알기쉽게 정리한 속초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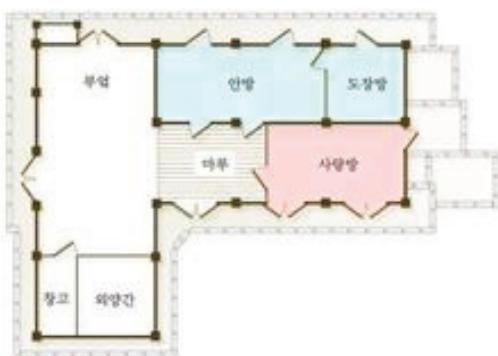
55) 넓은 널을 짧게 잘라 끼워놓은 마루이다.

【보충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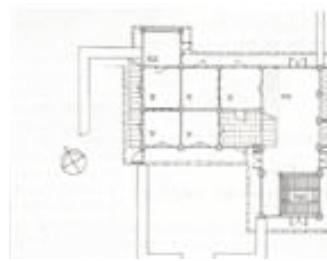
■ 속초지역 전통가옥(기와집)의 특징

일반적으로 가옥의 형태는 산지에는 평행평과 기역(ㄱ)자 형이 많고, 해변에는 평행형이 많다.

도문마을을 비롯한 영북 지방 내륙의 가옥 형태는 고성의 삼포마을, 왕곡마을에서 그 원형이 보존되고 있으며 분류상 관동형 가옥구조라 한다. 왕곡마을의 한옥은 안방, 도장방, 사랑방, 마루, 부엌이 한 건물 내에 수용되어 있으며, 부엌에 외양간이 붙어 있는 전형적인 양통(兩通)집 구조이다. 용마루 아래에는 앞뒤로 방을 꾸미고 부엌에 외양간이 붙어 있는 'ㄱ'자형 겹집 구조이다. 이는 주로 조선시대 함경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옥 구조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함경도 지방의 특징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철의 추위가 심하므로 방한과 보온을 위해 한 용마루 아래 모든 방들을 배열하는 겹집구조, 특히 방들을 앞뒤로 배치하는 밭전(田)자 형태를 취한다. 영북 내륙 지방도 해안에 비해 겨울이 춥고 길었던 관계로 이러한 형태로 집을 지었다.



〈그림15〉 관동형(영북내륙지방) 가옥 형태



〈출처: 다음카페 한국의 재발견 사랑방〉

〈그림 16〉 김근수 가옥 평면도

〈그림설명〉 'ㄱ'자형 겹집 구조의 가옥은 오른쪽 그림 같은 형태가 많으나, 〈그림15〉와 같은 역'ㄱ'자형으로도 많이 지어졌다.

5) 불교문화 유적

가) 신흥사(강원도 문화재자료)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는 신흥사(新興寺)는 원래 건봉사의 말사였으나, 1971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된 사찰이다. 이 절의 사적기(寺蹟記)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율사가 왕명을 받고 창건하여 향성사(香城寺)라 하였으며 앞뜰에 구층석탑을 세워 석가세존의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향성사는 신라 효소왕 10년(701)에 화재를 입어 소실되었다.

그 후 의상대사(義湘大師)가 향성사의 부속 암자인 능인암(能仁庵)터에 다시 절을 지어 선정사(禪定寺)라 하였는데, 1,000년 동안 변창했던 선정사 역시 조선 인조(仁祖) 22년(1644)에 소실되었다. 그리고 이듬 해영서, 연옥, 혜원 세 승려가 꿈에 신인(神人)으로부터 똑같은 계시를 받고 선정사를 원터의 10리 아래에 중건하였는데 이것이 오늘의 신흥사(新興寺)이다.⁵⁶⁾

56) 신흥사(新興寺), 예전에는 신흥사(神興寺)라 부르다가 1993년부터 신(神)자를 신(新)으로 하여 신흥사(新興寺)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조선 현종 2년(1661)에는 해장전을 창건하여 법화경, 중례문, 결수문, 예수문, 제청문 등의 판본을 넣었으며, 영조 13년(1737)에는 명부전을, 순조 13년(1813)에는 주운, 철수, 윤찬 등이 불이문을 세웠다. 대한 강희 6년에 건봉사 말사가 되었으나, 신흥사는 1971년에 건봉사를 대신하여 대한 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로 승격되어 현재 20여 개의 사찰을 거느리고 있다.

현재는 극락보전, 보제루, 종각, 요사채 등이 남아 있으며, 식사와 손님 접대를 위한 운하당, 적묵당 등이 있다. 암자로는 안양암, 내원암, 계조암 등이 있다.

사적기에 의하면 신흥사는 극락보전 20칸, 명부전 12칸, 대향각 12칸, 삼성각 6칸, 영산전 8칸, 소향각 10칸, 선당 68칸, 승당 62칸, 보제루 32칸, 천왕문 6칸, 양로방 6칸, 고방 3칸, 소각 2칸, 편소 6칸 등 모두

253칸의 건물을 지녔던 대사찰이었을 뿐만 아니라 안양암, 내원암, 계조암과 더불어 소림암, 반야암, 동토굴, 서토굴, 안심암, 세진암, 선일암, 극락암, 지무암, 향로암, 상원암, 동암, 백화암 등의 부속 암자들도 거느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진56〉 신흥사

출처 :『알기쉽게 정리한 속초문화유산』

나)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목조석가여래 삼존좌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의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 불상을 조각한 무염은 대화사 현진과 함께 17세기 전·중엽 경을 대표하는 화사로 이 작품은 조각승 무염의 작품세계를 시기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이 삼존불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상체의 불필요한 주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지만, 불신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준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무염의 조각적 역량이 흥빡 담겨 있는 작품이자 그가 조각한 작품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대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사진57〉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

출처 :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

다)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축원문 통해 165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 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 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 경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특히 불상 제작에 있어 조성화원(造成畫員)과 화성화원(畫成畫員), 즉 불상의 제작과 개금·개채를 분리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시 불상의 제작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불상을 만든 무염은 대화사 현진, 청현 등과 함께 17세기 전·중엽 경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이 작품은 조각승 무염의 작품세계와 그의 조각 경향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이 삼존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불신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준다.



〈사진58〉 신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출처 :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

또한 상체는 부드러운 선묘로, 하체는 강직한 선묘로 처리하여 예배자로 하여금 종교적 긴장감을 차츰 고조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무염의 조각적 역량이 가장 잘 담겨 있는 작품이다.

비록 시왕권속들이 남아 있지 않아 완전한 구성 체계는 갖추지 못했지만, 높은 종교적 감성과 조각적 완성도를 간직하고 있다.

라) 신흥사 극락보전⁵⁷⁾(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신흥사의 본전(本殿)으로 인조 25년(1647)에 처음 지어졌으며, 영조 26년(1750)과 순조 21년(1821)에 크게 수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물로 전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다포 양식으로 비교적 원형 보존이 잘되어져 있다.

잘 다듬어진 화강석으로 쌓은 높은 기단 위에 자연석으로 된 주초석을 놓고 그랭이질 한 후, 다시 그 위에 약간의 배흘림이 있는 등근 기둥을 세웠다.

특히, 전면 중앙의 꽃살문양 문과 협간의 빗살문양 문이 돋보이며, 영조 37년(1761)에 다시 조성된 1계 5단의 전면 석계단은 진경시대의 조각 수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소맷돌을 용 모양으로 마감하고, 바깥 면에는 귀면 형태의 나어두와 삼태극 및 비운문 문양을 양각하고, 위아래로 안상(眼象)⁵⁹⁾대를 둘렀다. 사찰에 잘 쓰이지 않는 다양한 문양으로 만들어졌으며 조각 수법이 뛰어나다.



〈사진59〉 신흥사 극락보전
출처 :『알기쉽게 정리한 속초문화유산』

마) 신흥사 경판⁶⁰⁾(강원도 유형문화재)

57) 극락보전은 극락세계의 주인공인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봉안하는 보배로운 전각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을 극락보전, 무량수전 또는 미타전이라고 한다. 아미타불은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머무르면서 영원토록 중생을 교화하는 부처이다.

58) 네모지고 긴 석재로 기단에 가로 길게 놓은 돌을 말한다.

59) 계단 면석에 팔면의 오금곡선으로 안쪽을 파낸 모양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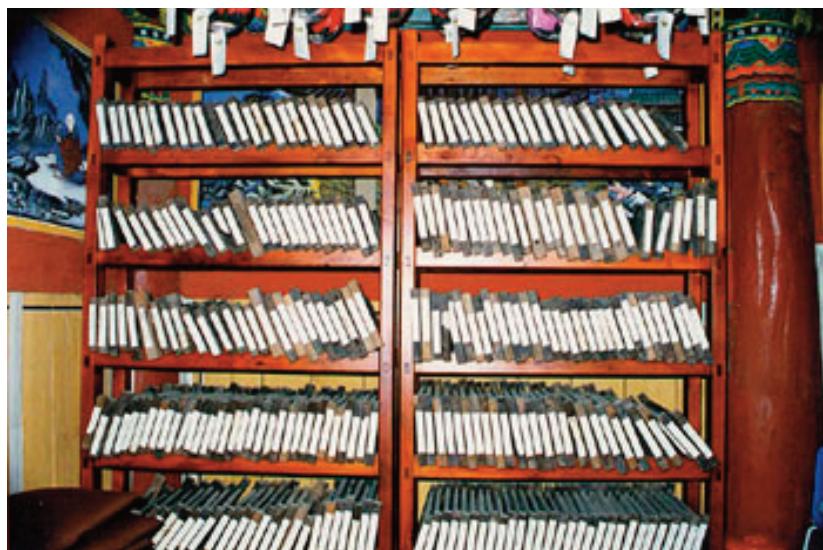
60) 경판이란 나무 또는 금속에 불경을 새긴 대장경을 말한다. 대장경이란 부처가 설법한 가르침을 담은 경(經), 부처가 제정하고 제자들이 확정한 계율을 말하는 율(律), 이름난 고승들이 경전의 내용을 연구하여 집필한 연구서인 논(論)을 말하는 삼장(三藏), 그리고 기타 다양한 원천에서 나온 서적들로 된 총서를 일컫는다.

경판은 불경을 찍어내던 각판(刻板)으로, 나무판에 도장 새기듯 불경을 새긴 것이다.

설악산 신흥사에 소장되어 있는 경판은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을 비롯하여 법화경(法華經) 경판 일부, 다라니경 경판 일부와 기타 훌어져 있는 몇 매의 경판 등 모두 280매이다. 크기는 대형(大型)이 $18.5 \times 40\text{cm}$, 소형(小型)이 $18.5 \times 30\text{cm}$ 이며 목판 1장마다 양면에 양각으로 새기고 글자는 한글, 한자 및 범어를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3, 4쪽과 13, 14쪽의 경판 두 장이 빠져 있다. 한문(漢文) 원문과 한글 번역문을 함께싣고 있으며, 중요한 부분은 그림까지 그려 넣었다.

이 경판 끝장에 “순치(順治) 15년 강원도 양양부 설악산 신흥사 개간(開刊)”이라는 연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효종 9년(1658)에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진60〉 신흥사 경판
출처 :『알기쉽게 정리한 속초문화유산』

바) 신흥사 보제루(강원도 유형문화재)

보제루는 영조 46년(1770)에 세워진 것으로, 장대석으로 2단을 쌓은 기단 위에 정면 7칸(22.4m), 측면 2칸(8.5m)의 홀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이 건물은 누각식으로 되어 위층에는 다락 공간으로, 하층 중앙 칸은 극락보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구성되어 있다.

보제루는 한국 사찰공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공간의 위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낮은 입구를 만들었다. 아울러 2층 누각의 지붕선은 설악산의 산형을 고려해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가 잘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찰 건물의 건축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래 사찰의 본전 앞에 세워지는 누각은 각종 법회를 거행하던 곳이었으며 사방이 개방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기능이 사라졌으며 가는 문살의 분합문을 달았다.

예전에 보제루 내에는 현판 등 동산문화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흥사유물전시관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사진61〉 신흥사 보제루
출처 :『알기쉽게 정리한 속초문화유산』

사) 기타 불교 문화재

【속초 신흥사 금고】(강원도 유형문화재)

이 금고는 명문이 남아 있어 정확한 제작연대(1788년)와 주조 경위를 알 수 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며 강원도에서는 유례가 드문 금고이다.

【속초 신흥사 동종】(강원도 유형문화재)

제작연대(1788년)와 주조 경위, 주조 장인 등을 알 수 있는 등 강원도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예라는 점에서 지정 보존가치가 있다.

【신흥사 안양암 아미타회상도】(강원도 유형문화재)

화기(畫記)를 통하여 조성연대(1874년)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으로, 조선후기 강원도 지역 불교회화의 중요한 자료이다.

【신흥사 명부전】(강원도 유형문화재)

전면 창호의 조형과 구성에서 보이는 독특함과 전체적인 통일성 등을 볼 때 조선후기 사찰 건축의 전형적인 특징인 간략화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속초 신흥사 칠성도】(강원도 문화재자료)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화기(畫記)를 통하여 조성연대(1901), 제작자, 봉안 경위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등 강원도 지역에서는 희소성 있는 칠성도이다.

【신흥사 청동시루】(강원도 문화재자료)

신흥사가 한때 왕실의 원찰로서 기능을 하였는데, 이 청동시루는 왕실의 제사인 국기일(國忌日)과 관련된 의식에 필요한 제물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흥사 부도군】(강원도 문화재자료)

부도는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넣은 원당(圓堂)모양 또는 석종(石鐘)모양의 석조물을 일컫는 말로, 승탑(僧塔)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부도군은 인조 22년(1644)에 신흥사가 중건된 이후 역대 고승들의 부도를 같은 장소에 조성한 전형적인 부도군으로 19개의 부도가 있다.

대원당탑(大圓堂塔) 등 3개가 원당 모양의 부도이며, 성곡당탑(聖谷堂塔) 등 16개가 석종 모양인데, 주인을 알 수 있는 것은 12개이다.

부도와 함께 신흥사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신흥사사적비(神興寺事蹟碑)를 비롯하여 강세황(姜世晃)이 쓴 용암당대선사비(龍巖堂大禪師碑) 등 6개의 비석이 있는데, 1764년부터 1827년 사이에 세워진 것이다.



〈사진62〉 신흥사 부도군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

【보광사 현왕도】(강원도 문화재자료)

보광사 현왕도는 화사 궁전, 재준이 발원하고 화원 송암대원, 법인, 삼여, 금어 원명궁우가 공동으로 1863년에 제작하였다. 보광사 현왕도는 조성연대와 작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19세기 중반 강원도 지역의 중요한 작품이다.

보광사 현왕도는 비단 바탕에 진채색으로 현왕을 중심으로 권속이 좌우대칭의 원형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현왕도는 사람이 죽은 뒤 3일 만에 죄를 심판하는 현왕과 그 권속을 그린 불화이다. 화면의 상단에는 8폭의 병풍을 배치하였다. 현왕은 화면 중앙에 자리잡고 있으며, 오색의 화문장식 깃이 달린 붉은 도포를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현왕의 좌우로는 천녀와 동자가 있다. 화면 중간 부분에는 대륜성왕과 전륜성왕을 배치하였고, 그 아래 판관과 녹사를 배치하였다. 적색과 녹색, 청색, 백색 안료를 사

용하여 채색하였다. 현왕도는 전체적으로 얇은 먹선으로 매우 세밀하게 그려졌으며 중간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절제된 모습이 엿보인다.



출처: 속초시립박물관

6) 탑

가) 향성사지 3층석탑(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신흥사사적(神興寺事蹟)에 의하면 향성사는 신라 고승 자장(慈藏)율사가 진덕여왕 6년(652)에 처음 건립했다고 전해지는 현존 신흥사의 전신이며, 건립 당시 9층 석탑을 조성하고 불사리를 봉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석탑은 문헌에 기록된 석탑이 아니며, 제작 수법이나 형식으로 볼 때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석탑은 2중 기단 위에 3층의 몸돌을 세운 통일신라시대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고, 몸돌과 지붕돌은 각기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 각 층 몸돌에는 양쪽으로 모서리기둥을 지붕돌 아래로는 5단의 지붕돌받침을 조각하였고, 탑 꼭대기에 있던 상륜부(相輪部)⁶¹⁾는 모두 없어졌지만 전체적으로 9세기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따르고 있다.

처음 해체 수리할 때 3층 탑신석 중앙에서 사리 구멍을 확인하였으나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석탑의 높이가 4.33m로 장엄하면서도 간결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61) 불탑의 꼭대기에 세워 놓은 장식 부분을 말한다. 노반, 복발, 보륜, 보개, 수연, 보주 등으로 구성되었다.

나) 속초 노학동 3층석탑(강원도 문화재자료)

속칭 무당골이라 불리는 200평 정도의 골짜기에 위치한 절터에 남아있는 석탑이다. 단층기단(單層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세운 석탑으로, 1층 탑신과 지붕돌[屋蓋石]은 각각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다. 2층 지붕돌과 3층 탑신, 3층 지붕돌과 노반(露盤)⁶²⁾은 각각 1석으로 조성되었고, 2층 탑신은 없어졌다.

탑의 가장 큰 특징은 1층 탑신의 4면에 사방불(四方佛)을 조성한 점이다. 연꽃 받침 위에 원형 머리 빛[頭光]과 몸 빛[身光]을 갖춘 좌상(坐像)을 조각하였는데,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형상을 알 수는 없지만 안정감 있게 돋을새김하였다.

강원 영동지방의 석탑 중에서 사방불이 조각된 귀중한 석탑으로, 조성 수법으로 볼 때 고려시대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탑의 높이는 1.8m이다. 석탑을 중심으로 약 200평의 대지가 마련된 점과 기와 조각과 석축이 있는 점으로 보아 암자 터로 추정된다. 신흥사의 부속 암자인 소림암(小林庵) 터라고도 하지만 현 위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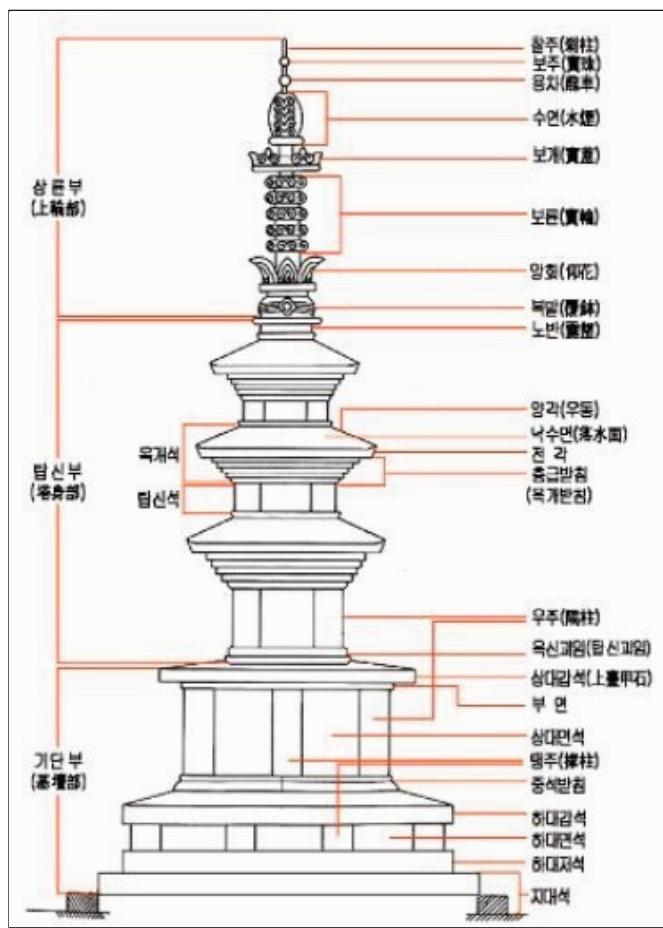
〈사진71〉 향성사지 3층석탑
출처 : 속초시립박물관



〈사진72〉 속초 노학동 3층석탑
출처 :『알기쉽게 정리한 속초문화유산』

62) 탑의 최상부 옥개석 위에 놓아 상륜부를 받치는 부재이다. 승로반(承露盤)의 준말.(보충자료 참조)

【보충자료】



〈그림17〉 탑의 구조

7) 무형문화재

【속초도문농요】(강원도 무형문화재)

속초도문농요는 쌍천을 따라 형성된 넓은 뜰을 바탕으로 형성된 농경마을인 도문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는 농요로 영북지방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농요들이 사라져 가는 실정 속에서도 마을주민들에 의해 잘 보존되어온 농요라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보존·전승을 위해 지정 가치가 크다.



〈사진73〉 속초도문농요 시연장면
출처 :『알기쉽게 정리한 속초문화유산』

IV. 명산 설악산 이야기

신수은 · 김동현



1. 설악산의 지형⁶³⁾

가. 지형 개관

설악산은 태백산맥에서 뻗어 나온 설악산맥을 기준으로 크게 동쪽은 외설악, 서쪽은 내설악 2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외설악 중 대청봉(1,708m)과 관모봉(874m)을 기준으로 북쪽은 설악동지구, 남쪽은 오색지구로 나뉘며, 외설악 중 한계령에서 대청봉을 거쳐 관모봉에 이르는 능선 남쪽을 남설악이라 칭하기도 한다. 내설악은 대청봉에서 대승령(1,190m)에 이르는 서북능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백담지구, 남쪽은 장수대지구로 나뉜다.⁶⁴⁾

설악산의 주요 능선으로는 대청봉에서 마등령(1,326.7m)까지 날카로운 기암괴석과 절벽이 연속되는 공룡능선과, 대청봉에서 대승령 서북 안산(1,430m)에 이르는 서북주능, 대청봉에서 화채봉(1,325m)을 지나 송암산(761m)에 이르는 화채능선, 화채봉에서 칠성봉(1,077m) 그리고 집선봉과 권금성을 지나 설악동에 이르는 능선이 있으며, 울산바위(873m)에서 달마봉(635m)로 이어져 목우재를 지나 주봉산, 청대산을 거쳐 대포동으로 이어지는 낮은 능선이 있다.⁶⁵⁾

설악산지구는 기후 지형학적 작용과 구조운동의 영향으로 다양한 산지 경관과 골짜기, 하천 지형 경관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사진74〉 설악산 전경
출처 : 작가 류영민 作

나. 설악산의 구성 암석 및 형성과정

설악산을 구성하는 암석은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로 이루어진 대청봉 부근과 백담사 남쪽 중생대 육성층인 백악기 백담층군 퇴적암 및 응회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러 종류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

63) ‘설악산의 지형’편은 『이야기로 만나는 설악산국립공원 문화자원』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64) 김창환 외, 『이야기로 만나는 설악산국립공원 문화자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2019, 9쪽.

65)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上), 143쪽.

생대 이후 오랜 기간의 침식을 받아 낮아진 한반도는 중생대에 거대한 규모의 지각 변동을 겪게 되는데, 그 결과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기도 하고, 절리를 통해 올라오다가 지하 깊은 곳에서 냉각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하에서 냉각된 암석을 심성암이라고 하며, 화강암이 가장 대표적인 심성암이다. 한반도의 화강암 관입 시기는 크게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⁶⁶⁾의 것으로 이는 송림 변동이라고 불리며, 대부분 평안북도에 분포하여 있다. 다음은 추가령 구조곡 이남에서 쥬라기⁶⁷⁾의 대보조산운동으로 그 분포 면적이 가장 크다. 다음으로는 백악기⁶⁸⁾의 불국사화강암인데 이 화강암은 강원도 간성, 속초, 인제, 홍천을 연결한 지대에 분포하여 설악산의 주체를 형성하였다.

심성암인 화강암의 특성상 설악산을 이루는 화강암은 지하 수km 아래에서 냉각되어 만들어 졌는데 이 화강암이 지표에 나온 것은 화강암을 덮고 있던 지각이 지표에서 깎이고 제거되었기 때문이며, 설악산맥이 1,708m까지 솟은 것은 제3기에 일어난 융기작용(隆起作用)에 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설악산은 태백산맥의 일부로써 높은 산지로 형성이 되었다. 이러한 태백산맥의 융기와는 반대로 동해 쪽은 침강하여 태백산맥의 동해 방향은 빠르게 침식(侵蝕)이 되었는데 이때에 빠른 침식작용이 설악산의 깊은 골짜기와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들을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강암의 구조적 특징인 절리(節理)가 발달하게 되었다. 설악산에 분포하는 화강암류는 낮은 각도의 경사각을 가진 판상절리와 높은 각도의 경사각을 가진 수직절리의 발달이 탁월하다. 특히 수직절리의 발달로 인해 설악산의 절경을 이루는 높이 솟은 암산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형성된 지 오래된 암석에서 나타나는 여러 방향으로 발달된 절리들은 설악산의 다양한 화강암 지형 및 경관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⁶⁹⁾



〈사진75〉 여러 방향의 절리
출처 :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66) 2억 3,000만~1억 8,000만 년 전

67) 1억 8,000만~1억 3,000만 년 전

68) 1억 3,000만~6,500만 년 전

69)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上), 1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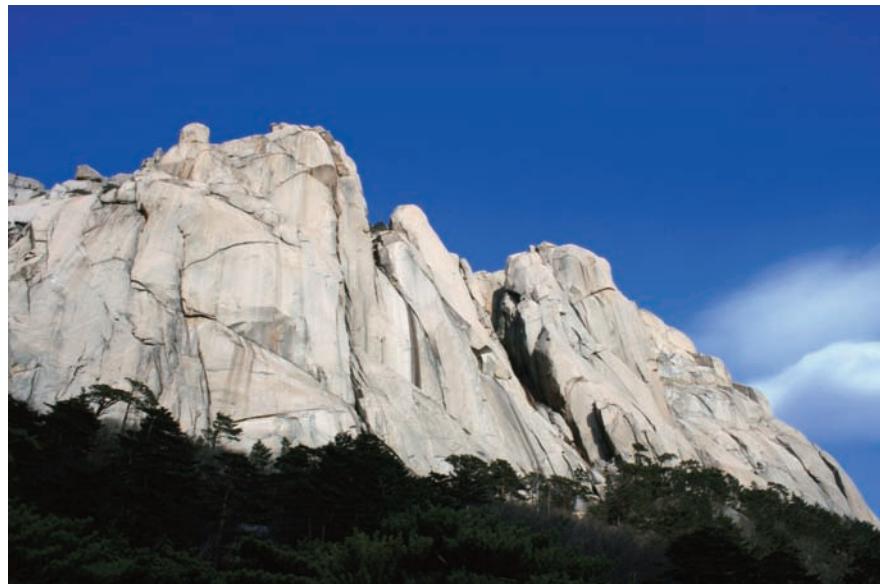
다. 설악산의 지형

설악산의 불국사화강암 관입과 이에 수반되어 일어난 단층 작용 및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 한반도의 지형은 동고서저의 지체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체구조운동으로 인해 설악산은 서쪽으로는 5° 내외의 완경사, 동쪽으로는 약 18° 내외의 급경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사의 차이로 인해 내설악은 백담 계곡, 수렴동 계곡, 가야동 계곡 등의 완만한 능성으로 이루어진 반면 외설악은 깊은 협곡인 천불동 계곡을 끼고 양쪽으로 솟아오른 날카로운 암봉 들로 이루어진 거친 지형을 형성하게 되었다.⁷⁰⁾

1) 산지지형

가) 급애 (cliff)

급애는 단애라고도 불리는 기반암의 자유면(free face)으로 암석 사면의 경사가 수직 또는 급경사를 이루며 사면에 물질이 쌓여있지 않은 면을 의미한다. 설악산에 분포하는 급애는 지하 화강암이 지표에 노출되면서 수직절리가 탁월하게 발달한 곳에서 나타난다. 외설악에서는 공룡능선, 울산바위, 비선대 부근, 천불동 계곡 일대 등, 내설악에서는 봉정암 부근, 대승 폭포 주변, 옥녀탕 부근에서 나타난다.



〈사진76〉 급애
출처 :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나) 암석돔 (dome)

암석돔은 지표에 노출된 돔 형태의 지형으로 주로 사면 혹은 정상부에서 관찰된다. 화강암 산지에서 발견되는 암석돔은 지하에 있는 화강암의 수직, 수평절리를 따라 구상풍화가 진행되고 풍화작용으로 형성된

70) 김창환 외, 앞의 책, 12~21쪽.

새프롤라이트가 제거되면서 암체가 지표에 노출이 된다. 노출된 암체는 판상절리를 따라 박리현상이 나타나면서 박리돔이 형성이 되며 이를 암석돔 또는 보른하르트(bornhardt)라고도 한다. 외설악에서는 비선대, 울산바위 부근, 내설악에서는 오봉산 부근, 안산 정상부 등에서 관찰할 수 있다.

다) 토르 (tor)

토르는 기반암의 수직, 수평절리 사이에 수분에 의한 풍화가 이루어지면서 둥근 모양의 핵석이 형성되고, 핵석 사이의 새프롤라이트가 제거되면서 여러 핵석이 지표에 노출된 지형을 말한다. 기반암의 차별풍화에 의해 형성된 지형으로 핵석이 쌓여있는 탑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 대표적으로 외설악의 흔들바위가 있는데 초기에는 흔들바위 외에도 비슷한 토르가 군집을 이루고 있었으나, 풍화가 진전되면서 모두 붕괴되어 아래로 굴러가고 흔들바위 하나만 기반암 상부 흙에 고여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 외에도 울산바위 정상부, 공룡능선에서 관찰이 가능하고, 내설악에서는 봉암암 부근, 한계령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또한 토르와 핵석은 영랑호 부근에서도 쉽게 관찰이 가능한데 속초 팔경 중 하나인 범바위가 전형적인 토르라고 볼 수 있다.



〈사진77〉 흔들바위

출처 : 속초문화원

라) 타포니(tafoni)와 나마(gamma)

타포니는 풍화작용으로 인해 암석 측면에 동굴 형태로 생긴 풍화혈을 의미하며, 나마는 암석 측면이 아닌 상부 평탄면에 형성된 풍화혈을 의미한다. 나마는 우리말로 ‘가마솥바위’라고도 한다. 타포니와 나마 모두 염 풍화, 수분의 동결, 융해 반복으로 인한 풍화, 가수분해 등 여러 종류의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지형이다. 설악산에서 타포니는 흔들바위 주변에서 관찰 가능하며 나마는 울산바위 정상부, 권금성 정상부와 같이 주로 봉우리 정상부에 관찰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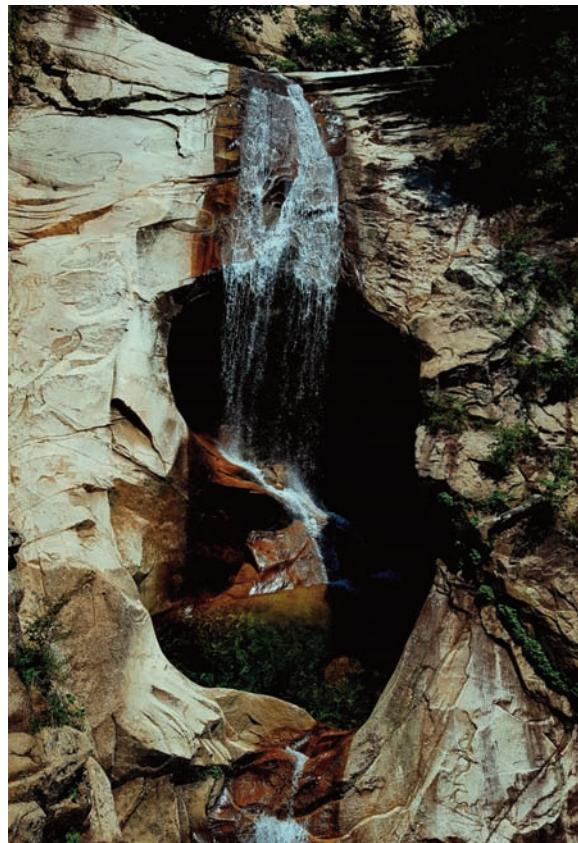
마) 암괴원(block field), 암괴류(block stream)

암괴원은 물리적 풍화작용의 반복으로 인해 기반에서 분리된 암석들이 완만한 사면에 퇴적된 지형을 의미하며, 암괴류는 사면 경사를 따라 암괴가 흘러내린 모양을 의미한다. 암괴원은 귀때기청봉 정상부 부근, 황철봉 부근에서 관측되는데, 울산바위 정상에서 보이는 황철봉 부근 암괴원은 ‘너털지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설악산의 암괴원 중 귀때기청봉 부근 암괴원은 암괴 직경이 1~2m로 규모가 크고, 암괴 표면에 나마와 그루브와 같은 화학적 풍화에 의한 미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 하천지형

가) 폭포 (water fall)

폭포는 하천 종단면에서 경사급변점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로 하상을 이루는 단단한 암석층이 침식되지 않아 형성되는데 설악산의 폭포는 대부분 화강암 지형에서 발달하므로 암석의 경연차로 인한 형성보다는 화강암 절리 발달에 의해 폭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폭포는 하천의 두부침식을 받는 지형으로 침식이 지속된다면 폭포는 후퇴하게 되며, 결국 소멸하게 된다. 폭포에서는 유수의 흐름이 거의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폭포 아래에는 기반암이 동그랗게 파인 와지인 폭호나 자갈이나 모래에 의한 마식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포트홀 등의 침식지형이 함께 관찰된다. 설악산은 급애와 계곡이 많아 많은 수의 폭포가 관찰되며, 설악동 입구에 있는 토왕성 폭포는 낙차가 150m로 국내에서 가장 큰 폭포이다.



〈사진78〉 십이선녀탕과 폭호, 출처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제공

나) 협곡 (canyon)

협곡은 주로 하천의 침식작용을 형성되는 좁고 깊은 계곡을 말한다. 급경사의 곡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곡벽의 경사가 V자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V자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설악산에서는 비룡 폭포 구간, 천불동 계곡 구간, 흘림골, 주전골 주변, 구곡담 계곡의 협곡의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사진47〉 비룡폭포
출처 :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

2. 설악산의 식생⁷¹⁾

가. 설악산의 식물

설악산에는 극지고산식물, 고산식물, 북방계식물, 온대성 상록침엽수와 낙엽활엽수, 그리고 난온대성 식물까지 다양한 식물종이 분포하고 있다. 설악산의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은 고산과 아고산대의 식물이 자라는데, 눈잣나무, 설악눈주목, 눈향나무, 털개불알꽃, 홍월귤, 월귤, 들쭉나무 등 남한에서는 설악산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 많이 분포하며, 눈측백, 흰장구채, 바람꽃, 만주송이풀, 등대시호, 바람꽃, 흰인가목, 붉은인가목, 기생꽃, 솔나리, 난쟁이붓꽃 등의 북방계 식물이 산 정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내설악과 외설악의 식물상은 고지대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내설악이 내륙의 산악 지대와 접해 있고, 외설악이 동해와 접해 있어 내설악의 저지대에는 북방계 식물이 많은 편이며, 외설악의 저지대에는 남방계 식물(때죽나무, 사람주나무 등)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고도별 수직분포에 차이가 나타난다. 지금까지 조사된 설악산에 분포하는 식물은 모두 112과 486속 1,300분류군(1,043종, 214변종, 34품종, 1아종, 8교잡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식물 중 한국고유식물은 고유속(모데미풀속, 금강초롱속) 2종, 53 고유종, 31 고유변종, 9 고유품종, 1 교잡종으로 모두 94 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설악산에 한국 고유식물이 많이 분포하는 이유는 설악산의 중심 축인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뻗어 있어 과거 여러 차례 반복된 빙하기와 간빙기에 산맥을 따라 북방계 식물의 남하와 남방계 식물의 북상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여 북방계 요소와 남방계 요소의 식물들이 서로 만나게 되었고,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의 상승으로 고산으로 이동한 북방계 식물의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과거 식물상 조사에서 나타난 귀화식물의 종 수와 비교해보면, 최근에 귀화식물의 종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설악산이 관광지로서 본격 개발된 것이 1970년대 말부터이며, 그 후 관광객의 증가와 각종 시설물 공사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자재 도입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사진80〉 설악눈주목



〈사진81〉 분비나무

출처:『속초시사(상)』

71) '설악산의 식생' 편은 『속초시사(上)』,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사진82〉 눈잣나무



〈사진83〉 한계령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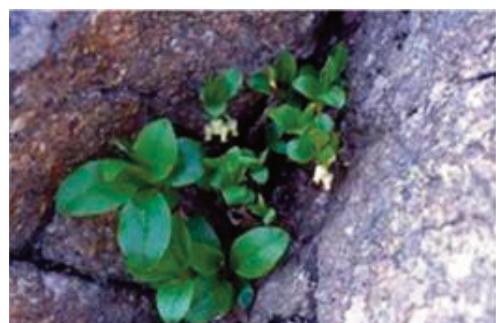
〈사진84〉 설악조팝나무



〈사진85〉 설악대극



〈사진86〉 금강제비꽃



〈사진87〉 흥월굴



〈사진88〉 금강봄맞이



〈사진89〉 만리화

출처:『속초시사(상)』



〈사진90〉 만주송이풀



〈사진91〉 금강초롱꽃

출처:『속초시사(상)』

나. 설악산의 식생

설악산은 식물구계지리학상 중일식물구계—온대아구계—한국구—중부아구에 속하고, 식물군계수준으로는 냉온대중부에 속하여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원시림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설악산의 전체적인 식생은 신갈나무가 저산지에서 고산지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우점하며, 다음으로 저산지와 암반이 많이 노출된 산봉우리와 능선부에 소나무가 우점하는 식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설악산을 이루는 태백산맥이 한반도의 동쪽으로 치우쳐 남북으로 뻗어있어 설악 주능선에서 황해와 동해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13 : 1에 달해 외설악 지역은 내설악 지역에 비하여 경사가 매우 강하고 따라서 침식의 속도가 빨라 많은 기암 절벽과 폭포를 만들며, 표토의 깊이가 얕아 쉽게 건조하는 토양 입지가 많으며, 내설악 지역은 외설악 지역에 비하여 경사가 완만하고 표토가 깊고 수분 조건이 적당한 토양 입지가 많은 편이다. 외설악 지역에서는 건조에 비교적 강한 소나무군락의 발달을 많이 볼 수 있고, 굴참나무군락도 비교적 많다. 내설악 지역에서 서북능선 남쪽은 경사가 심하고 암반의 노출이 많고 한계천으로 향하는 작은 계곡이 발달한다. 따라서 서북능선에서 남쪽으로 뻗는 능선부에는 소나무가 우점하고 계곡부에는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신갈-소나무 혼효림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고도가 높아지면서 잣나무, 분비나무의 출현빈도가 높아진다. 서북능선 북쪽은 암반의 노출이 많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갈나무를 우점종으로 하는 낙엽 활엽수의 극상림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저산지 남사면에 굴참나무, 계곡부에 졸참나무와 서어나무가 부분적으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설악산은 남한에서 비교적 북쪽에 위치하고, 해발고도가 높으며, 암반이 많이 노출된 지형적 특성 때문에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타 지역의 산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잣나무, 분비나무, 눈측백의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작은 규모의 순군락이 형성되기도 한다.

설악산에서 해발 1,500m이상의 대청봉, 중청봉과 소청봉 일대의 지역은 아고산대(subalpine belt)의 식생을 나타내고 있다. 아고산대는 용재한계선(timber line)에서 교목한계선(tree line)사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교목한계선부터는 키가 큰 나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수목은 이 한계에 가까워질수록 연속적으로 키가 낮아지며, 강한 바람에 의해 기형으로 변하여 편형수가 나타난다. 환경조건이 가혹해지면서 고산의 환경에 적응하여 지면에 붙어 자라거나, 나무가 연속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드문드문 모여 자라거

나, 기형적으로 자라는 왜성변형수(krummholz) 등이 남한에서는 한라산과 설악산의 산정에서 관찰된다.

설악산의 아고산대에는 눈잣나무와 텔진달래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사면과 남사면에 관목상 군락을 형성하고 부분적으로 개들쭉이 소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바람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 북사면과 동사면에 사스래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이외에 신갈나무와 분비나무가 아교목상의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설악눈주목, 눈측백, 덤불오리나무, 땃두릅, 기생꽃, 홍월귤, 월귤 노랑만병초 등의 북방계식물이 이들 군락에 함께 생육하고 있다.

설악산에서 관목림대는 기온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청봉의 경우 수광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으나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서사면은 관목림이 형성되나 수광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으며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 북동사면은 아교목림을 형성하고 있다. 능선의 방향이 동서로 뻗은 서북능선의 경우 산 정상부의 서사면을 제외하고는 관목림이 형성되지 않았고, 남북으로 중청에서 미시령으로 이어지는 설악주능의 서사면에는 해발 700m 이상부터 바람의 영향 정도에 따라 관목림이 부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설악산의 삼림식생을 식물사회학적인 방법으로 분류한 결과 자연림 군락은 아고산대 풍충관목림으로 눈잣나무군락, 눈측백군락, 텔진달래군락, 아고산대 낙엽활엽수림으로 사스래나무군락, 거제수나무군락, 아고산대 침엽수림으로 분비나무군락, 주목군락, 산지대 낙엽활엽수림으로 신갈나무군락, 졸참나무군락, 콜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함박꽃나무군락, 피나무군락, 물푸레나무군락, 산지대 침엽수림으로 소나무군락, 잣나무군락, 전나무군락, 산지 계곡림으로 황철나무군락, 가래나무군락, 박달나무군락, 염주나무군락의 21개의 군락으로 구분되었다.

【아고산대 풍충관목림(subalpine wind-swept shrub)】

A. 눈잣나무군락(Pinus pumila community)

눈잣나무군락의 우점종은 눈잣나무, 텔진달래이며, 평균 수고는 1.00m이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관목층에서 눈잣나무, 텔진달래, 초본층에서 눈잣나무, 텔진달래, 눈측백 순으로 나타났다.

눈잣나무는 전형적인 북방계식물로서 동북아시아의 아한대(subarctic zone)와 아고산대(subalpine belt)에 자라고 있다. 눈잣나무는 현재 동북아시아에 자라는데, 동으로는 베링해에 인접한 러시아의 축치반도와 캄차카로부터 서로는 몽골의 서쪽까지, 남으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까지, 북으로는 북극해에 시베리아까지 분포하며, 수직분포는 일부 지역에서는 바다 근처에까지 자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해발고도 3,200m까지 자라 매우 큰 폭의 분포역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 평남북, 함남북의 높은 산정에 나며, 설악산은 남방한 계선이 된다고 한다.

설악산에서 눈잣나무는 해발 1,500m 이상의 지역에서만 분포한다. 눈잣나무군락은 중청봉과 대청봉 사이의 능선 남서사면의 대부분이 눈잣나무군락이다. 대청봉 주변의 능선부와 남서사면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혹한기에는 눈잣나무를 덮을 정도로 쌓인 눈이 강한 바람과 눈에서 반사되는 강한 자외선 그리고 저온에 의한 동해(凍害)로부터 식물체를 보호하고, 혹한기가 지나면 강한 일사량으로 눈이 빨리 녹게 되어 광합성 기간이 짧은 아고산대 지역에서 눈잣나무의 광합성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상록성인 눈

잣나무의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바람이 더 강한 대청봉 산정 부근과 사면의 돌출 지형에는 눈이 적게 쌓여 눈잣나무를 바람, 자외선과 혹한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눈잣나무군락이 형성되지 않고 낙엽성인 텔진달래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바람이 약한 북동사면에는 눈이 너무 많이 쌓이고 일사량이 부족하여 5월말까지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눈잣나무의 생장이 어려워 쌓인 눈보다 키가 큰 사스래나무가 군락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눈잣나무의 분포는 적설량 그리고 적설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 눈측백군락(*Thuja koraiensis* community)

눈측백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아교목층이 2.46m, 관목층이 1.56m, 초본층이 0.26m이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분비나무, 아교목층에서 눈측백, 관목층에서 눈측백, 텔진달래, 초본층에서 눈측백, 텔진달래 순으로 나타났다.

눈측백은 북위 35° 이북의 해발 700~1,800m 산지 숲 속에서 자라는 상록침엽 소교목으로 경북, 경기, 강원, 평남북, 함남도에 분포하며, 지리적으로는 만주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눈측백은 대청봉에서 귀떼기청봉에 이르는 서북능선과 공룡능선을 거쳐 황철봉 미시령을 지나 신선봉에 이르는 설악주능의 능선부와 북사면을 따라 형성된 암괴원(block field) 또는 암괴류(block-stream)의 가장자리와 북사면 암벽에 주로 분포하며, 암반이 많이 노출된 계곡의 숲 가장자리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눈측백은 해발 625m부터 1,650m까지 출현하고 있으며 주로 해발 1,000m 이상에서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눈측백은 주로 기온이 낮은 아한대성 기후에 잘 자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눈측백은 해발 고도가 높아 기온이 낮으며, 햇빛이 잘 들면서도 건조하여 다른 수종이 잘 자라지 않는 서식 환경이면서도 어느 정도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잘 자란다. 따라서 눈측백의 최적 서식지는 북사면에 발달한 암괴원의 가장자리이다. 또한 일사량이 많고 쉽게 건조되는 암봉의 남사면과 남사면에 형성된 암괴원 또는 암괴류에는 북사면과 달리 거의 자라지 않으며, 암괴원 아래쪽 숲 가장자리에 좁은 폭으로 분포한다.

C. 텔진달래군락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community)

텔진달래군락의 평균 수고는 0.92m이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관목층에서 텔진달래, 초본층에서 실새풀, 텔진달래, 사스래나무, 산거울 순으로 나타났다.

식물학자 정태현(1957)⁷²⁾에 의하면 텔진달래가 산지의 양지에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국적으로 해발 150~2,300m 지역에 분포하고 지리적으로 일본에 분포한다고 하였으며, 환경부(1997)는 햇빛이 잘 들고 배수성이 좋은 사질 토양이나 바위틈에서 자란다고 하였다.

설악산에서 텔진달래군락은 대청봉에서 중청봉, 소청봉 능선 서사면 1,580~1,685m 지역에서 조사되었는데, 이 외에도 안산 일대의 능선부 남서사면, 귀떼기청봉과 끝청의 정상부 서사면, 그리고 공룡능선의 능선부 서사면 같이 해발 고도가 높아 기온이 낮으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사면의 관목대와 암반 주변

72) 정태현은 1883년에 출생한 한국의 식물학자이자 교육자로 근대 한국 식물분류학 연구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에 소규모의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대청봉의 서사면에서 텔진달래군락은 눈잣나무군락 다음으로 분포 영역이 넓은 군락으로 지형적으로 눈잣나무군락보다 바람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아 눈이 적게 쌓이는 입지에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아고산대 낙엽활엽수림(subalpine deciduous forest)】

D. 사스래나무군락(*Betula ermanii* community)

사스래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아교목층이 5.14m, 관목층이 1.67m, 초본층이 0.56m이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분비나무, 아교목층에서 사스래나무, 관목층에서 미역줄나무, 철쭉꽃, 텔진달래, 초본층에서 실새풀, 가는잎죽제비고사리, 서덜취, 미역취, 미역줄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사스래나무는 지리적으로 러시아 동북부, 캄차카, 사할린, 아무르, 중국 동북부, 일본 등지에 자라며, 남한에서는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백록담 부근, 소백산, 태백산 등 비교적 높은 산에 주로 분포하며 수고는 보통 7~8m에 달하는 고산성 낙엽소교목이다.

설악산에서 사스래나무군락은 해발 1,000~1,700m 내외의 지역에서 조사되었는데 1,500m 이상의 지역이 주 분포지이다. 사스래나무군락은 대부분 교목층이 없이 5m 내외의 수관층을 형성하며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서는 눈잣나무군락, 텔진달래군락과 함께 가장 중요한 아고산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사스래나무군락은 대청봉에서 끝청에 이르는 능선의 북사면 상부와 중청봉에서 소청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동사면으로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아 적설량이 많으며 5월말까지 눈이 녹지 않는 곳에 우점하여 분포하고 있다.

E. 거제수나무군락(*Betula costata* community)

거제수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3.20m, 아교목층이 6.20m, 관목층이 1.82m, 초본층이 0.68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거제수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시닥나무, 관목층에서 철쭉꽃, 눈측백, 초본층에서 시닥나무, 눈측백, 참조팝나무, 미역취, 송이풀, 단풍취 순으로 나타났다.

거제수나무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600~2,100m의 산지 숲 속에서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이북에 분포하며, 지리적으로는 만주, 아무르, 우수리, 러시아 동부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거제수나무는 해발 800~1500m 범위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며, 주로 설악주능을 따라 해발 1,000~1,250m 사이의 사면 중·상부지역으로 암괴가 많이 모여든 얕은 골을 따라서 소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사면의 경사는 10~35°로 평균 23°이었으며 비교적 경사의 영향은 적은 편이다.

【아고산대 침엽수림(subalpine coniferous forest)】

F. 주목군락(*Taxus cuspidata* community)

주목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1.33m, 아교목층이 5.33m, 관목층이 1.43m, 초본층이

0.63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주목, 다래, 아교목층에서 시닥나무, 함박꽃나무, 주목, 관목층에서 참회나무, 주목, 진달래, 눈측백, 참조팝나무, 초본층에서 관중, 오리방풀, 십자고사리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은 지리적으로 러시아 동북부, 우수리 일대, 중국 동북부 등지에 자라며, 수직적으로 700~2,500m, 수평적으로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 황해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주목은 저항령을 중심으로 동서로 저항령계곡과 길골계곡의 해발 950m이상의 상부에 100여 그루의 교목상 주목이 자라고 있으며, 소규모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서북능선의 한계령능선이 갈라지는 곳을 중심으로 북사면 상부에 가슴높이 직경이 최고 71cm에 이르는 교목상 주목 30여 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대승령에서 안산에 이르는 능선 북사면 상부에 20여 그루의 교목상 주목이 자라고 있다. 이와 같이 주목은 해발 1,000m내외의 북사면 상부와 계곡 상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데, 주로 숲이 형성된 암괴원의 가장자리 지역에서 암괴사이에 퇴적물이 쌓여 유기물 함량이 많아지고 비교적 보수력이 향상되어 토양 조건이 향상된 지역에 소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G. 분비나무군락(*Abies nephrolepis* community)

분비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1.17m, 아교목층이 6.60m, 관목층이 1.78m, 초본층이 0.62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분비나무, 잣나무, 전나무, 아교목층에서 분비나무, 당단풍, 신갈나무, 관목층에서 텁진달래, 철쭉꽃, 흥괴불나무, 정향나무, 초본층에서 실새풀, 대사초, 참조팝나무, 산거울, 눈측백 순으로 나타났다.

분비나무는 삼산의 고원 및 고산 지대에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덕유산(N 38°50')에서부터 함북 차유산(車踰山, N 42°20')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고산에 분포하며, 수직분포는 덕유산에서 해발 1,000~1,500m, 중부의 설악산에서 해발 700~1,500m, 북부의 평남 묘향산에서 해발 700~1,900m, 평북 비래봉에서 해발 700~1,400m 함북 장백산에서 해발 500~2,300m까지 분포한다고 한다. 따라서 하한계선은 북부에서 해발 500m, 중부에서는 해발 700m, 남부에서는 해발 1,000m이며, 상한계선은 장백산에서는 2,300m까지 분포하고 남한에서는 비교할 고산이 없으나 1,500m까지 분포하고 있고, 분포 중심지는 해발 1,200m이다.

설악산에서 분비나무는 서북능선을 축으로 남사면에서는 해발 1,000m부터, 북사면에서는 해발 800m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1,200m부터 출현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며 산정까지 나타나는데 주로 신갈나무림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암괴원 가장자리 지역으로 암괴 사이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생육 조건이 조금 향상된 곳으로 다른 수종이 잘 자라지 않는 곳에 분비나무의 출현 빈도가 높으며 소규모의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암괴원을 중심으로 가장자리에는 눈측백군락이, 그 바깥쪽으로 가면서 분비나무군락과 신갈나무군락이 형성되고 있었다.

【산지대 낙엽활엽수림(montane coniferous forest)】

H. 신갈나무군락(*Quercus mongolica* community)

신갈나무군락의 평균 계층별 수고는 교목층이 12.27m, 아교목층이 6.68m, 관목층이 1.76m, 초본층이 0.55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신갈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신갈나무, 관목층에서 철쭉꽃, 생강나무, 초본층에서 단풍취, 대사초, 조릿대, 산거울, 쌀새, 조록싸리, 미역줄나무, 새며느리밥풀, 오리방풀 순으로 나타났다.

신갈나무는 한반도 중부지역의 냉온대 낙엽활엽수림대와 산악 정상부근의 표징종으로서 해발 100m부터 1,800m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해발 700m 내외의 지역이 분포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설악산에서 신갈나무는 산지 능선부와 정상부 암반 주변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군락이다. 설악산의 신갈나무군락은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관목층에서 철쭉꽃의 식피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신갈나무군락의 대부분이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 당단풍이 비교적 높은 피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각 지역의 공통점이다. 일반적으로 신갈나무군락이 발달할수록 신갈나무와 당단풍이 강하게 결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 조사지역의 신갈나무군락은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I. 졸참나무군락(*Quercus serrata* community)

졸참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4.87m, 아교목층이 7.87m, 관목층이 1.63m, 초본층이 0.69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졸참나무, 신갈나무, 굴참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쪽동백나무, 졸참나무, 만주고로쇠, 관목층에서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당단풍, 초본층에서 조릿대, 생강나무, 조록싸리, 단풍취, 우산나물 순으로 나타났다.

졸참나무는 우리나라 각처 산지의 산중턱 및 산기슭의 계곡부 토심이 양호한 곳에 주로 분포하며, 해발 300~400m 지역이 분포의 중심지이다.

설악산에서 졸참나무군락은 해발 260~560m사이에서 조사되었으며, 주로 계곡부와 사면하부에서 다른 참나무류와 섞여서 자라고 있으며 작은 규모로 졸참나무 순림이 분포하였다. 본 군락은 교목층에서 졸참나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우점종이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 계곡부에 국지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J. 굴참나무군락(*Quercus variabilis* community)

굴참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5.09m, 아교목층이 6.55m, 관목층이 1.86m, 초본층이 0.54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굴참나무, 아교목층에서 쪽동백나무, 굴참나무, 당단풍, 신갈나무, 때죽나무, 생강나무, 졸참나무, 물푸레나무, 관목층에서 산거울, 생강나무, 초본층에서 산거울, 조록싸리, 큰기름새, 맑은대쑥 순으로 나타났다.

굴참나무는 산중턱 양지에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완도군(북위 34° 30')으로부터 평남 묘향산(북위 40°)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며, 해발 50m부터 1,200m까지 분포하고 있으나 해발 500m 지역이 분포의 중심지이다.

설악산에서 굴참나무군락은 서에서 동으로 뻗은 능선인 달마봉 능선의 남사면, 황철봉에서 신흥사로 뻗은 능선의 남사면, 서북능선의 남사면, 둔전골 남사면과 같이 주로 동서로 뻗은 능선의 남사면 해발

190~550m 사이의 지역에 형성하고 있는데, 해발 300~400m 지역이 분포의 중심이다. 굴참나무는 일사량이 많고, 경사가 비교적 급하며 건조한 사면 지역에서 굴참나무 순림으로 분포하고, 능선부와 사면 상

부에서는 소나무와 계곡쪽으로는 신갈나무와 혼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군락의 아교목층에서 신갈나무의 우점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향후 신갈나무림으로의 천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나 토심이 얕으면 건조한 토양으로 경사가 비교적 급한 곳에는 굴참나무군락으로 잔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K. 서어나무군락(*Carpinus laxiflora* community)

서어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3.40m, 아교목층이 6.50m, 관목층이 1.62m, 초본층이 0.58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서어나무, 신갈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서어나무, 관목층에서 생강나무, 당단풍, 진달래, 철쭉꽃, 사람주나무, 초본층에서 조릿대, 생강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서어나무는 제주도 한라산(N 33°20')에서부터 강원도 금강산(N 38°30')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심산에 자라며, 수직적으로는 해발 100m부터 1,300m까지 분포하나, 해발 500m 내외의 지역이 분포 중심지이다. 또한 한반도 내륙의 냉온삼림대 중부에 분포하는 대표적 수종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설악산에서 서어나무는 점봉산 지역의 주전골과 가는고래골, 외설악 지역의 천불동계곡, 토왕골, 내설악 지역의 십이선녀탕계곡 등 계곡을 따라 해발 200~700m 사이의 계곡 부근의 사면 중·하부로서 노암이 많아 토양의 양이 적고 다소 척박한 토양 환경에 소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L. 함박꽃나무군락(*Magnolia sieboldii* community)

함박꽃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와 식피율은 교목층이 12.33m, 아교목층이 5.92m, 관목층이 1.50m, 초본층이 0.62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분비나무, 잣나무, 아교목층에서 함박꽃나무, 관목층에서 귀룽나무, 함박꽃나무, 생강나무, 초본층에서 오리방풀, 관중, 십자고사리, 금강분취 순으로 나타났다.

함박꽃나무는 심산 골짜기에서 자라는 낙엽활엽 소교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함북을 제외한 전도의 해발 50~1,400m에서 자라며, 지리적으로는 일본, 중국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함박꽃나무는 해발 170~1,500m사이의 저지대에서 대청봉 부근까지 광범위하고 산발적으로 다른 군락의 하위층에 높은 출현빈도로 분포하고 있으며, 암석이 많은 지역의 사면부에 형성된 얕은 골짜기에 암괴가 많이 모여들어 암괴가 많고 토양의 양이 적어 보수력이 작아서 갈수기에는 쉽게 건조해져 다른 수종이 잘 자라지 못하는 열악한 입지에 소규모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설악산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함박꽃나무는 다른 군락 내에 산발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로 분포하지만 순군락을 이루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설악산에서 소규모이지만 함박꽃나무군락이 많이 형성되는 이유는 암반 지형이 많고 암괴가 모여드는 얕은 골이 많이 형성되는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M. 피나무군락(*Tilia amurensis* community)

피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5.00m, 아교목층이 6.30m, 관목층이 1.96m, 초본층이 0.76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피나무, 신갈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시닥나

무, 피나무, 관목층에서 철쭉꽃, 시닥나무, 초본층에서 단풍취, 대사초, 큰개별꽃, 오리방풀, 병조희풀, 금강분취 순으로 나타났다.

피나무는 우리나라 지리산 이북 숲속에 자라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지리산 이북에 분포하며, 지리적으로는 만주, 아무르, 우수리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피나무는 해발 200m부터 1,400m까지 산발적으로 분포하며 해발 800~1,400m 사이가 주 분포지역으로 1,200m내외의 지역에서 가장 높은 중요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해발 900~1,400m 지역에서 소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N. 물푸레나무군락(*Fraxinus rhynchophylla* community)

물푸레나무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1.50m, 아교목층이 7.00m, 관목층이 1.85m, 초본층이 0.83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물푸레나무, 아교목층에서 물푸레나무, 만주고로쇠, 노린재나무, 산뽕나무, 관목층에서 고추나무, 조릿대, 노간주나무, 광대싸리, 조록씨리, 초본층에서 오리방풀, 쌀새, 뵐제비꽃, 줄딸기, 산딸기, 오미자, 물푸레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물푸레나무는 산기슭이나 골짜기 그리고 개울가에 자라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전국적으로 해발 100~1,600m에 자란다. 물푸레나무는 일본에서는 빈약하게 나타나지만 한국이나 만주 등에서는 흔하게 나타나는 종으로 군집보다는 군단 이상의 표징종 요소가 더 강하다.

설악산에서 물푸레나무는 해발 170~1,420m 사이에서 타 군락에 섞여 자라며 피도는 낮지만 25개의 다른 군락군 중 18개의 군락군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해발 390~920m 지역의 백담계곡의 계곡부, 수렴동계곡 주변의 사면하부, 그리고 미시령 동쪽 사면과 한계령에서 점봉산에 이르는 능선의 사면 상부에 소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산지대 침엽수림(montane coniferous forest)】

O. 소나무군락(*Pinus densiflora* community)

소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4.50m, 아교목층이 5.90m, 관목층이 1.71m, 초본층이 0.55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소나무, 신갈나무, 아교목층에서 소나무,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졸참나무, 산벚나무, 관목층에서 진달래, 생강나무, 조록싸리, 신갈나무, 철쭉꽃, 당단풍, 소나무, 국수나무, 참싸리, 초본층에서 산거울, 큰기름새, 진달래, 물푸레나무, 생강나무, 산구절초, 참싸리, 맑은대쑥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나무는 양수로서 수분요인에 폭넓은 적응성을 가지고 있으나 조건이 좋은 생리적 적지에서는 다른 수종과 경쟁에 약함으로 능선과 같은 건조한 척박지나 습원, 하안과 같은 과습지인 생태적 적지에 군집을 이루거나 산사태 등으로 군집이 파괴된 곳에 형성되는 이차천이의 도중상인 이차림으로 존재한다. 소나무군락은 한국, 만주,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에 분포하는 대표적 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로부터 함경북도 은성군에 이르기까지 해발 10m부터 2,000m의 범위에 분포하나 해발 500m 내외의 지역이 분포의 중심이며, 특히 온대인 중부지방이 분포의 중심이다. 소나무군락의 분포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설악산에서는 해발 50~900m 범위에 분포하며 500m 이내가 주 분포의 중심이다.

소나무군락은 일반적으로 교목층에서 소나무가, 아교목층에서 신갈나무가 각각 높은 우점도를 나타내며 중부 이북 산지 사면 상부와 능선부에 주로 분포하는 입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설악산의 소나무군락에서도 신갈나무 출현빈도가 높으며, 피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인간의 간섭이 장기간 배제된다면 소나무림이 신갈나무림으로 천이가 진행되어 소나무군락의 분포 영역이 줄어들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설악산의 소나무군락에서 해발고도가 낮을수록 졸참나무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신갈나무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소나무림에서 참나무류는 중부아구에서는 신갈나무가 우점종군에 들어가며, 남으로 갈수록 신갈나무는 줄어들고 졸참나무와 굴참나무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해발고도가 높아지면 위도가 높아지는 것과 같은 기후 특성을 나타내므로 이를 고도별 변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나무는 수광량이 풍부하고, 최대용수량이 매우 적어 건조하며, 유기물량, 총질소량, 유효인산량, 치환성 양이온이 적은 척박한 입지에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설악산에는 이러한 토양 입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소나무군락이 분포하는 입지에 따라 능선형, 사면형, 암벽형, 계곡형, 하천변형, 저산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능선형은 산지 능선을 따라 토양적 극상을 이루고 있으나 낙엽 낙지에 의한 낙엽부식층에 의해 토양 조건이 점차 양호해지면 다른 수종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는 능선형 소나무군락의 아래쪽에 주로 신갈나무 군락이 분포하고 군락 내에도 신갈나무의 피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능선형 소나무군락에는 높은 고도에서 분포하는 종이 많이 출현한다. 일부 군락은 척박한 토양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의 입지 조건으로 생장속도가 느려 교목층이 없는 3층 구조이다.

사면형은 비교적 경사가 급하거나 노암이 많은 지역으로 마사토와 같은 입자가 굽어 배수가 잘되어 보수력이 떨어지는 토양으로 이루어진 사면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암벽형은 바위틈에 형성된 적은 양의 풍화토와 낮은 보수력으로 갈수기에 다른 식물의 생육이 어려울 정도로 건조해지는 토양 입지에 수분요인에 대한 적응범위가 넓은 소나무의 군락이 형성된 것으로 설악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암벽지에 자라는 소나무는 주변에 식생의 발달이 빈약하여 일사량이 풍부하여 자절현상(self cutting)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가 많은 수형을 나타낸다. 또한 척박한 입지 조건 때문에 생장속도가 느려 수고가 8m 이내이며 교목층과 초본층으로 구성된 2층 구조 또는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으로 구성된 3층 구조이다. 설악산의 암벽 지형에서 남사면의 암벽에서는 해발 800~900m 까지 분포하고, 북사면에서는 해발 500~600m 까지 분포하며 그 이상으로 고도가 높아지면 수종이 잣나무로 바뀌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천변형은 하천의 유로 변경으로 자갈과 굽은 모래가 퇴적된 나지로서 수분 공급은 원활하나 배수가 잘되어 보수력이 매우 낮으며 일사량이 풍부한 입지적 조건으로 소나무가 선구종으로 침입하여 군락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때때로 일어나는 하천의 범람으로 하상에 가는 모래가 덮이게 되어 경쟁 수종을 제거하여 소나무군락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하천의 유로에서 멀어진 곳은 군락이 발달하면서 하상의 일사량 감소와 낙엽 낙지에 의한 낙엽부식층의 발달로 토양 조건이 양호해지면서 점차 졸참나무, 굴참나

무, 신갈나무와 같은 참나무류의 군락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군락이다.

계곡형은 경사가 강하며 암반이 분포하는 계곡 주변의 사면 하부에 형성된 군락으로, 곡류에 의한 침식으로 암반 위의 표토가 얕게 있어 일사량이 풍부하고 갈수기에 쉽게 건조되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다른 수종에 비해 건조에 강한 소나무가 군락을 형성하게 된다.

P. 잣나무군락(*Pinus koraiensis* community)

잣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1.50m%, 아교목층이 6.71m, 관목층이 1.79m, 초본층이 0.44m로 각각 나타났다.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잣나무, 신갈나무, 아교목층에서 신갈나무, 잣나무, 당단풍, 분비나무, 관목층에서 철쭉꽃, 진달래, 초본층에서 실새풀, 대사초 순으로 나타났다.

잣나무는 음성으로 생장이 비교적 빠르고 특히 북향의 산중턱 사면 및 계곡부의 토심비옥한 곳에 잘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N 35°10')에서부터 함북 무산군 차유산(N 42°20')에 이르기까지 심산에 분포하고 있으나 중부 N 38°~39°의 지역이 분포의 중심이며, 수직적으로는 금강산에서는 해발 100m부터, 지리산에서는 해발 1,900m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하한계선을 해발 600m, 상한계선을 해발 1,200m로 보면 해발 900m 내외의 지역이 분포 중심이다.

설악산에서 잣나무는 해발 240m부터 1,600m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주로 소나무의 입지조건과 비슷한 능선부와 경사가 강하고 암반이 많은 곳으로 소나무보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라고 있었다. 따라서 남사면의 경우 해발 800m부터 소나무보다 출현빈도가 높아지면서 1,000m 이상 지역에서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사면의 경우 500m부터 소나무보다 출현빈도가 높아지면서 700m 이상에서 순군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해발 1,200m 이상부터는 점차 분비나무로 바뀌고 있었다. 따라서 설악산에서의 잣나무의 최대 분포지는 해발 1,000m 내외의 지역이다.

Q. 전나무군락(*Abies holophylla* community)

전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24.57m, 아교목층이 7.71m, 관목층이 1.70m, 초본층이 0.53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전나무, 까치박달,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까치박달, 쪽동백나무, 만주고로쇠, 합박꽃나무, 관목층에서 전나무, 생강나무, 쪽동백나무, 초본층에서 관중, 십자고사리, 승마, 오리방풀, 단풍취, 오미자, 마주송이풀, 병조희풀 순으로 나타났다.

전나무는 심산의 산중턱 이상의 습윤지에서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의 무등산(N35°)에서 함북 송진산(N 43°)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걸쳐 분포하며 중부 및 북부가 분포의 중심지이고 남부에서는 매우 희소하다.

수직적으로는 경기도 용문산 및 소래봉에서 해발 100m부터, 강원도 화악산 및 함북 만탑산에서 해발 1,400m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나 해발 700~800m가 분포 중심지이다.

설악산에서 전나무는 해발 200~1,400m 범위에 산발적으로 분포하지만 해발 500~800m 지역의 경사가 강한 사면중부, 암괴가 많이 모인 사면 하부와 계곡부에 소규모의 순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설악산에서의 전나무군락은 전나무의 수고가 매우 높고 단위면적당 개체수가 1.89 개체/a로 밀도가 적은 관계로 하상까지 수광량이 풍부하여 교목층이 2개 층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방형구당 출현종 수가 많

다.

전나무군락의 교목층은 20~30m의 전나무를 상위층으로 하고 8~10m의 까치박달이 아래층을 우점하고 있었다. 특히 영시암에서 오세암 사이의 계곡부 주변에는 가슴 높이 직경(DBH)이 최고 1.43m의 개체를 비롯하여 DBH가 1m이상 되는 전나무가 10여 개체가 조사되었다.

【산지 계곡림(riparian forest of montane)】

R. 황철나무군락(*Populus maximowiczii* community)

황철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4.50m, 아교목층이 6.33m, 관목층이 1.75m, 초본층이 0.62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황철나무, 소나무, 아교목층에서 생강나무, 서어나무, 쪽동백나무, 물푸레나무, 때죽나무, 관목층에서 생강나무, 조록싸리, 초본층에서 등칡, 담쟁이덩굴, 주름조개풀, 오리방풀 순으로 나타났다.

황철나무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해발 100~1,400m의 산지 물가나 골짜기에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 평남북, 함남북에 분포하며, 지리적으로는 일본, 만주, 아무르, 우수리, 사할린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황철나무는 해발 550m이하의 저항령계곡과 쌍천변에 많이 분포하며, 십이선녀탕계곡과 인제 북천변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는데, 계곡의 폭이 좁은 하천으로 범람이 자주 일어나 암괴와 굽은 모래가 퇴적되어 유기물 함량이 적고, 최대용수량이 가장 적은 하천변 퇴적지에 주로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황철나무군락은 하천의 빈번한 범람으로 자갈과 모래가 임상을 덮으므로 식생의 변화가 심하였다.

황철나무군락의 입지는 계류의 경사에 따른 토양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사가 강한 계곡은 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크며, 수광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황철나무군락이 발달하고, 경사가 완만한 계곡은 폭이 넓고 유속이 느리므로 하천에서 멀어질수록 입자가 작은 모래가 퇴적되며, 하천의 범람 회수도 감소되어 유기물함량과 최대용수량이 점차 많아져 토양 환경이 양호하다. 따라서 수광량이 풍부한 하천변에서 계류에 가까운 곳은 역암지역으로 토양 환경이 열악하여 황철나무가 우점하고, 하천에서 멀어지면서 토양 환경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곳에는 소나무의 출현빈도가 높아져 하천변형 소나무군락이 형성되고 있다.

S. 가래나무군락(*Juglans mandshurica* community)

가래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5.33m, 아교목층이 7.33m, 관목층이 1.83m, 초본층이 0.77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가래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물푸레나무, 산뽕나무, 느릅나무, 쪽동백나무, 소태나무, 참개암나무, 관목층에서 고추나무, 참싸리, 생강나무, 초본층에서 오리방풀, 병조희풀, 사위질빵, 조릿대, 큰개별꽃, 주름조개풀, 오미자, 산딸기, 쌀새 순으로 나타났다.

가래나무는 산기슭 및 계곡의 숲 속에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태백산(N 37°50')에서부터 함북 온성군 종산(N 42°50')에 이르기까지 각지의 삼산에 분포하고, 수직분포는 강원도 금강산에서는 해발 500m부터

73) '설악산의 동물상' 편은 『속초시사(上)』,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함남 정평군 사수산에서는 해발 1,500m까지 분포하나 해발 500m 내외의 지역이 분포 중심지이다.

설악산에서 가래나무는 해발 300~600m 사이의 계곡부와 사면하부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며, 계곡 주변의 사면하부에 경사가 32~45°로 비교적 강하여 낙엽과 낙지의 유실량이 많아 다소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 입지에서 아주 작은 규모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T. 박달나무군락(*Betula schmidtii* community)

박달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는 교목층이 14.75m, 아교목층이 8.00m, 관목층이 1.80m, 초본층이 0.58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박달나무, 아교목층에서 당단풍, 만주고로쇠, 쪽동백나무, 관목층에서 생강나무, 함박꽃나무, 초본층에서 생강나무, 등칡, 조릿대, 대사초, 미역줄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박달나무는 산중턱이하의 숲 속 또는 바위틈에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N 35°)에서부터 함북 송진산(N 42°30')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삼산에 분포한다. 수직분포는 강원도 치악산(N 37°20')에서는 해발 180m부터 평북 낭림산(N 40°40')에서는 2,000m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하한계선을 400m, 상한계선을 1,000m로 보면 해발 700m 내외가 분포의 중심지이다.

설악산에서 박달나무는 해발 400~900m사이의 비교적 건조한 곳에 형성된 신갈나무, 소나무, 잣나무, 황철나무군락 내에 산발적으로 섞여 분포하며, 사면 중·하부에 형성된 얇은 골에 암괴가 모여들어 노암이 많고 토양의 양이 적어 보수력이 떨어져서 쉽게 건조해지는 토양 입지에 소규모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U. 염주나무군락(*Tilia megaphylla* community)

염주나무군락의 계층별 평균 수고와 식피율은 교목층이 15.67m, 아교목층이 8.00m, 관목층이 1.67m, 초본층이 0.63m로 각각 나타났다. 각 계층별 우점종은 교목층에서 염주나무, 등칡, 아교목층에서 염주나무, 함박꽃나무, 관목층에서 생강나무, 왕머루, 박쥐나무, 오미자, 고추나무, 초본층에서 등칡, 큰개별꽃, 훌아비꽃대, 생강나무, 박쥐나무, 오미자, 다래, 우산나물, 승마 순으로 나타났다.

염주나무는 산지의 숲 속에서 자라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강원도 북부에 분포하며, 지리적으로는 만주에 분포한다.

설악산에서 염주나무는 한계령에서 한계리에 이르는 지역, 백담계곡, 그리고 십이선탕계곡 등 내설악 지역의 해발 200~820m사이의 사면 중·하부에 산발적으로 자라며, 십이선탕계곡, 백담계곡, 오세암으로 가는 계곡의 사면 하부에 소규모의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염주나무군락은 종의 분포 특성상 남한의 다른 지역에서는 조사된 바 없으며 설악산에서 처음 기록되는 군락으로 생각된다.

□ 설악산의 대표적인 수종

설악산에 가장 많이 자라는 나무는 신갈나무, 소나무, 당단풍, 졸참나무, 서나무, 쪽동백나무, 물푸레나무, 생강나무, 전나무, 피나무, 분비나무, 굴참나무가 있다.

□ 설악산에 자라는 특산식물

우리나라에서만 서식 또는 자생하는 특산식물로서 설악산에 자라는 모데미풀과 특산종의 설악눈주목 등 특산 변·품종 두메김의털을 포함 모두 71종류가 있다.

□ 설악산에 자라는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

자연생태계의 훼손과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감소 추세에 있고 개체수가 아주 희소하여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높은 희귀 및 멸종 위기의 식물로서 환경부에서 자연보전법 시행령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식물과 보호대상식물 중 보호대상 식물은 솔나리를 비롯해 74종류가 설악산에 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설악산에 자라는 귀화식물

설악산에 자라는 귀화식물은 29속 33종류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 자라고 있는 귀화식물 225종에 대한 설악산의 출현 종수는 1262종류로 2.61%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에 조사된 종류에서 금낭화(*Dicentraspectabilis*)가 자생종으로 밝혀져 제외되고 새로운 종류가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최근 설악산에는 귀화종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귀화종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설악산의 등산객과 관광객이 급증하였으며 각종 시설물 공사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자재 운반 등 귀화식물의 도입 기회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사진92〉 금낭화



〈사진93〉 솜다리

출처:『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3. 설악산의 동물상⁷³⁾

가. 포유류

설악산에서의 보고된 과거 문헌, 동물의 흔적(발자국, 배설물 등), 관찰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총 6목 15과 39종을 기술하고 있다. 기록된 39종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절종되었다고 보는 종류

설악산에서는 물론 이미 남한에서는 절종되었다고 판단되는 동물은 호랑이, 대륙사슴이다.

□ 사라져 가는 종류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동물로서 하늘다람쥐, 곰(반달가슴곰), 산양, 사향노루, 늑대, 여우, 표범 등이며, 이들 중 일부는 최근 설악산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종류도 있다.

□ 환경 변화로 감소되어 가는 종류

중·대형 동물들은 과다한 등산객과 연중 무휴의 입산 등 인간의 간섭으로 이들의 서식 환경에 변화를 주어 그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종류로서 수달(멸종위기동물), 맷돼지, 오소리, 너구리, 노루, 고라니, 노랑목도리담비, 족제비 등이다.

□ 환경 변화로 증식되는 종류

인간 간섭에 의한 임상의 변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적은 천적인 포식동물의 감소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청설모, 다람쥐, 맷토끼, 들쥐(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대륙밭쥐, 맷밭쥐, 땃쥐, 뒤쥐, 갈밭쥐 등) 등이다.

□ 가축 또는 애완동물이 야생화된 종

가축 또는 애완용으로 기르던 것이 야생화 한 종으로 고양이와 염소가 있으며, 특히 고양이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생태계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

청문 조사만으로 기재되었거나 잘못된 동정 등으로 기재된 종 중에서 설악산에 분포 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종으로, 갯침서는 주민들에 목격되었다고 하나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고, 날다람쥐는 국내에 서식

73) '설악산의 동물상' 편은 『속초시사(上)』,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종으로 하늘다람쥐를 잘못 동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조류

설악산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 62종으로 이 중 텃새 32종, 여름새 23종, 겨울새 3종, 통과조 1종, 미조 1종, 미확인종 2종이다. 최우점종은 박새이며 다음으로 쇠박새, 동고비, 곤줄박이, 노랑할미새, 어치의 순이다. 설악산과 속초지역에서 관찰된 종류를 추가하면 속초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총 216종이 된다.

다. 파충류·양서류·담수어류

설악산에서 조사된 파충류는 출장지뱀, 대륙유혈목이, 살모사를 비롯 13종이 있으며, 양서류는 도롱뇽, 두꺼비, 청개구리 등이, 담수어류는 칠성장어, 전어, 산천어, 잉어 등 총 61종류가 조사되었다.

□ 파충류

백남극, 박상률과 심재한의 「설악산의 파충류상」(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293~302)에 의하면 설악산에서 조사된 파충류는 1목 2아목 3과 13종이며,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1)에서는 설악산 경계 밖 저지대에서 발견한 7종을 포함하여 모두 2목 6과 16종을 보고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구렁이(I 급) 1종이다.

□ 양서류

백남극과 심재한의 「설악산의 양서류상」(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285~292)에 의하면 설악산에서 조사된 양서류는 2목 5과 6속 10종이며, 『설악산국립공원자연자원 조사』(국립공원관리공단 2001)에서 한국미기록종 1종을 추가하여 2목 5과 6속 11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담수어류

전상린의 「설악산의 계류동물- I . 담수어류」(1984, 설악산학술조사보고서 370~411)에 의하면 태백산맥의 일부인 설악산맥을 분수령으로 내설악과 외설악에서 뚜렷한 담수어류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된 담수어는 원구류를 포함하여 총 61종류이다.

설악산에서 관찰된 담수어 61종에 『강원의 자연-담수어편』(1986 강원도교육위원회)에 기록된 속초지역의 담수어를 검토하여 추가하면 원구류를 포함하여 21과 50속 65종이다. 이 중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물은 Ⅱ급이 8종이며, 천연기념물은 어름치 1종이다. 또한 한국고유어종은 16종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관동읍지(關東邑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여지도서(輿地圖書)』
- 『현산지(峴山誌)』

【단행본】

- 고명녀 외,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도시기록사업 사진집 2020』, 속초문화재단, 2021.
- 권혁재, 『지형학』, 법문사, 2003.
- 김정환 외, 『속초의 근•현대사』, 속초문화원, 2004.
- 김정환·한정규·정종천·최영택 공저, 『속초 도시변천사 I』, 속초문화원, 2020.
- 김창환 외, 『이야기로 만나는 설악산국립공원 문화자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2019.
- 속초문화원·속초시, 『한 권으로 읽는 속초의 역사와 문화』, 속초문화원, 2013.
- 속초문화원향토사연구소, 『알기쉽게 정리한 한권으로 읽는 속초문화유산』, 속초문화원, 2005.
- 속초시, 『속초시지』, 1991.
- 속초시, 『2020년 속초 통계연보』, 2020.
- 속초시, 『속초시정30년사(상)』, 1991.
-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상)』, 속초문화원, 2006.
- 손병섭 외,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 속초문화원, 2000.
- 손병섭 외, 『속초의 옛 땅이름』, 속초문화원, 2002.
- 엄경선 외, 『속초 수산업의 발전 역사』, 속초문화원, 2017.
- 이수영·장재환 공저, 『길 위의 束/草/學 속초의 길』, 속초문화원, 2020.
- 장정룡 외, 『강원도민 이북도민 정착사』, 속초시립박물관, 2009.
- 장정룡·양언석 공저, 『속초지역 구전설화』, 속초문화원, 1999.
-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논문】

- 강원문화재연구소, 「속초 대포동 외옹치유적 발굴 보고서」, 2015.
- 예맥문화재연구원, 「속초 청호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내 유적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5.

【웹사이트】

- 기상청 홈페이지 (<https://www.kma.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kostat.go.kr/>)
-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sokchomuse.go.kr/>)
- 속초시청 홈페이지 (<http://www.sokcho.go.kr/>)

중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 안내서

발행인 / 김계남(속초문화원 원장)

편집인 / 양용석(속초문화원 사무국장)

펴낸곳 / 속초문화원

집필인 /

김정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대진고등학교 교사

최종학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설악고등학교 교사

신수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졸업
속초여자고등학교 교사

김동현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
해랑중학교 교사

감수 /

최재도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정상철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김만중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기획 / 전 육(속초문화원 문화경영팀장)

출판 /

발행일 / 2021. 12. .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전화 (033) 632-1231 / 전송 (033) 632-1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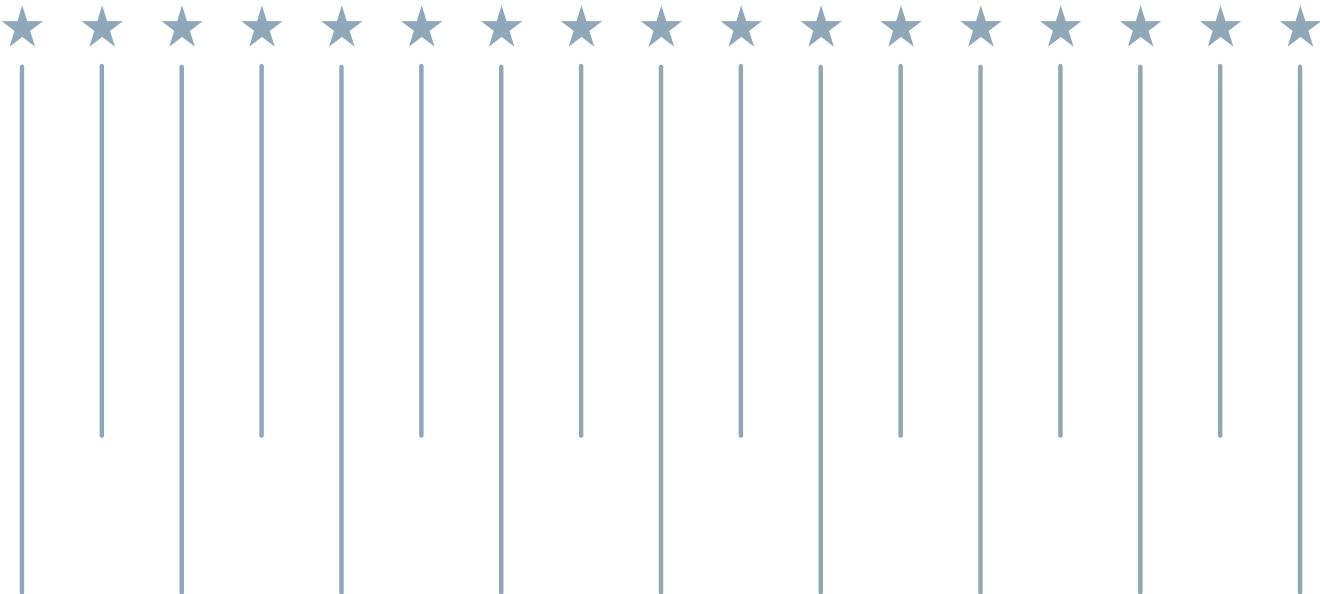
전자우편 sc2439@kccf.or.kr

홈페이지 <http://sokcho-culture.com>

[비매품]

ISBN

-
- ◇ 이 책의 저작권은 속초문화원 및 집필 저자에게 있으니 무단으로 전재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책은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중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 안내서

